

세계 속의 한국

국제 관계

수교 및 조약

수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90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시리아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유엔 비회원국 중에서는 바티칸 시국, 쿡 제도와 수교를 맺고 있고, 외교가 단절되었던 타이완과도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지도는 현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교 현황을 시기별로 표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0년까지만 해도 수교국은 16개의 자유 우방 국가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65개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국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동맹 국가’였다. 이들 비동맹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 내 소위 ‘제3세계’의 개발 도상국으로 1960~1970년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동맹 국가 5개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30개 국가와 그리고 1980년대에 22개 국가와 수

교를 하였다. 동서 냉전 시기에 정부는 긴장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명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과 함께 공식 철회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냉전은 점차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1989년 몰타에서 역사적인 ‘미·소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상은 냉전을 종식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수교 체결 연혁



* 최초 수교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단교, 재수교는 표기하지 않았음.

외교부 지역 구분: 북미, 유럽, 러시아·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 또는 지역적 FTA 체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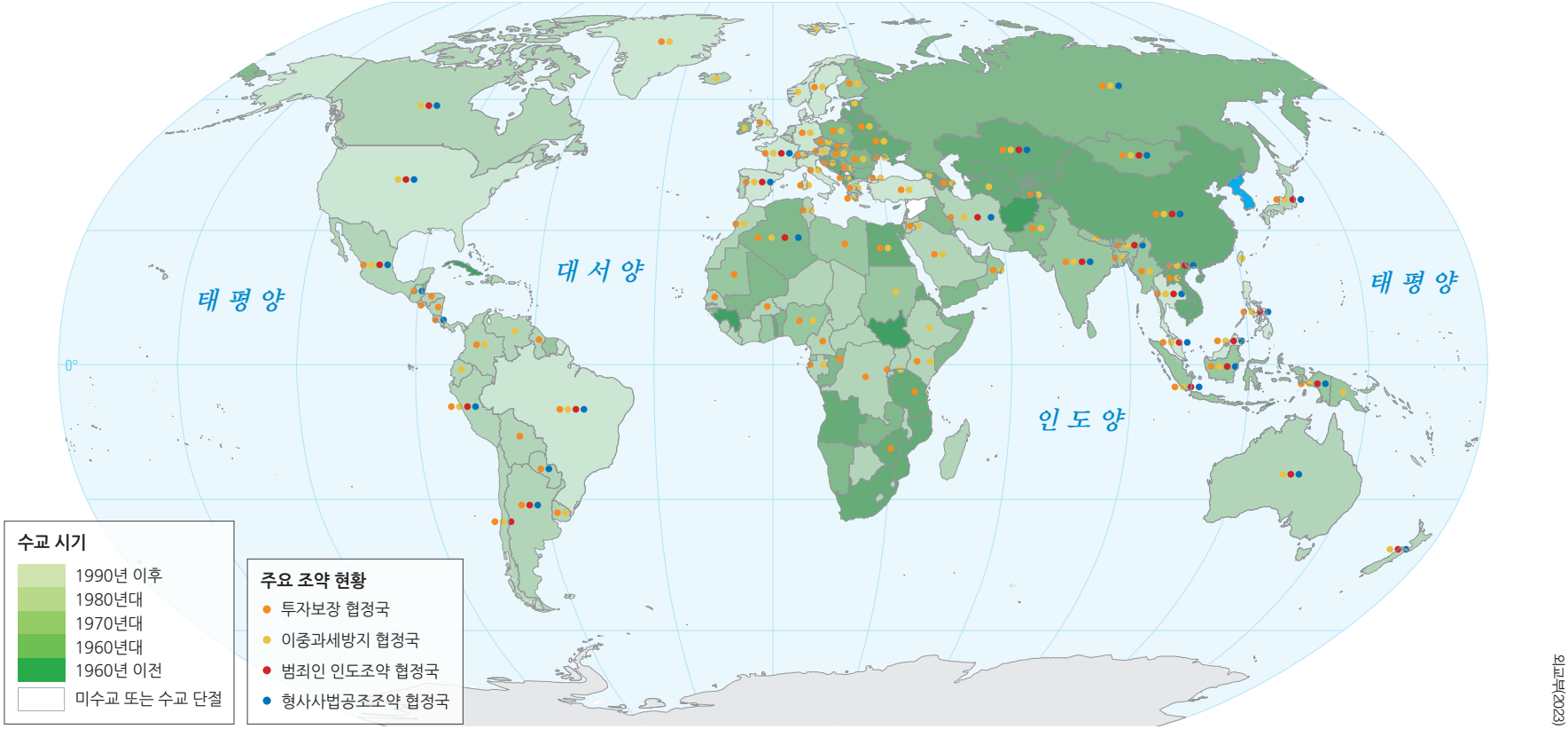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유엔과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기구들과 이들의 국내 분포를 살펴본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유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국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수교에 대해 살펴본다. 수교의 시공간적 추이를 분석함은 물론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설립한 재외 공관을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재외 동포를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분포도 알아본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수민국별로 나누어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저출생·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타개해 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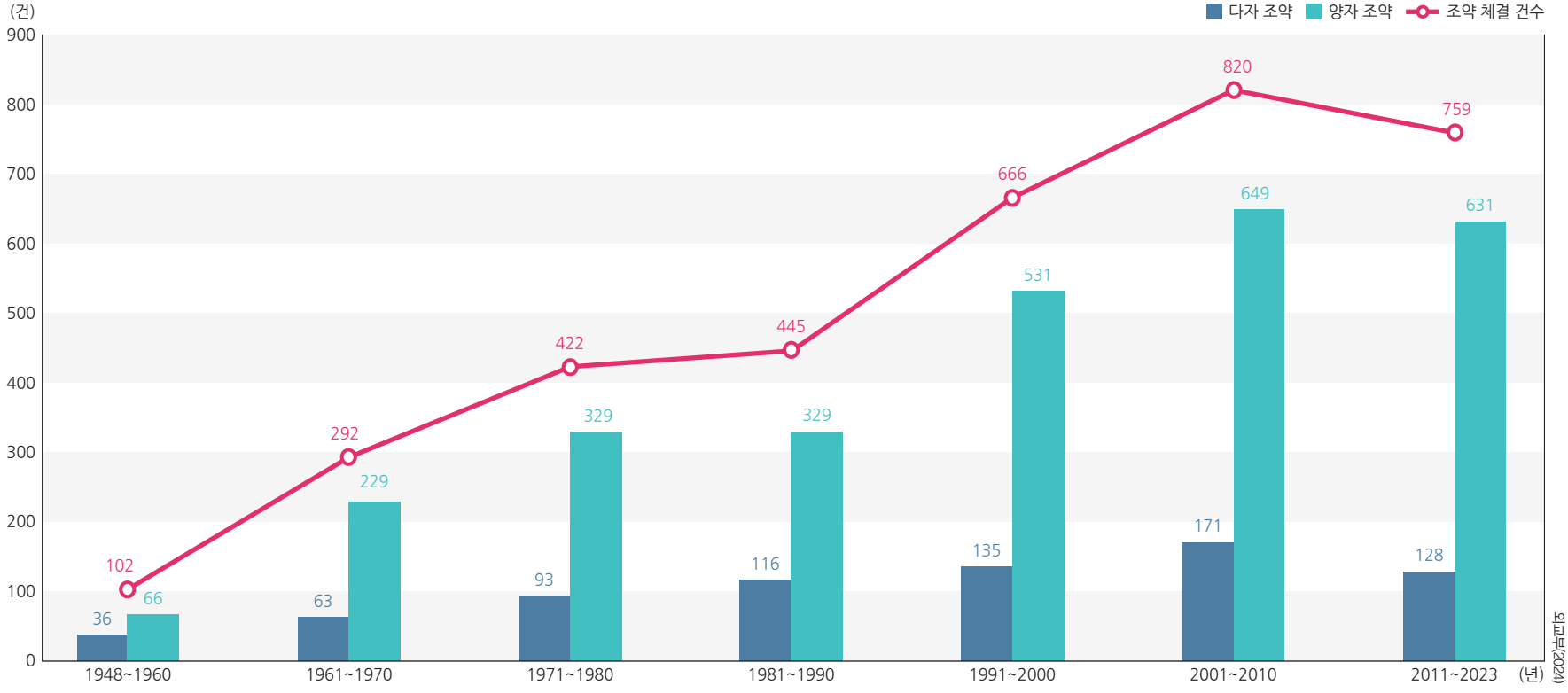
수교 및 주요 조약



조약이란 단일 문서 또는 두 개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특정 명칭과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를 의미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가).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 간의 조약 이외에도 국가와 국제기구 또

는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도 조약이라 한다. 조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약, 헌장·규정·규약,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 교환, 양해 각서, 기관 간 약정 등이 있다.

조약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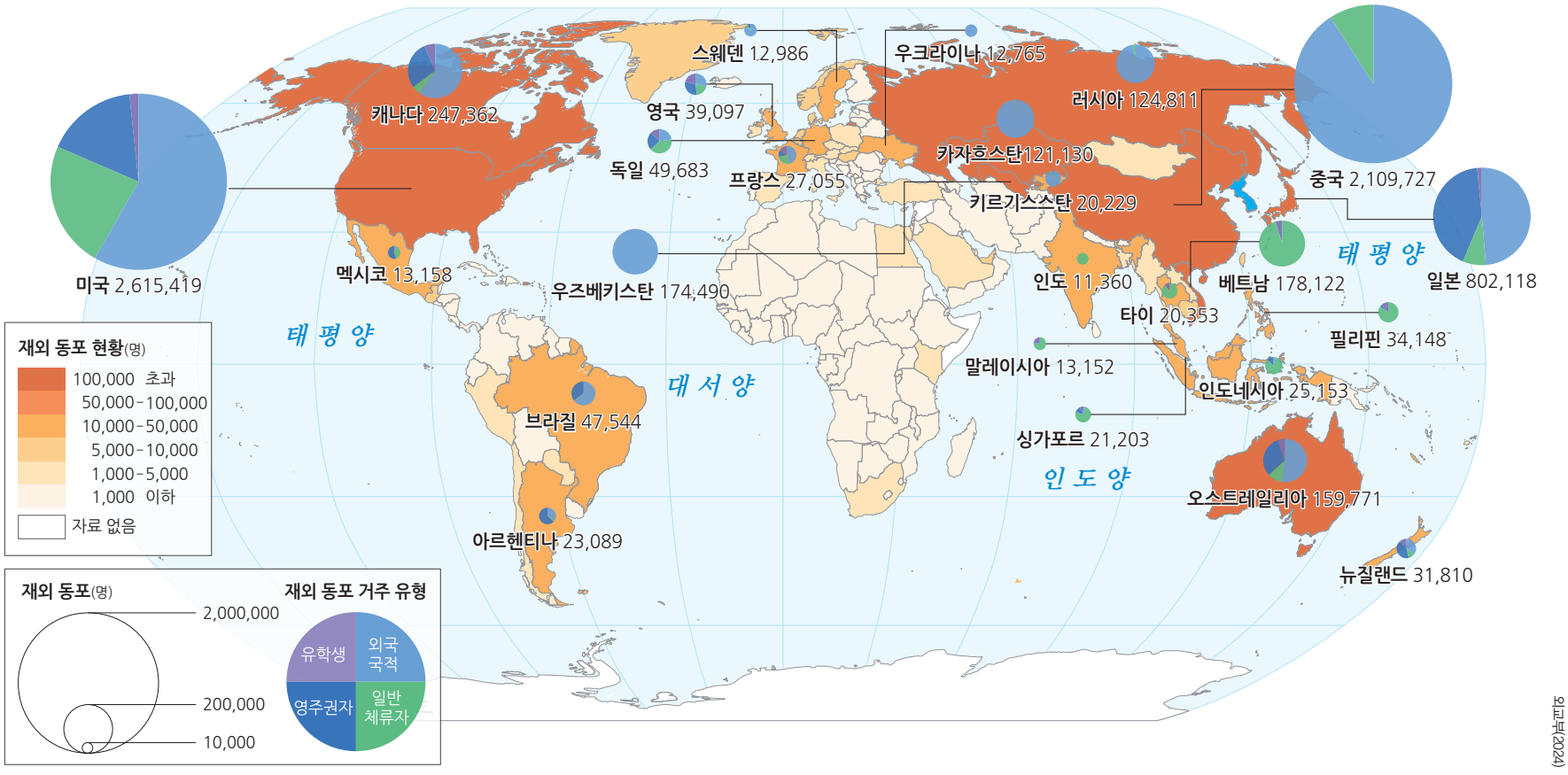


지도는 2023년 9월 기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표시한 것이다. 각 조약을 체결한 국가 수를 보면 투자보장협정 100개국, 이중과세방지협약 99개국, 범죄인인도조약 35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 33개국이다. 그리고 이들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25개국이다. 그래프는 연도별 조약 체결 건수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양자 조약 체결 건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양자 조약보다 상대적으로 체결하기 어려운 다자 조약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포 및 공관

국가별 재외 동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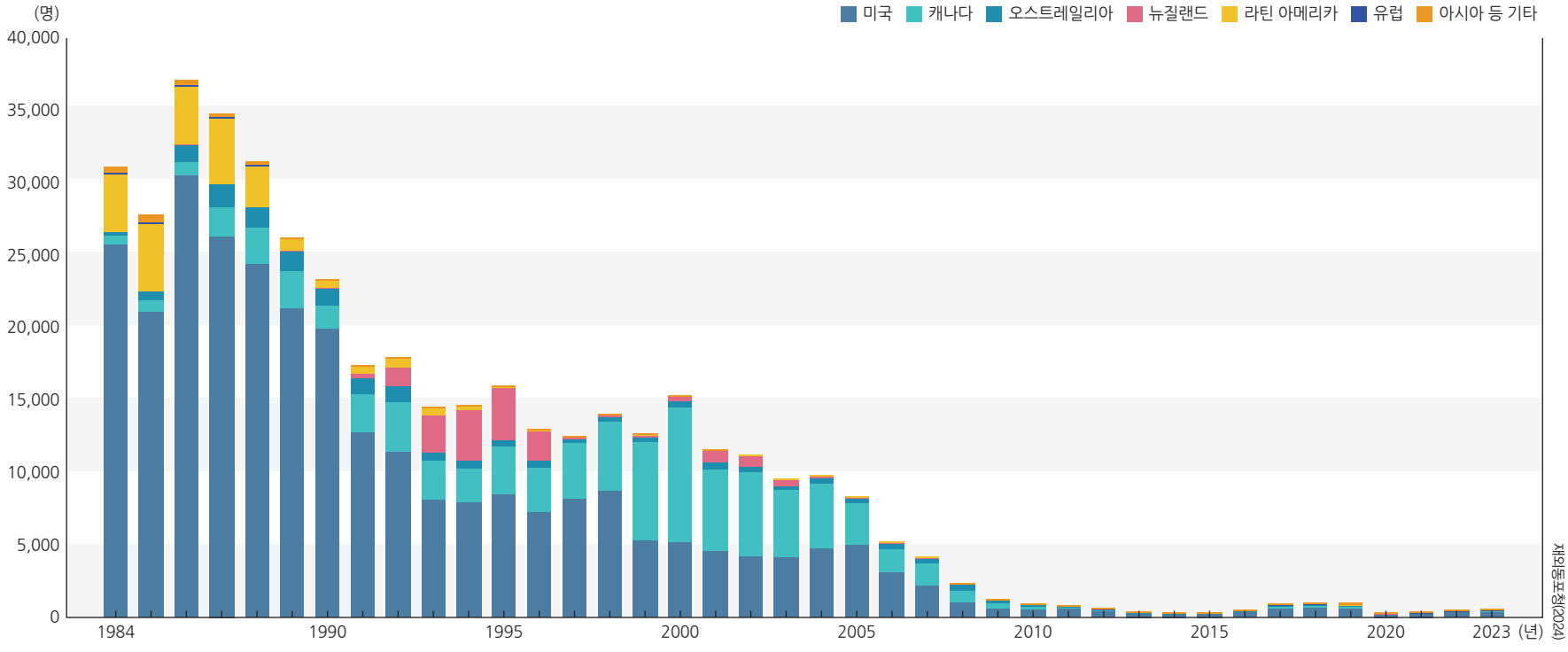


지도는 재외 동포의 국가별·유형별 분포를 보여 준다.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현재 거주국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적(시민권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외 국민은 다시 유학생,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자료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 공관에서 작성한 공관별 재외 동포 현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자료,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 자료, 재외 국민 등록부 등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이다. 이 자료는 재외 동포 지원·보호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 동포

수는 1991년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수교로 조선족이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로 완만히 상승하여 2023년 현재 재외 동포는 708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재외 국민은 102만여 명의 영주권자, 129만여 명의 일반 체류자, 15만여 명의 유학생으로 구성되며, 외국 국적(시민권자)은 약 461만여 명이다.

재외 공관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수도에 설치하는 대사관,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 재외 국민 및 재외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영사 보호 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총영사관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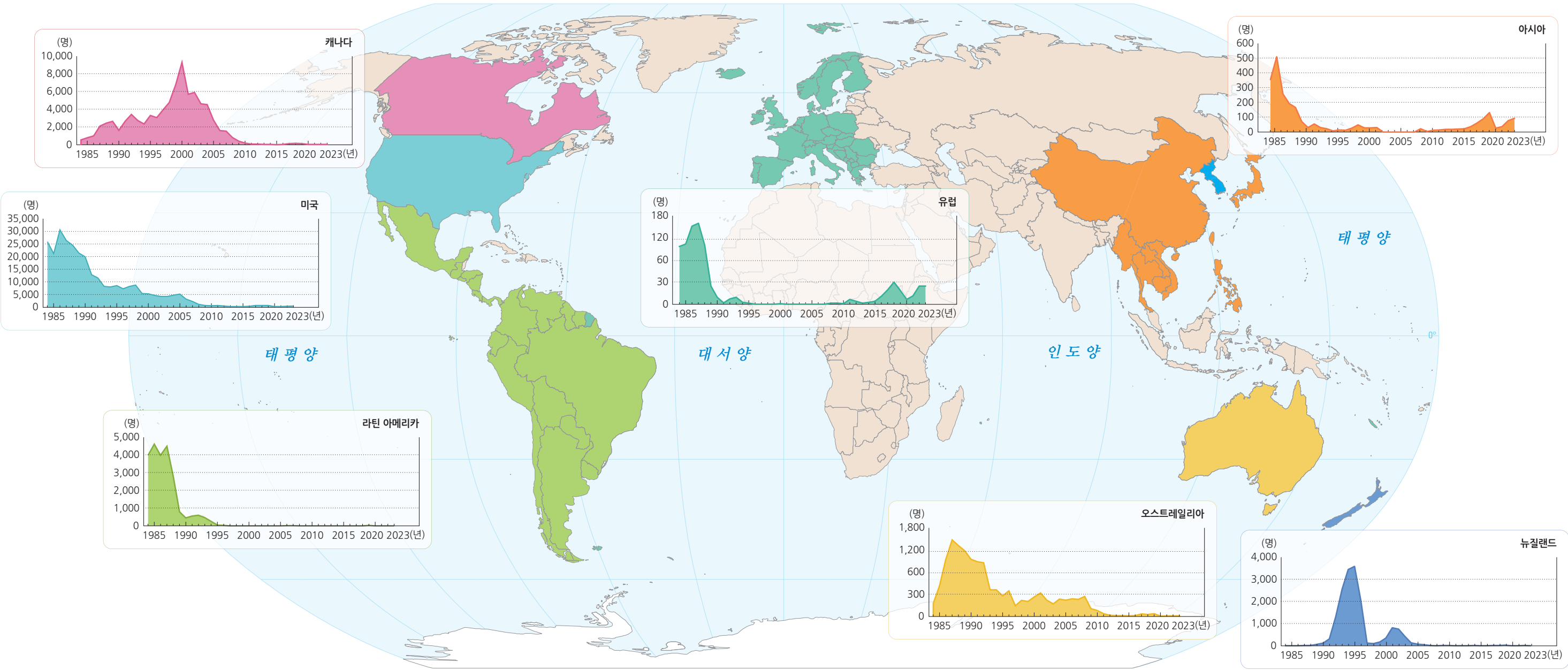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신고자 추이(198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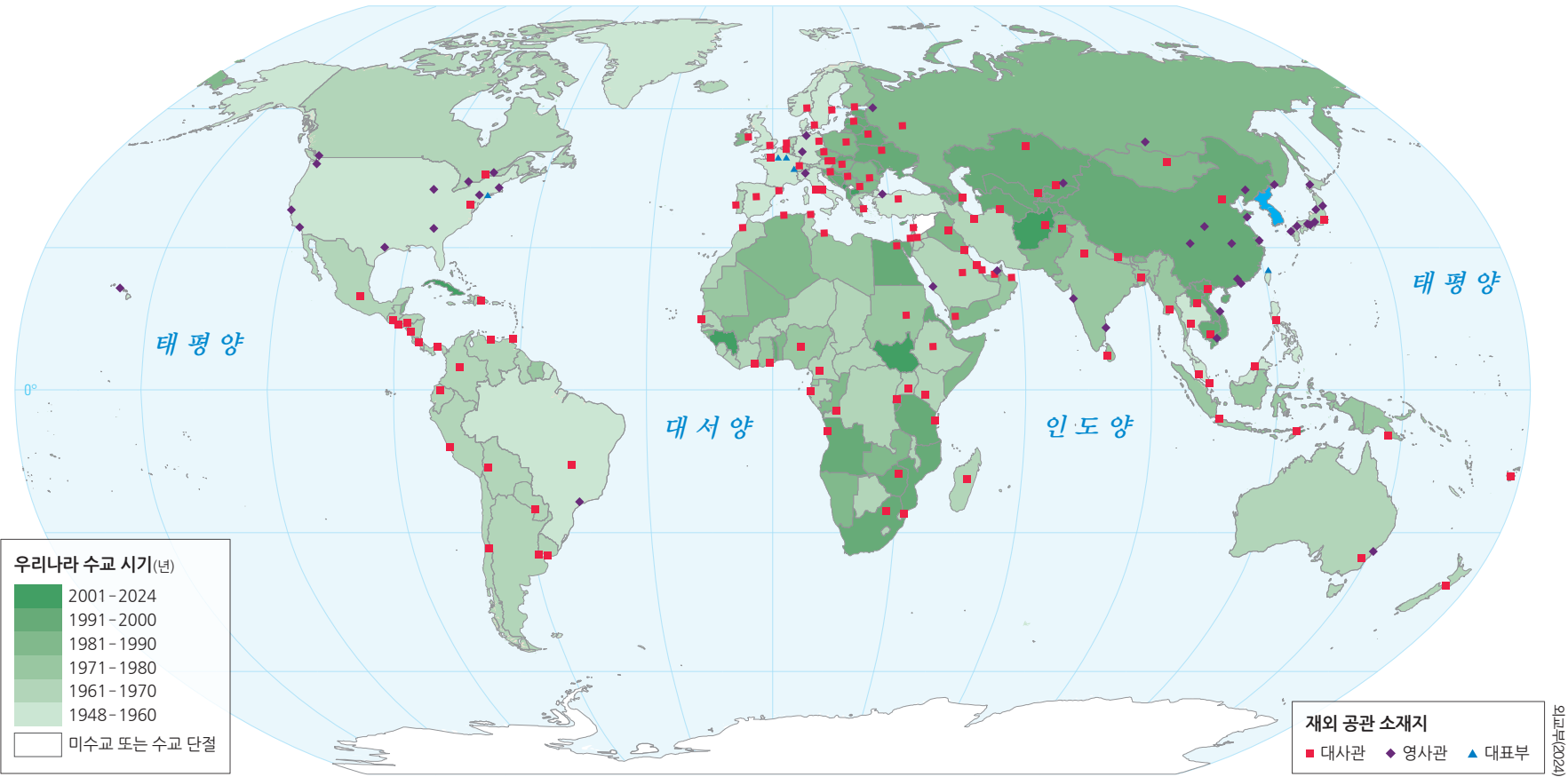
지도의 재외 공관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수교국 191개 중 116개 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46개의 총영사관과 5개의 대표부를 두고 있다. 재외 공관은 상대적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들 지역 국가, 특히 미국, 일본, 중국과 밀접한 경제·사회·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 재외 공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 직후 정부의 구조 조정 여파로 22개 재외 공관이 폐쇄되어 그 수가 줄었으나, 외교 업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하였다. 이렇듯 재외 공관의 숫자는 외교 수요 및 국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 점은 북한의 재외 공관 분포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2024년 현재 북한은 39개의 상주 대사관, 2개의 총영사관, 3개의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수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인다.

그래프는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신고자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 준다. 가장 큰 특징은 연고 이주와 무연고 이주의 해외 이주 신고자가 1984년 31,111명에서 2023년 86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해외 이주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대내외로 인식되면서 해외 이주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 이외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중이 늘어났다.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해외 이주 동향(1984~2023년)



대한민국 수교국과 재외 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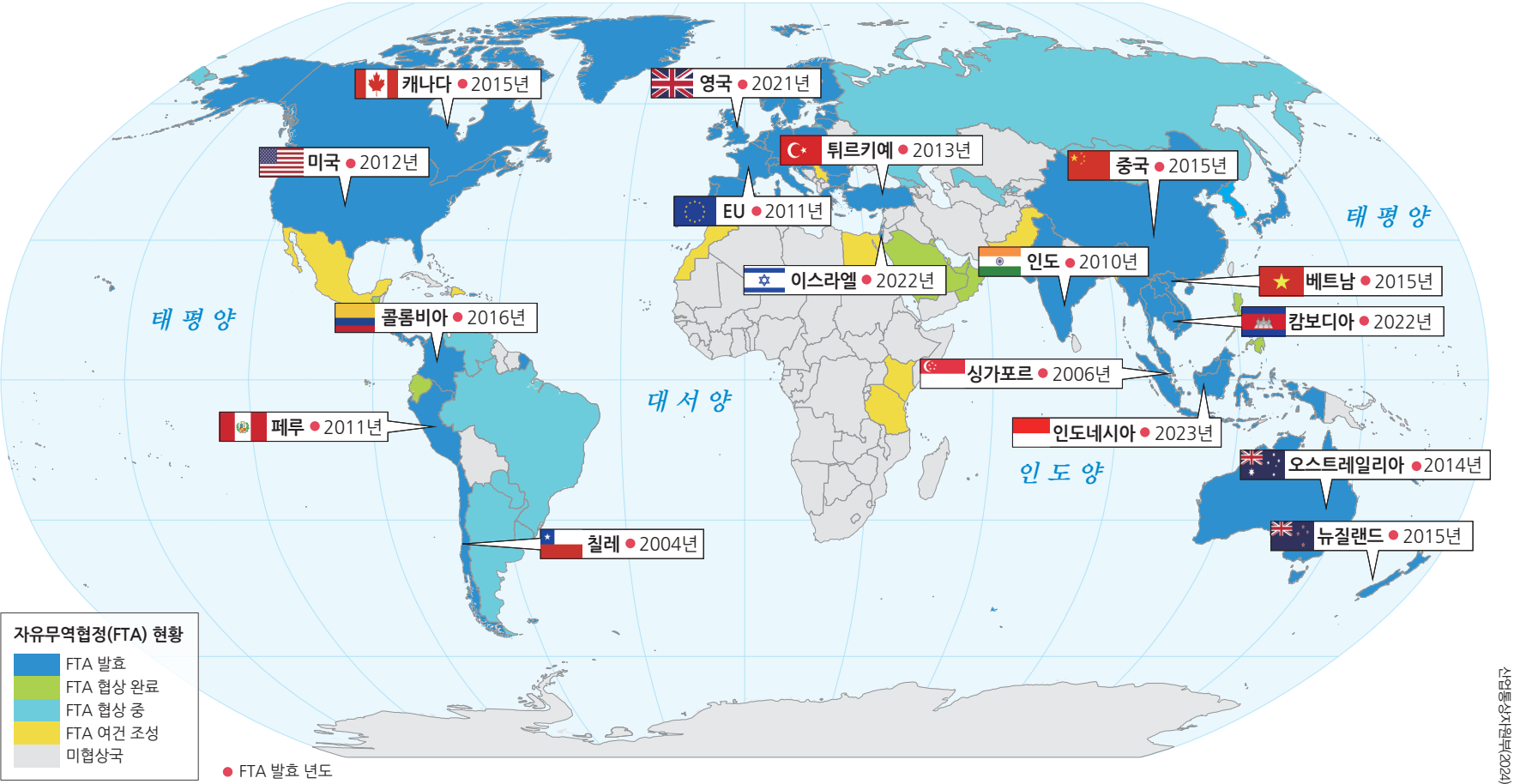


북한 수교국과 재외 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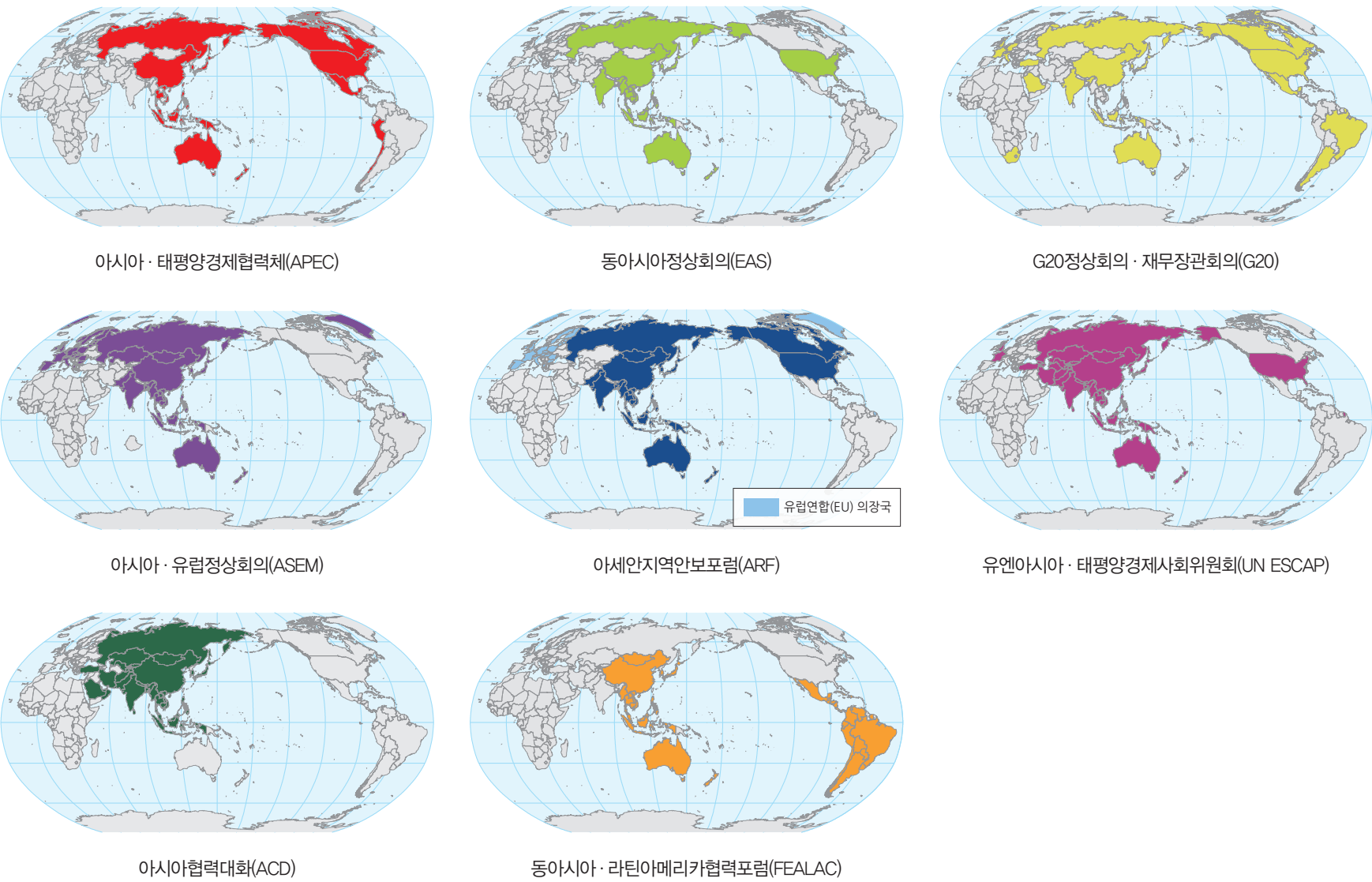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FTA) 및 지역 협력체

자유무역협정 현황



지역 협력체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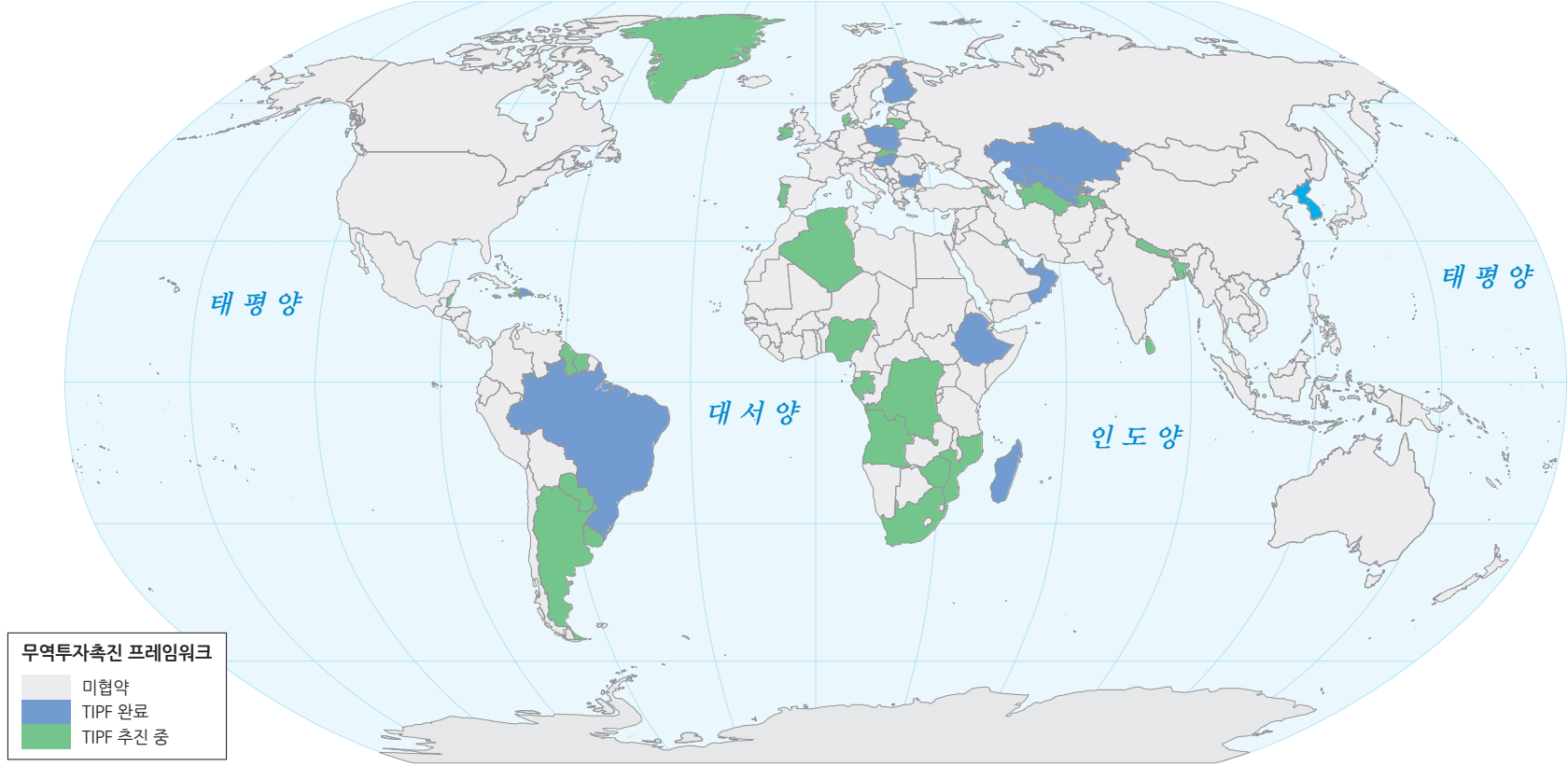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UR)이 체결된 이후 기존 다자주의 협정뿐만 아니라 양자 또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다자주의에 양자주의를 병행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첫 자유무역협정 대상 국가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5년간의 힘겨운 협상 끝에 2003년 2월에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의 거점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발효된 상태이다. 이외에도 2024년 4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발효된 국가는 아세안(ASEAN) 10개국, 인도, 유럽연합(EU) 28개국, 페루, 미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 5개국,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로 총 59개국이 있다.

또한 타결 선언 혹은 서명을 하여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필리핀, 과테말라, 아랍 에미리트(UAE),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9개국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국가는 대한민국·중국·일본,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 몽골, 조지아 등이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할 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는 태평양동맹(PA) 4개국, 탄자니아, 이집트, 모로코 등 13개국이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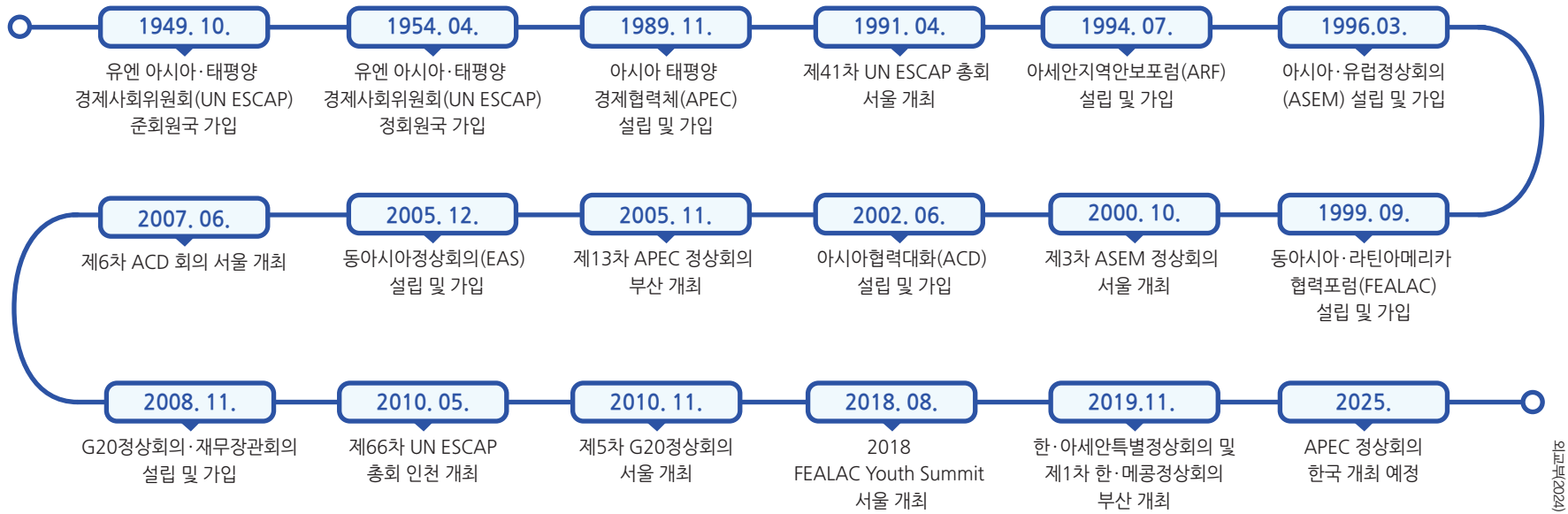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체결 현황



FTA 국가별 경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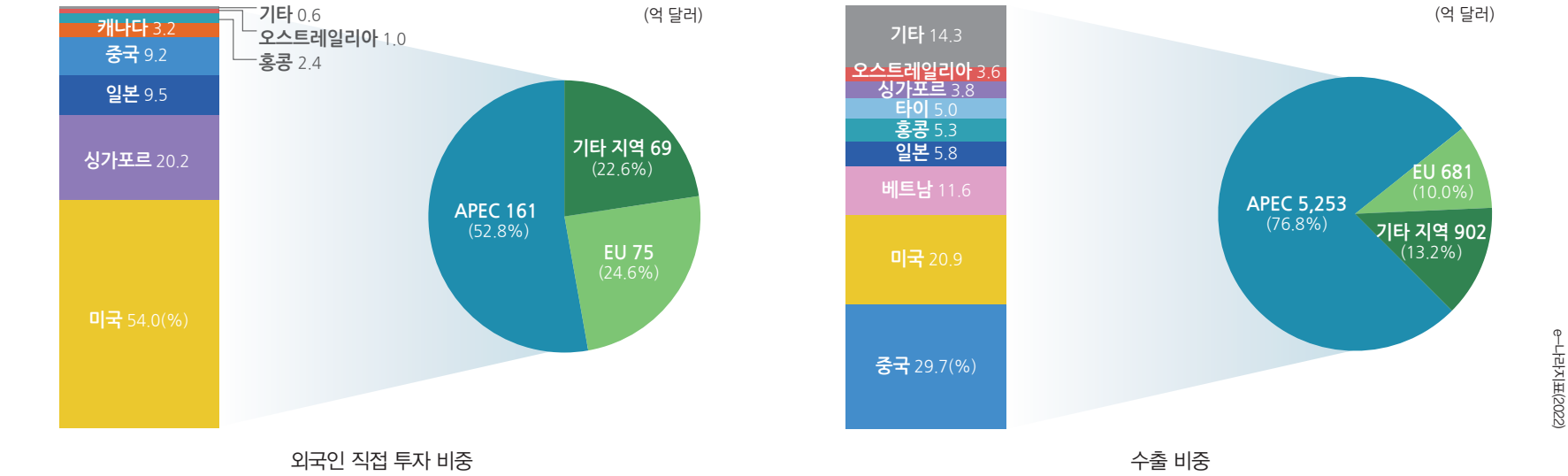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GDP 성장(%)	1.82	0.77	0.49	0.29	0.202	0.202	0.1	0.06
생산 효과(달러)	198억	80억	62억	17억	25억	11억	4억	4억
소비자 혜택(원)	9조 9,000억	6조 7,000억	10조 6,000억	7조 4,000억	7조 9,000억	1조 8,000억	4,855억	1조 9,000억
일자리 창출(명)	9만 9,929	6만 2,455	9만 3,913	3만 7,782	4만 5,731	2만 2,144	278	1만 1,179

대한민국의 지역 협력체 설립(가입) 및 회의 개최 연혁



외교부(2024)

대한민국과 APEC



6-11지표(2022)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정상회의·재무장관 회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다양한 지역협력체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89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우리나라는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협력체의 제도적 기틀 마련과 새로운 회원국 충원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따라 1994년 설립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했던 아시아·유럽 간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공식화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간 경제 협력 확대 외에도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정치·안보 대화 증진, 사회·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중앙 및 남아메리카 간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의 일원이기도 하다.

아세안 국가와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를 포괄하

는 아시아 전체 협력 달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협력대화(ACD)의 일원으로 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통화 질서(이른바 ‘Bretton Woods II’ 체제) 수립을 위해서 G7,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G20정상회의·재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일원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된 우리나라가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 중 하나인 APEC은 유일한 경제 협력체로, 대한민국에게 APEC은 최대의 경제 협력 파트너다. APEC 회원국과의 교역이 총수출, 총수입의 1/2 이상 차지하고 있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국내 총생산(GDP)의 약 60%,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이다.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며, 1993년부터 정상 회의로 격상되었다.

2022년 기준 APEC에 대한 한국 수출 비중이 76.8%로 EU의 1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수입 비중 역시 APEC이 전체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에서도 APEC이 외국 투자 유입의 52.8%로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의 58.6%를 차지하였다. APEC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및 투자 지역인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이 APEC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현황

1 서울국제중재센터(KCAB)

KCAB INTERNATIONAL

1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 사무소

IBA

2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IVI, HQ)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2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WFP Korea)

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2 아이팩조정중재센터 (IIPAC)

IIPAC

3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UNESCO APCEIU)

APCEIU

4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UNIDO ITPO Korea)

UNIDO

5 유엔아동기금 서울사무소 (UNICEF Seoul Office)

unicef for every child

6 아시아-유럽간국제연구망 (TEIN 협력 센터)

AsiaConnect

7 메트로폴리스 국제연구원 본원 (MITI)

metropolis

8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AfCo)

AfCo

9 아시아청당국제회의(ICCAPP)

ICCAPP

10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동아시아 본부(ICLEI)

ICLEI

10 시티넷(CityNet) 본부

CITYNET

10 유엔식량농업기구 협력연락사무소(FAO)

FAO

10 아셀노인인권정책센터 (AGAC)

AGAC

10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본부

Gsef

11 칼플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KPIA)

KPIA

11 한-아세안 센터(AKC)

한-아세안 센터

12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OECD Korea Policy Centre)

OECD OECD Korea Policy Centre

13 세계은행그룹(IFC, MIGA) 서울연락사무소(IFC, MIGA)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3 세계보건기구(WHO) 아태환경보건센터

WHO

13 세계자연기금 (WWF) 한국본부

WWF

13 세계스마트시티 기구(WeGO)

WeGO

13 세계자연기금 (WWF) 한국본부

WWF

15 유엔아동기금 서울사무소 (UNDP SPC)

UNDP

15 유엔인구기금 한국사무소 (UNFPA)

UNFPA

15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한-중앙아협력포럼

1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16 글로벌녹색성장 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17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서울사무소

UN HUMAN RIGHTS

18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UNHCR Korea)

UNHCR 유엔난민기구

18 국제적신자위원회 한국사무소

ICRC

18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UNDP SPC)

UNDP

20 유엔인구기금 한국사무소 (UNFPA)

UNFPA

20 한중일3국 협력사무국(TCS)

TCS

2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2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2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2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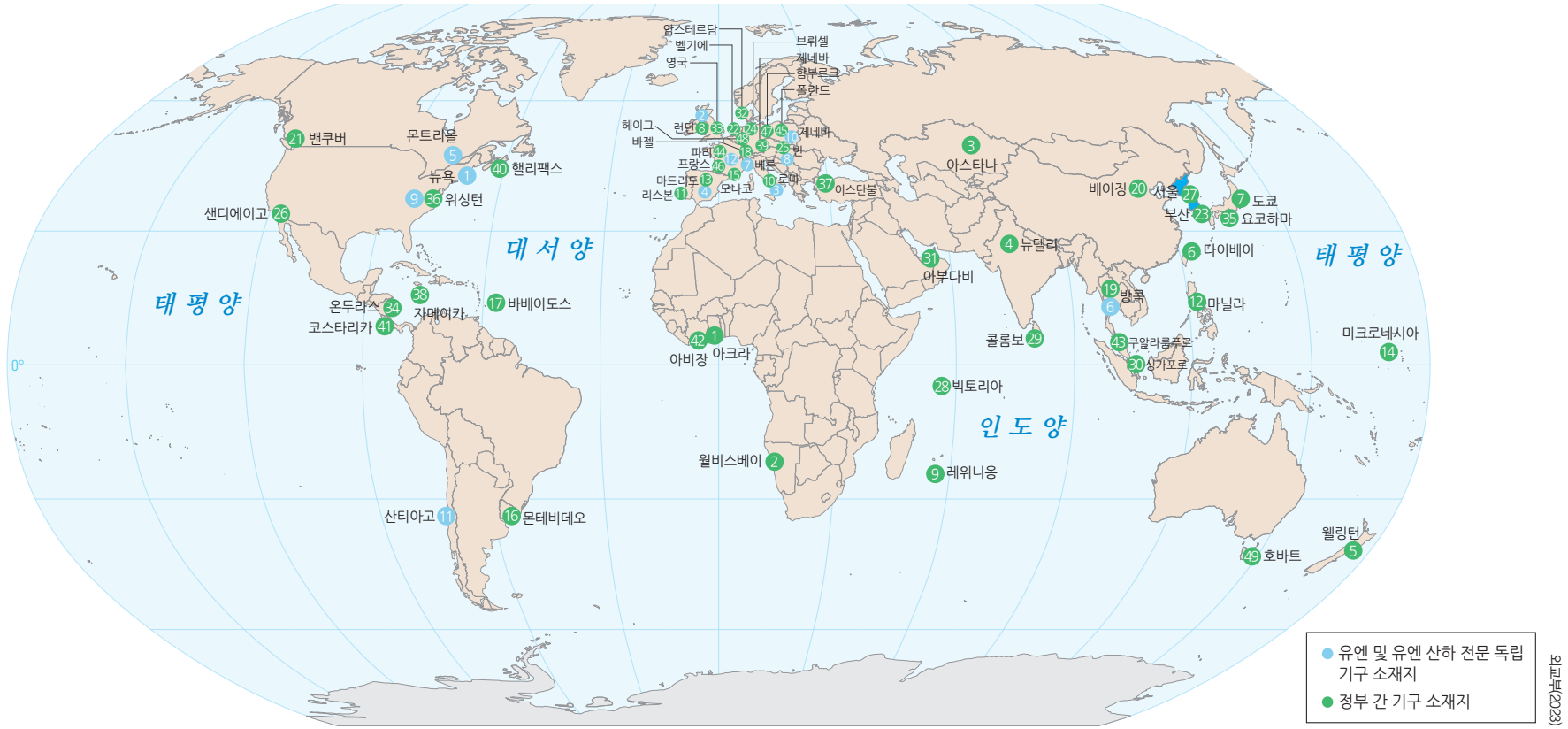
2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서울특별시 결의(2019.10.16.제2023)

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다양한 대륙, 국가, 도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지부가 위치해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97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개발 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 퇴치를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결정하여 설립되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 도상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와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	뉴욕	국제연합(UN)	1991
2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1962
3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4	마드리드	세계관광기구(WNTO)	1975
5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CAO)	1952
6	방콕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7	베른	만국우편연합(UPU)	1900
8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1994
9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1955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국제개발협력(IDA)	1961

유엔(UN)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부터 우리나라 외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왔다. 지도에 표현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총 26개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9	워싱턴	국제금융공사(IFC)	196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967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10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	1949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세계기상기구(WMO)	195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79
		국제노동기구(ILO)	1991
		세계무역기구(WTO)	1995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1	칠레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12	파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제56차 유엔 총회의장을 수입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반기문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2016년까지 유엔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2023년 5월 기준 95개에 달하는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협력, 자원 개발, 국제 개발 협력, 질병 관리,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자 외교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1	가나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2	나미비아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3	아스타나	아시아교류및신흥구축회의(CICA)	2006
4	뉴델리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0
5	뉴질랜드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2012
6	타이완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7	도쿄	아시아생선기구(APO)	1961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2015
8	런던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1
		국제설탕기구(ISO)	1993
9	레위니옹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2014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68
10	로마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1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국제연·아연연구그룹(ILZSG)	1987
12	마닐라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13	마드리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OT)	1970
14	미크로네시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2004
15	모나코	국제수로기구(IHO)	1957
16	몬테비데오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2014
17	바베이도스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	1974
18	바젤	국제결제은행(BIS)	1997
		금융안정위원회(FSB)	2009
19	방콕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2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20	베이징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아시아재보험기업(ARC)	200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5
21	밴쿠버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22	벨기에	법률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23	부산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24	브뤼셀	세계관세기구(WCO)	1968
25	비엔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9
26	샌디에이고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27	서울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2011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아시아신흥협력기구(AFoCO)	2018
28	세이셸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29	스리랑카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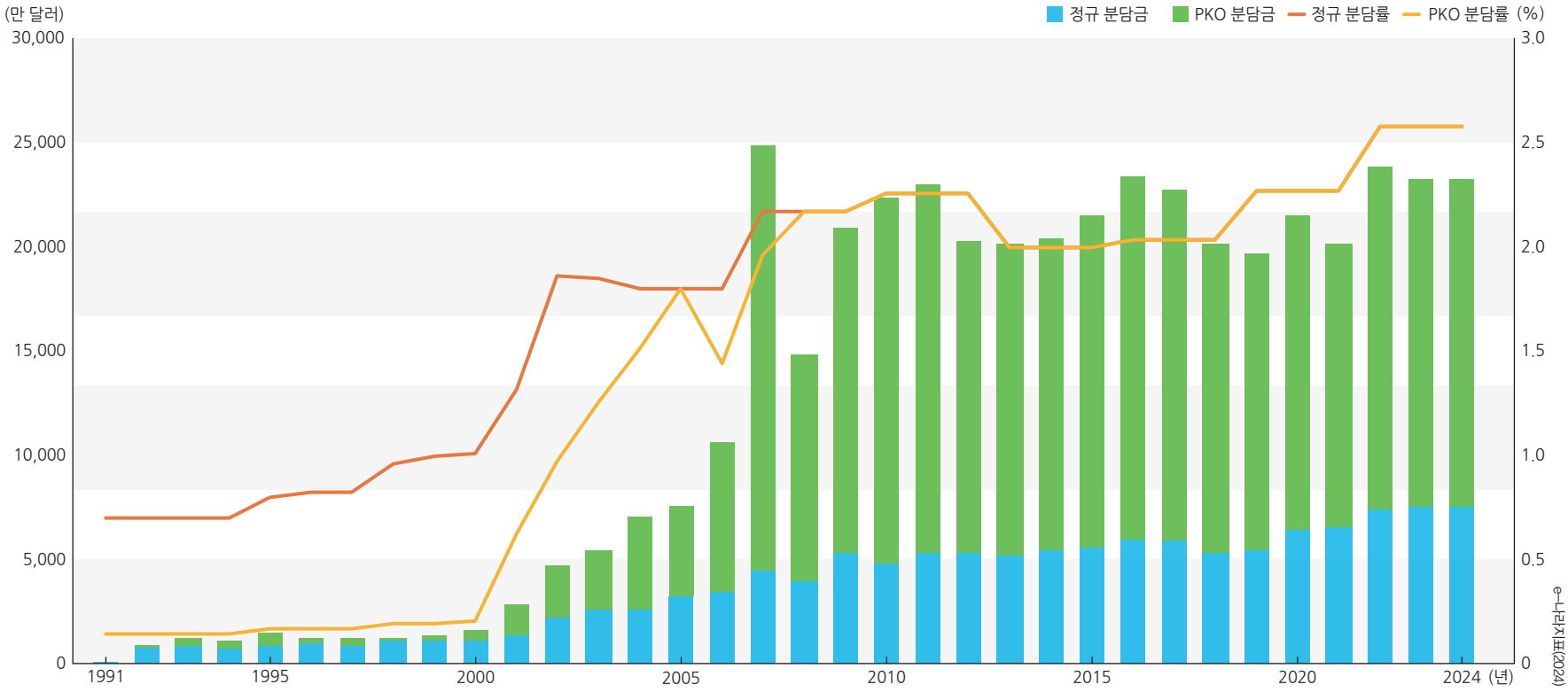
번호	소재 도시	기구명	가입 연도
30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2006
31	아랍 에미리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32	암스테르담	상품공동기금(CFC)	1982
33	영국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34	온두라스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2020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35	요코하마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36	워싱턴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TSO)	1967
		지구환경금융(GEF)	1994
		미주개발은행(IDB)	2005
37	이스탄불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2011
38	자메이카	국제해저기구(ISA)	1996
39	제네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국제의회연맹(IPU)	1964
		국제이주기구(IOM)	1988
40	캐나다	국제식물신물종보호연맹(UPOV)	2002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41	코스타리카	미주농업협력기구(IIICA)	1981
42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개발기금(ADF)	1980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43	쿠알라룸푸르	아태방송개발기구(AIBD)	1978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세계동물보건기구(OIE)	1953
44	파리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OECD 개발센터(DEV)	19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45	폴란드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국제핵융합실험로국제기구(ITER)	2003
		국제교통포럼(ITF)	2007
46	프랑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09
		불어권국제기구(OIF)	2016
47	함부르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2018
48	헤이그	국제도량형국(BIPM)	1959
		OECD 원자력기구(NEA)	1993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1996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49	오스트레일리아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997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국제형사재판소(ICC)	2003
49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유엔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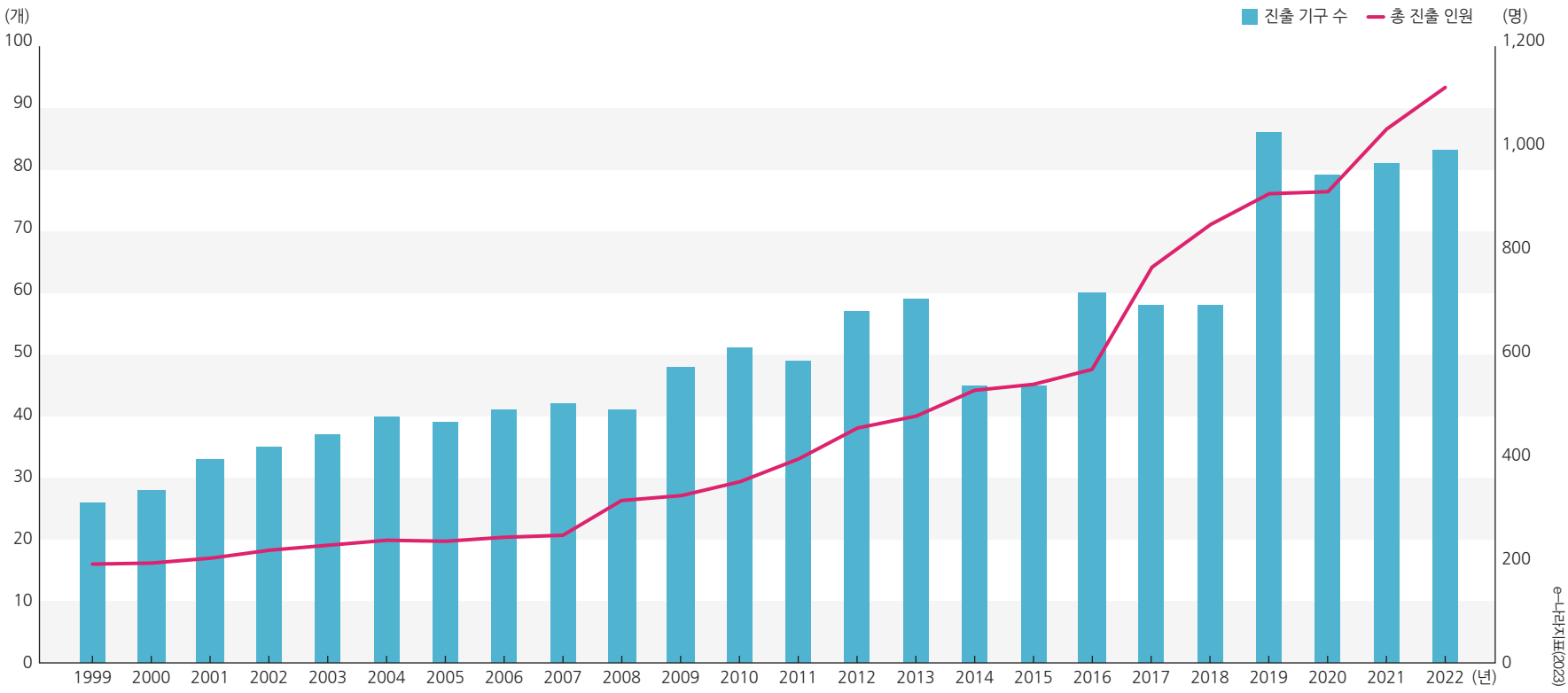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정규 예산(UN Regular Budget)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유엔 정규 예산은 2년 단위로 작성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2020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1년 단위 작성)되는데, 이는 회원국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개별 회원국의 분담률은 매 3년마다 18개 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 제5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민 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비

례하는데, 외채 부담이 큰 경우 연간 국민 소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 조정하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분담률은 22%를 넘지 않고 0.001%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상한과 하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분담률이 1990년 0.69%에서 2023년 2.57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9위 수준이며 향후 우리의 경제력이 상승할수록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유엔 분담금 액수 및 분담률 추이



대한민국 국민 진출 국제기구 수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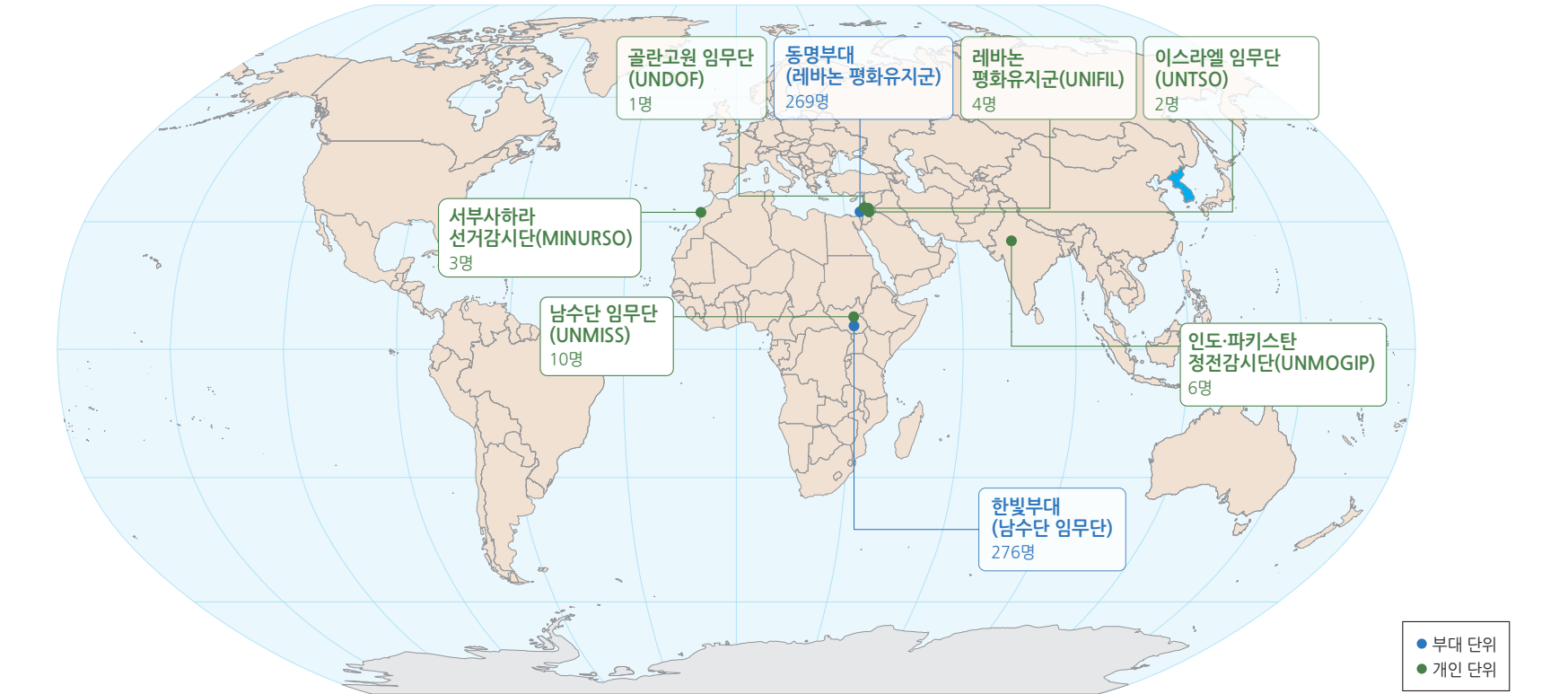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인원과 진출 기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과 더불어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대한민국 국민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1996년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제도 시행, 유엔자원 봉사단(UNV) 파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국제기구채용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s)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UN 안보리나 총회가 행하는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 분쟁과 사태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해당 분쟁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UN 회원국들이 UN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파견 요원들의 정치적·군사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UN이 주도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6개 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 총 545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수단 한빛부대 266명, 레바논 동명부대, 남

수단임무단(UNMISS) 12명,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6명,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 6명,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명을 각각 파견하여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파견 규모가 가장 큰 남수단 한빛부대에서는 최근 공항 활주로 확장과 도로 정비를 통해 남수단 주요 거점의 식량, 물자 공급의 차질 발생을 예방하였고, 민군 작전, 한국 알리기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희망을 심어 주었다.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 평화 정착, 정전 감시, 재건 지원, 평화 협정 이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PKO 예산 분담률은 정규 분담률과 마찬가지로 2.574%로 유엔 회원국 중 9위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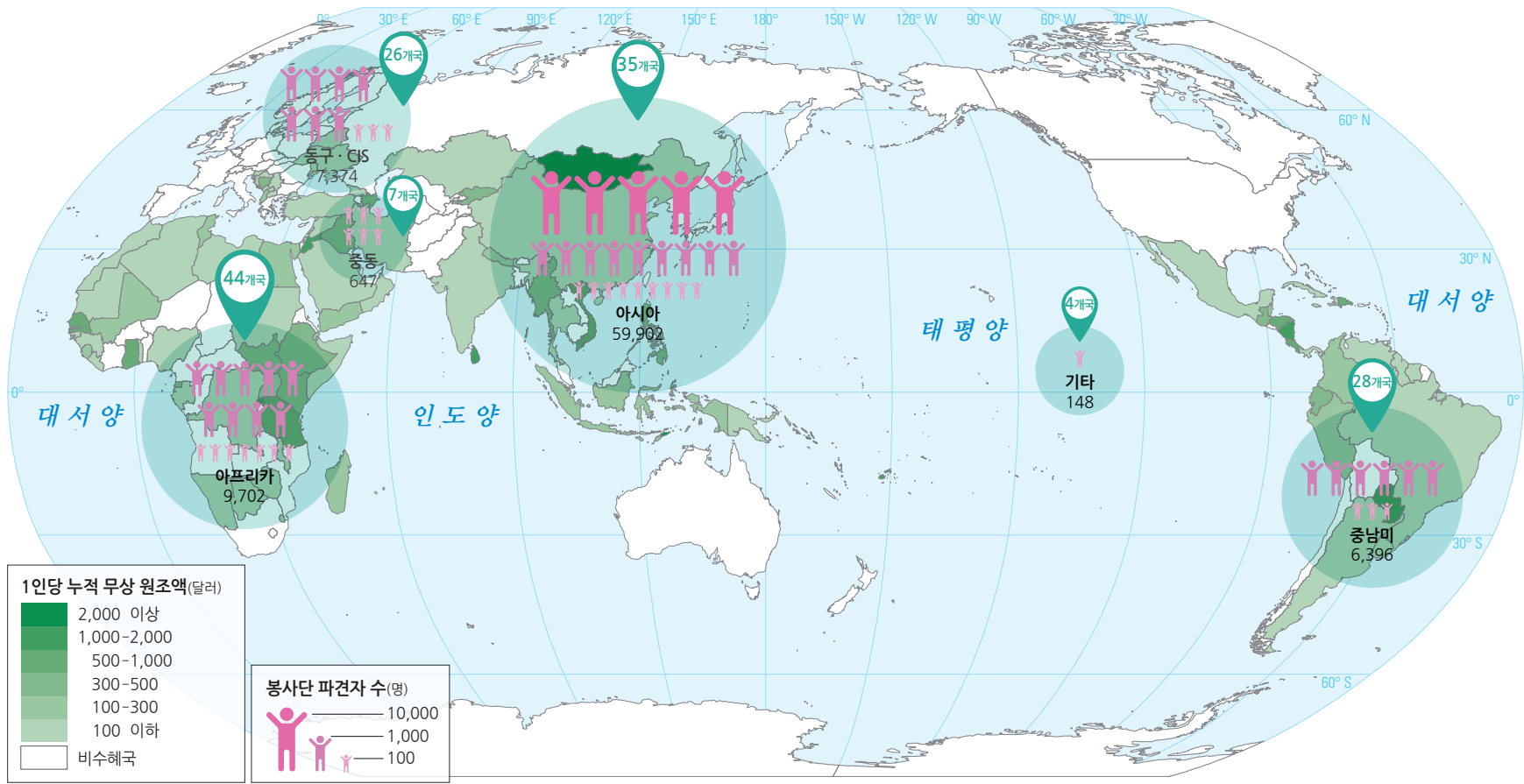
한빛부대 활동 사진



국제 개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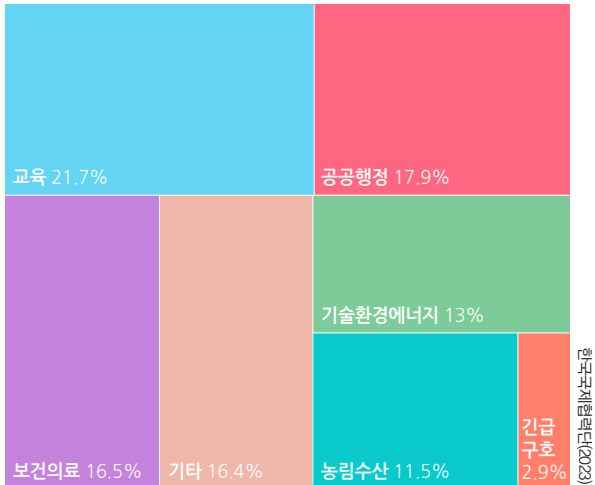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와 봉사단 파견 현황(200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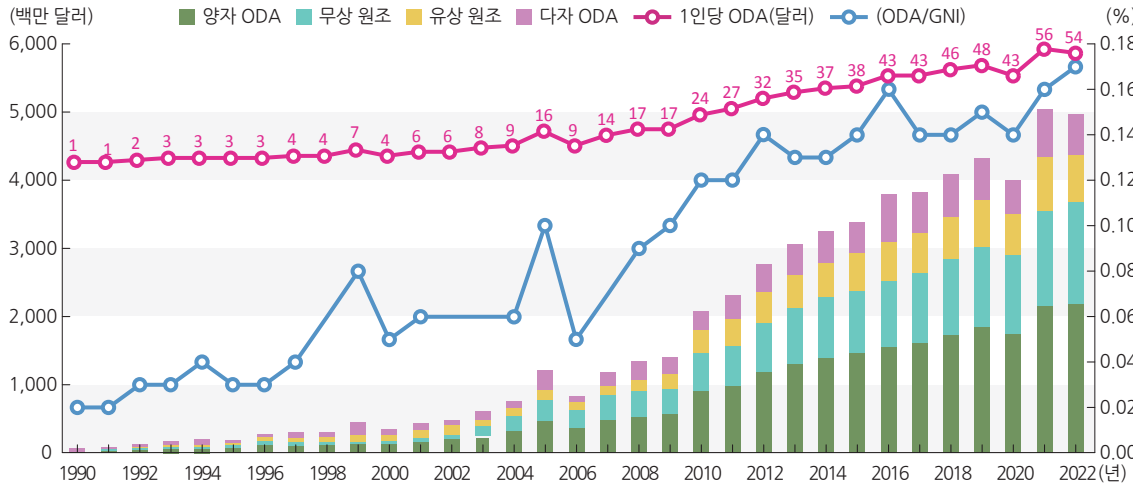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2023)

분야별 한국국제협력단 ODA 지원액 누계 비율



유형별 ODA 추이



한국국제협력단(2023)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역경 속에서 세계 정치 경제의 주변부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발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1991년 유엔 가입,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이처럼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져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국내외에서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달라 그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현재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40여 년 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다. 1945년 광복 및 한국전쟁 이후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2.7억 원의 원조를 제공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으로부터 외자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차관 대상국 명단과 200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수혜국 명단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원조 수혜국의 지위를 탈피하였다.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

지만 당시 공여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의 지원에 기초하여 삼각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본격적인 국제 개발 협력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1987년에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고, 1991년에는 무상 원조를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개발 협력의 현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추이와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봉사단원 파견을 분야별로 그리고 수혜국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춘 각종 지원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국가연합(CIS),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누어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과 그에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러였던 우리나라의 1인당 공적개발원조액은 2022년 54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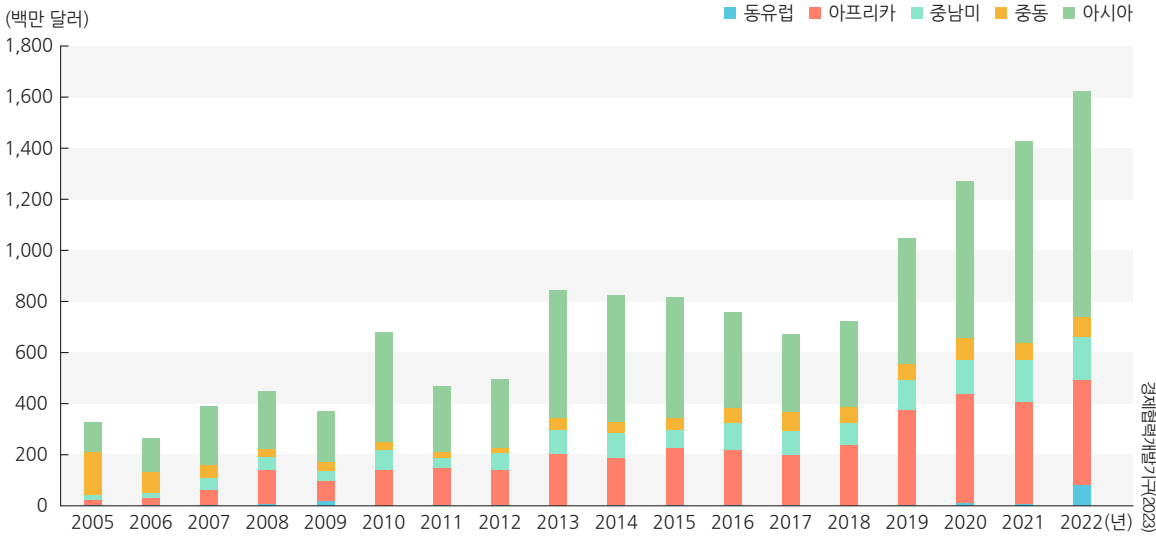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직접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양자 간 원조와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출연 혹은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나뉜다. 양자 간 원조는 증여율이 100%인 무상 원조와 증여율이 25% 이상 100% 미만인 유상 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출연, 출자, 양허성 차관으로 각각 세분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유형의 원조액 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1990년 1천 2백만 달러였던 양자 간 원조액은 2022년 약 21억 9천만 달러로, 동일 기간에 4천 9백만 달러였던 다자 간 원조는 약 6억 달러로 급증했다. 참고로 2022년 양자 간 원조에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의 비율은 약 2 대 1이다. 원조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는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 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일조하고 있음은 물론 그 역할을 키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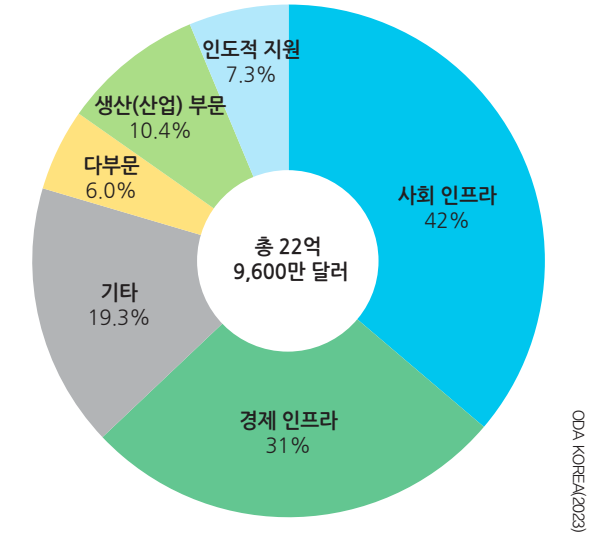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동, 동유럽,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및 아프리카에 제공한 양자 무상 원조의 추이를 보여 준다. 우선 원조액이 2010년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중동에 적지 않은 원조가 이루어졌으나 2010년대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가 주요 수혜 지역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파이그래프를 통해 교육, 보건, 위생 등의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산업, 건축, 무역, 관광 등의 생산 부문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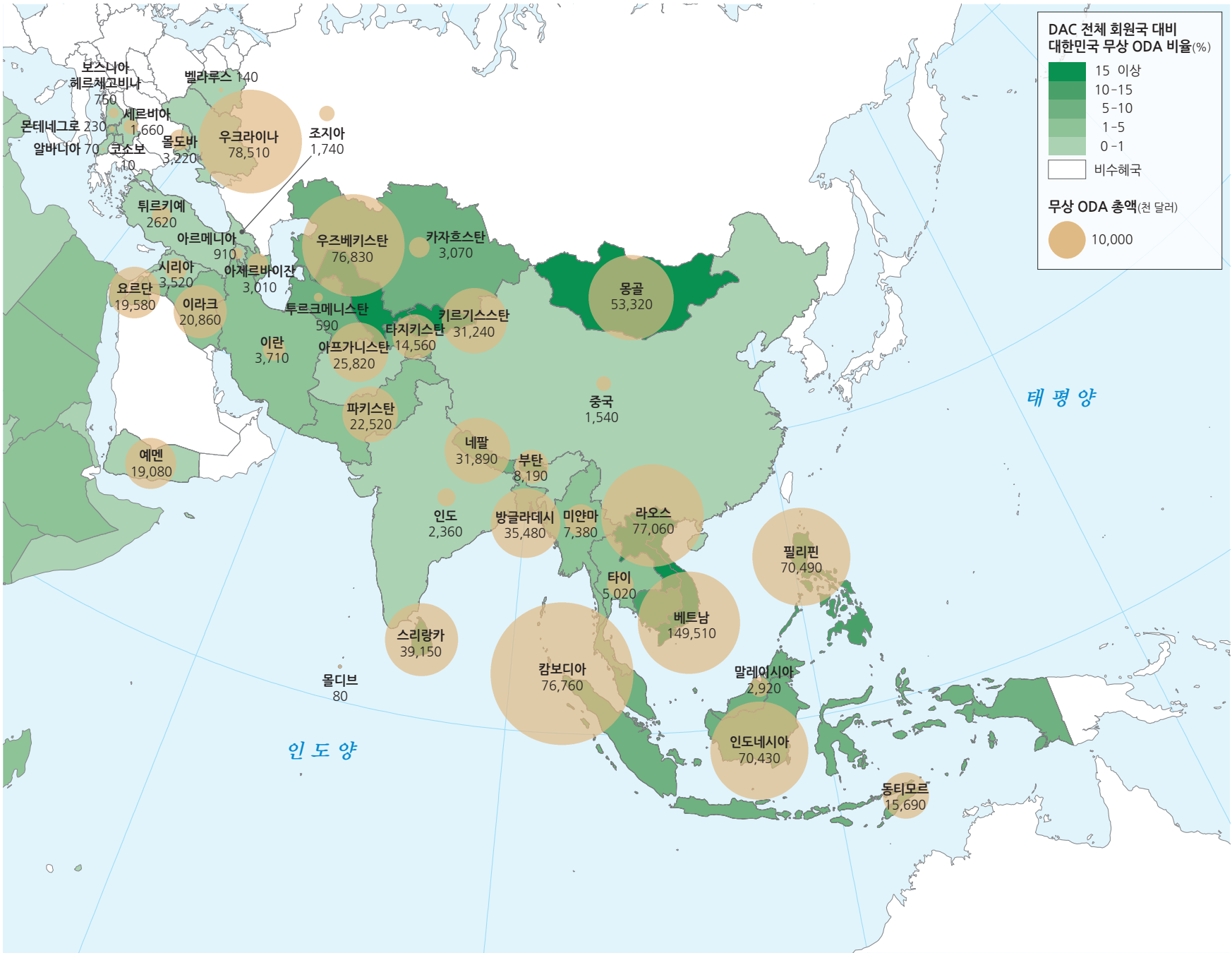
대한민국 무상 ODA 지역별 추이



대한민국 ODA 분야별 지원(2022년)



아시아, 중동,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대한민국의 양자 무상 원조(2022년)



위 지도는 2022년 아시아, 중동, 동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단계구분도의 색상은 해당 수혜국에 제공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전체 회원국의 양자 무상 원조액에서 우리나라 원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색상이 짙을수록 해당 수혜국이 받은 무상 원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외 무상 원조를 많이 하는 수혜국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아시아의 몽골은 우리나라가 여타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에 비해 중점적으로 무상 원조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지도 위 원은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 순으로 원조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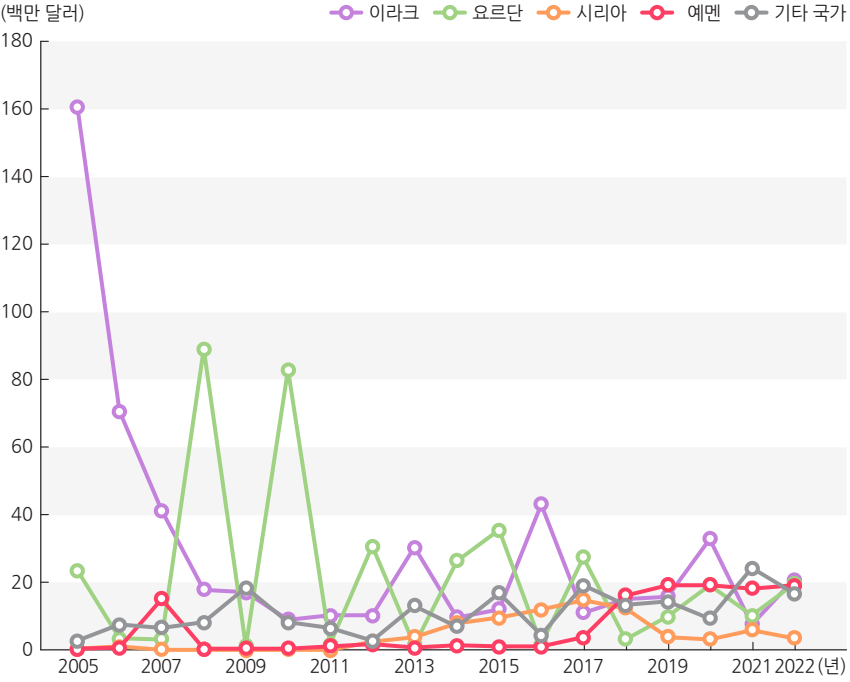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상청은 개발 도상국의 기상 업무 현대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1998년부터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몽골 기상청과 황사 현상 감시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몽골 울란바토르 및 주변 지역에 지상 및 고층 관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상 재해 피해 예방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글로벌 기상 기후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 ODA 수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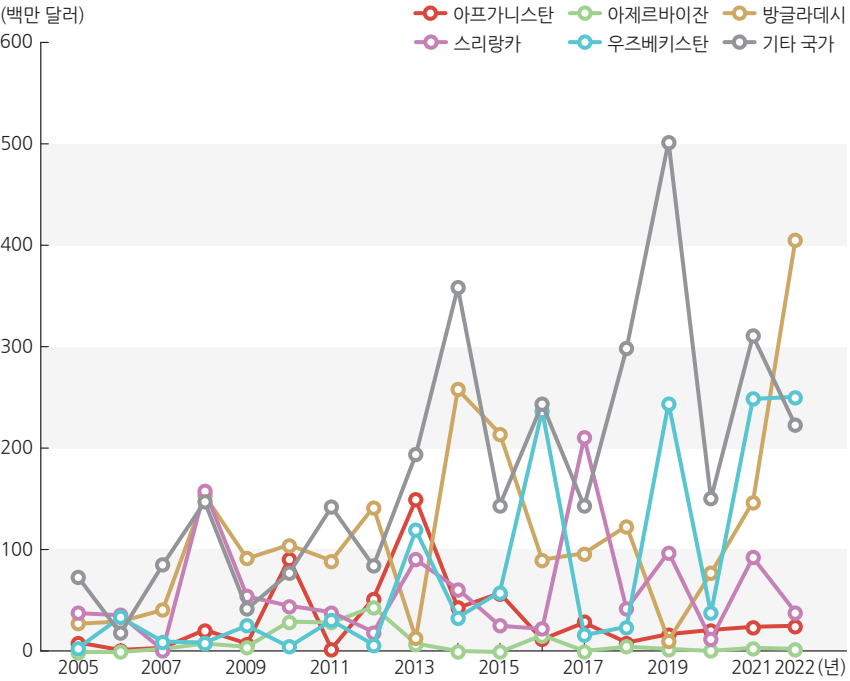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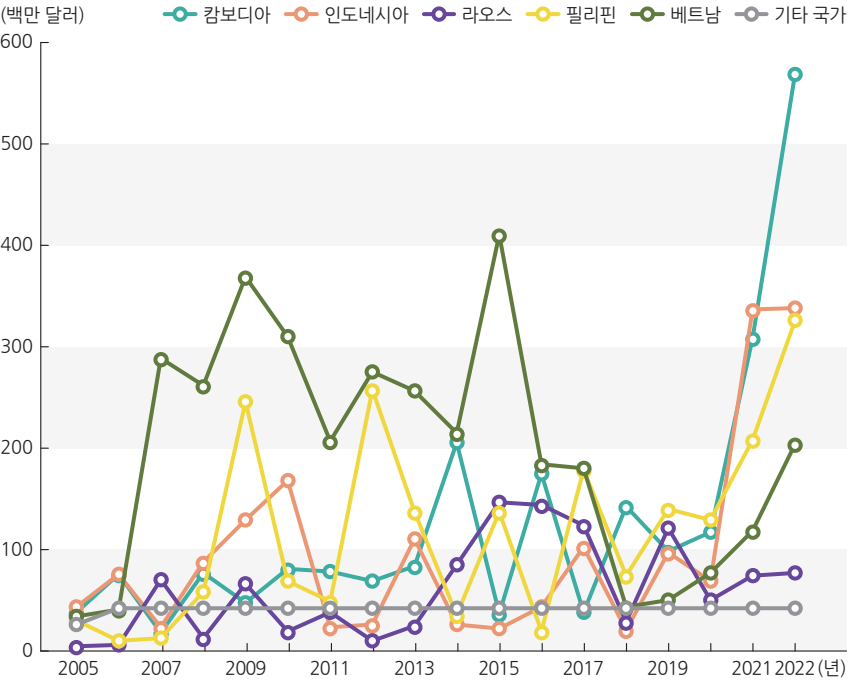
중동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협력 추이



남부 아시아, 동유럽 및 CIS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협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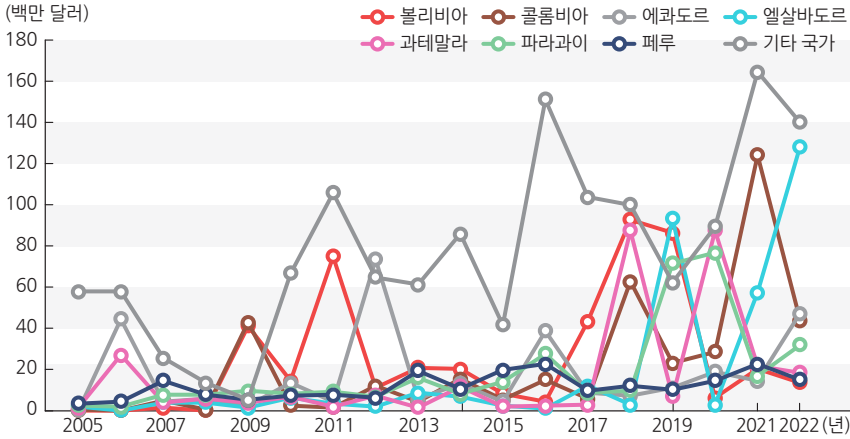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협력 추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2022년)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한민국 양자 협력 추이



위 지도는 2022년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수혜국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멕시코를 제외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율을 보인다. 그중 남아메리카의 파라과이와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 카리브해 제도의 도미니카 공화국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도에서 원 심볼은 우리나라 무상 원조의 규모와 지원 분야를 수혜국별로 보여 준다. 원조액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임을 알 수 있다.

페루에서 진행된 '제1 한·페 까야오 베야비스타 의료 센터 건립 사업'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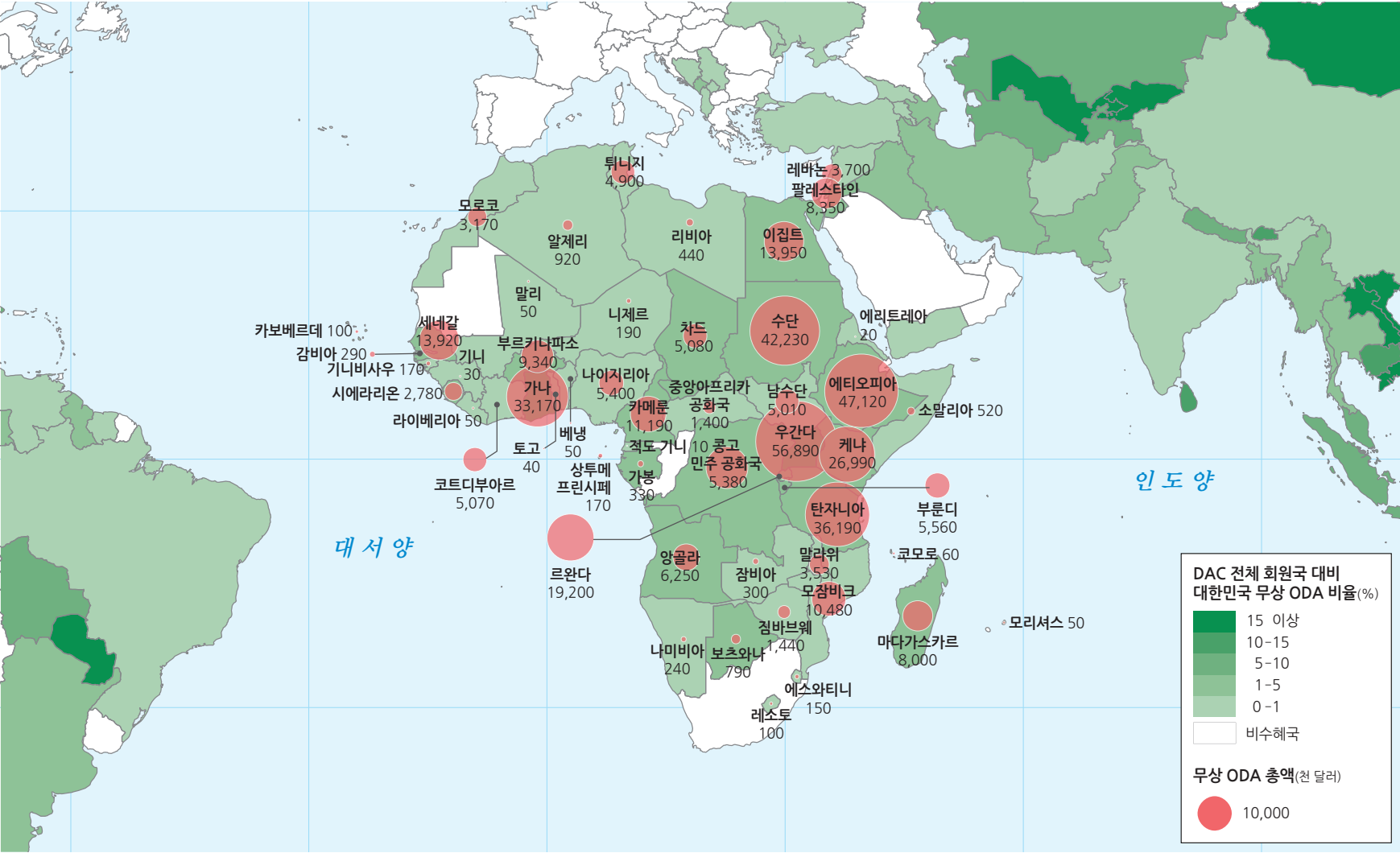
봉사단 활동(페루)

년에 시작하여 약 20년에 걸쳐 2010년까지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로, 총 239만 달러를 투자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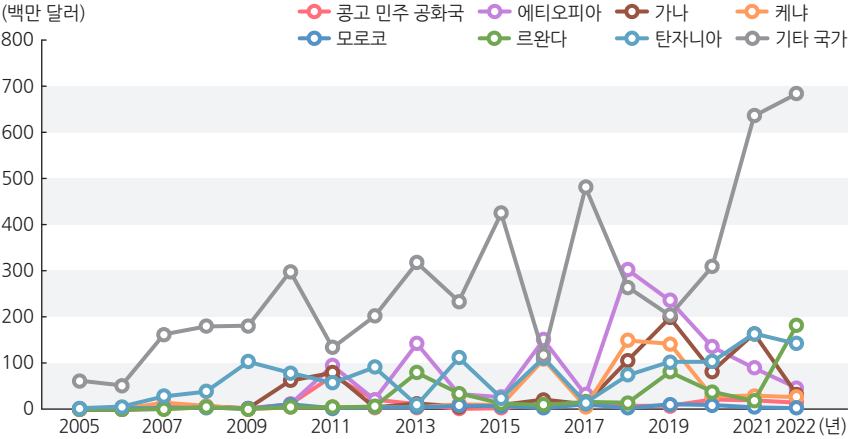
또 다른 사례로 에콰도르에서 이루어진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확장 사업'이 있다. 한국 기업의 뛰어난 수(水) 처리 기술을 지원하여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의 취수장과 정수장을 확장하고 송·배수관을 신규로 건설한 프로젝트로, 만성적인 용수 부족을 앓고 있던 산토도밍고시의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였다.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접한 유일한 남미 국가로 조선업 및 기타 해양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콜롬비아 조선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콜롬비아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콜롬비아의 조선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양자 무상 원조(2022년)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대한민국 양자 협력 추이



지도는 2022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공여한 양자 무상 원조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전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무상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짙은 색으로 표시되었다. 앞서 살펴본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와는 달리 남부 아프리카 몇몇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고루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의 원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제공되고 있는지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원조가 우간다, 에티오피아, 수단, 탄자니아, 가나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사실은 그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수혜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내전 혹은



자원 시설물(르완다국립대학교 ICT 공학부 건립)

기근으로 피폐해진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 및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부문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1년부터 280만 달러를 들여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시에서 철책 예방 및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르완다에서는 키갈리 경제 특구 내 ICT 혁신 센터를 건립하여 인력 양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이집트 카이로에 전동차 256량을 공급하고 카이로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후된 메트로, 철도 인프라 개·보수, 신규 확충 및 기술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모 쿠라즈 및 아르바민치 지역에 송전선 가설 및 변전소를 건설하는 '에티오피아 남부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진행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전기 접근율이 저조하거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전력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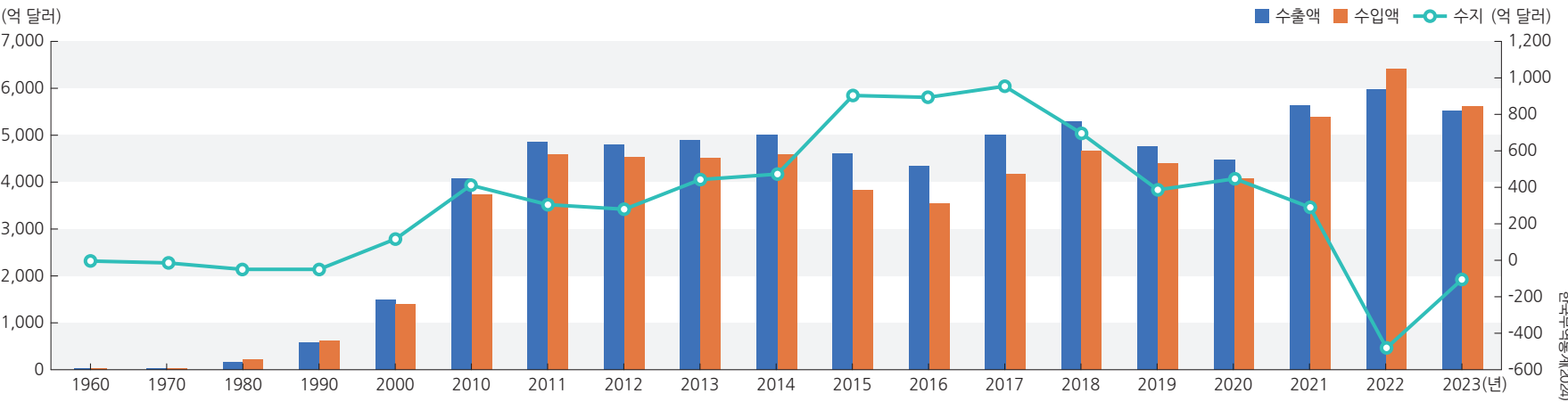
우리나라 연간 무역 규모는 1956년에 약 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67년에 10억 달러, 1974년에 100억 달러, 1988년에 1,000억 달러, 2011년에 1조 달러를 초과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신규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첫 국가이기도 하다. 2019~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교역이 침체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뛰어난 방역 체계와 경쟁력 있는 제조업 등의 힘을 업어 교역 침체에 빠르게 대응하였다. 2023년 기준, 우리

나라의 수출액은 6,322억 달러, 수입액은 6,426억 달러로 연간 무역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꾸준히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이유로 잠깐 적자였지만,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있던 2012년에도 지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해 왔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부터는 다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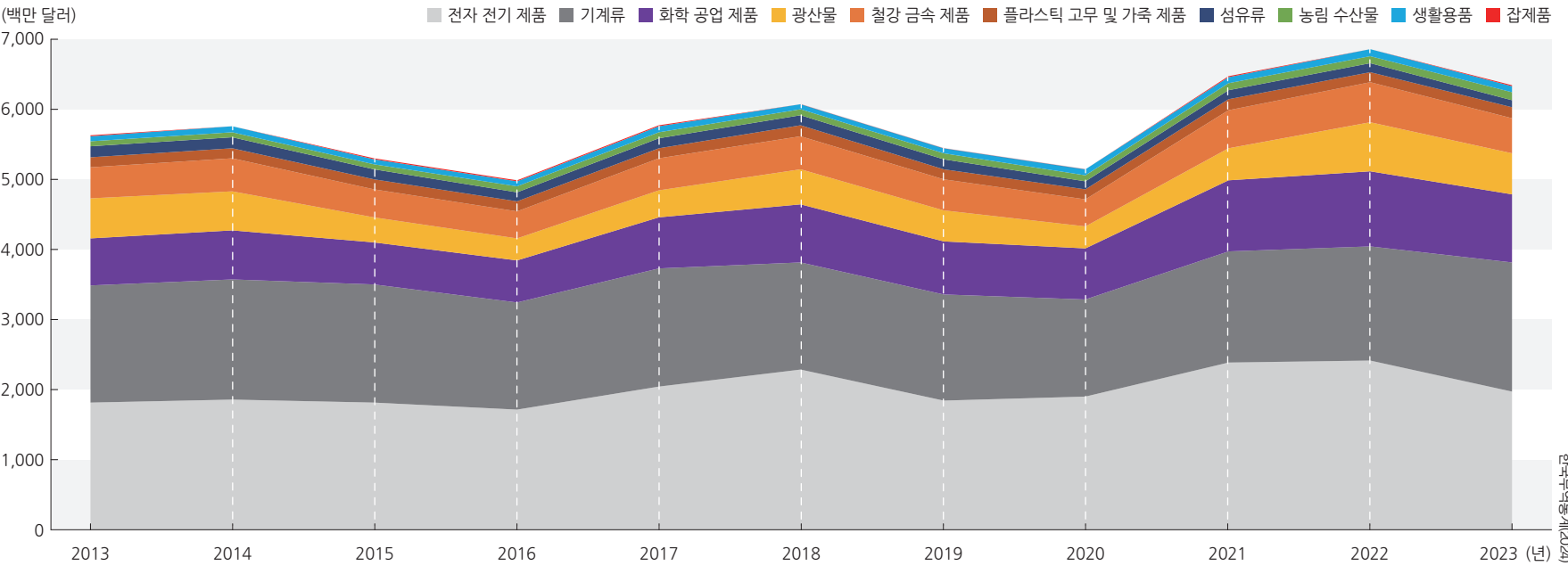
우리나라 연간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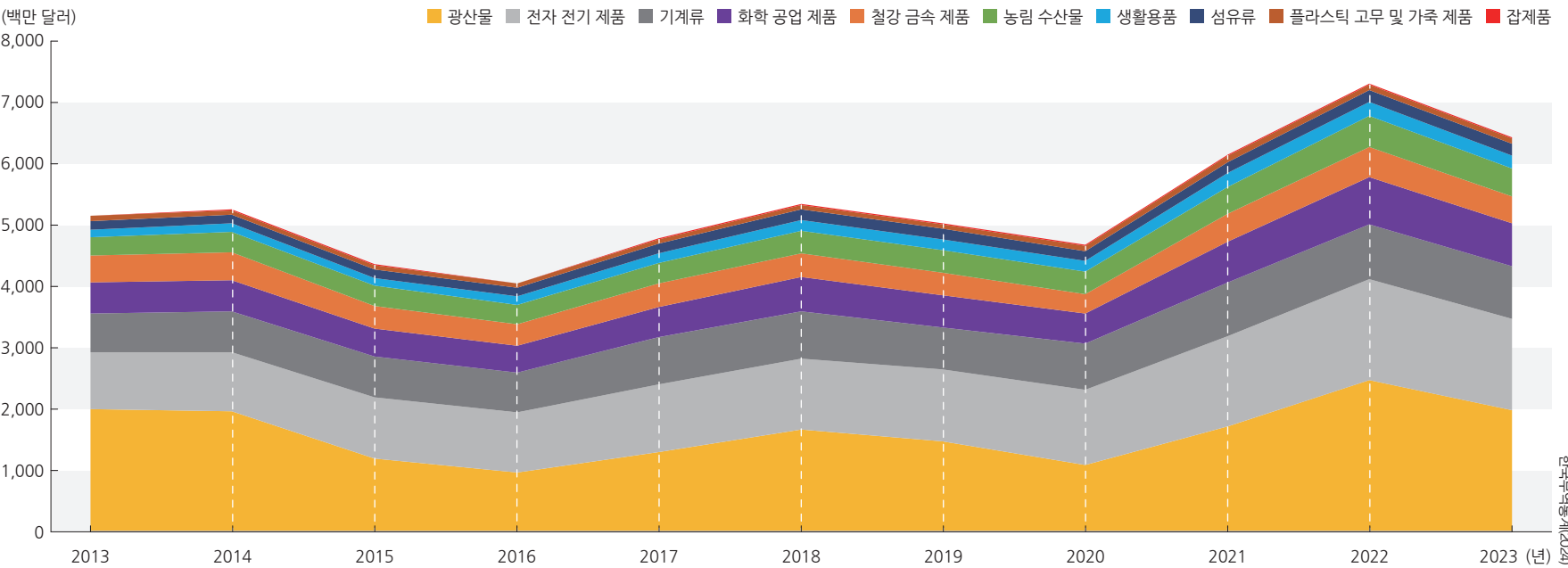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에는 수출액이 약 1,900억 달러였지만, 최근 2023년에는 6,300억 달러로 크게 도약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하는 품목은 전기 전자 제품, 기계류, 화학 공업 제품이다. 특히, 전기 전자 제품과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다음으로는 광산물, 철강 금속 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섬유류, 농림 수산물, 생활용품, 잡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액 또한 증가해 왔다. 2003년 수입액은 약 1,800억 달러였지만, 2023년에는 6,400억 달러로 약 3.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산물, 전자 전기 제품, 기계류이며, 광산물과 전자 전기 제품 수입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화학 공업 제품, 철강 금속 제품, 농림 수산물,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이 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금액 및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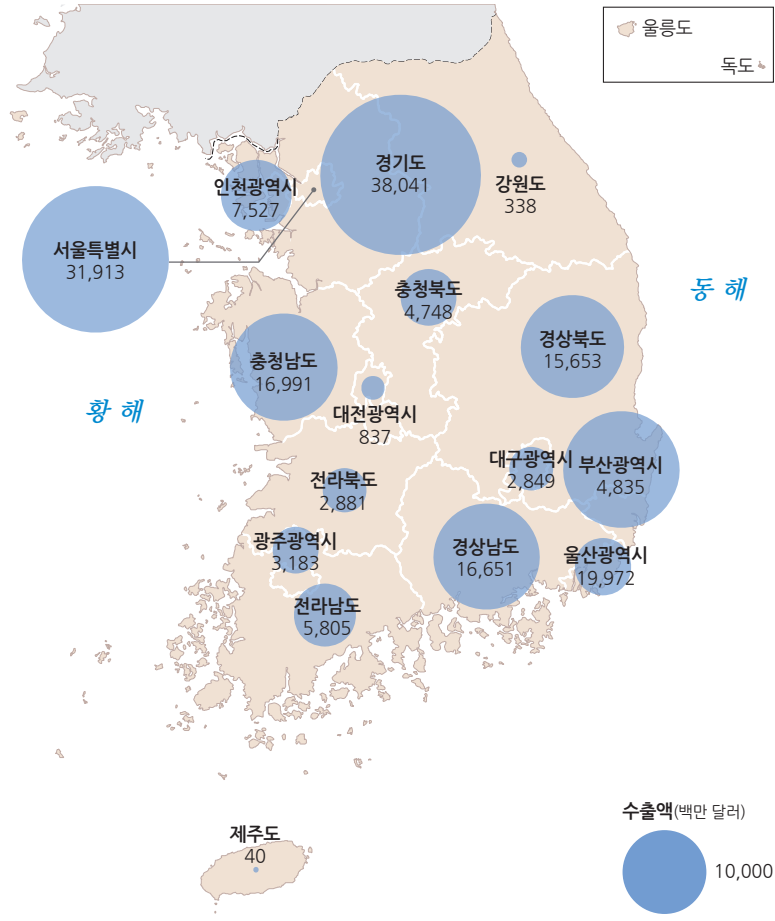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입 금액 및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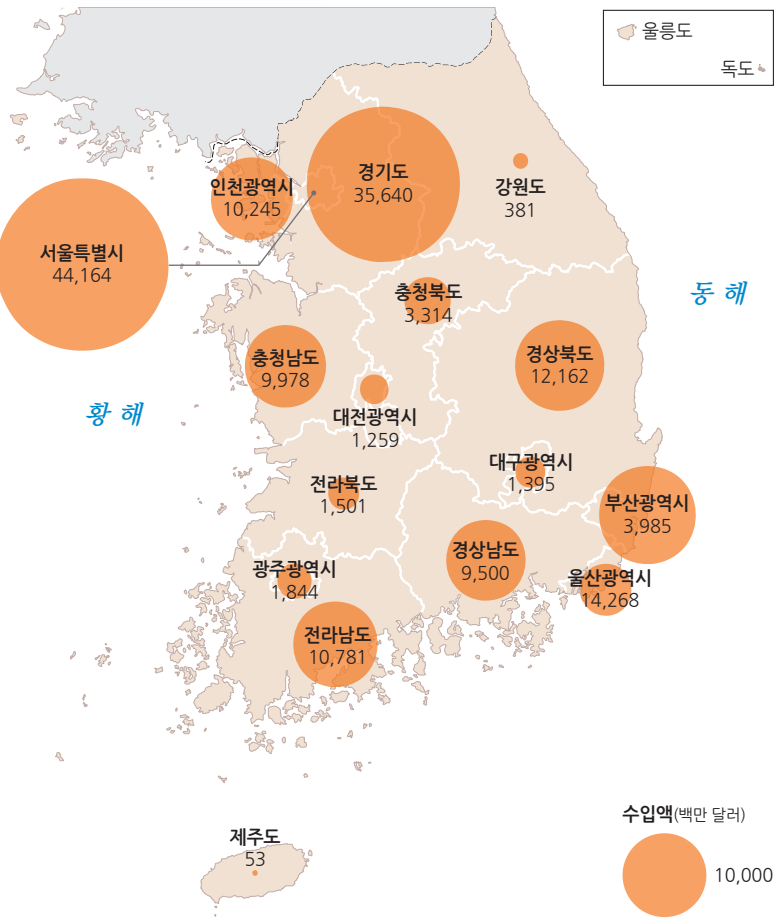
시도별 수출액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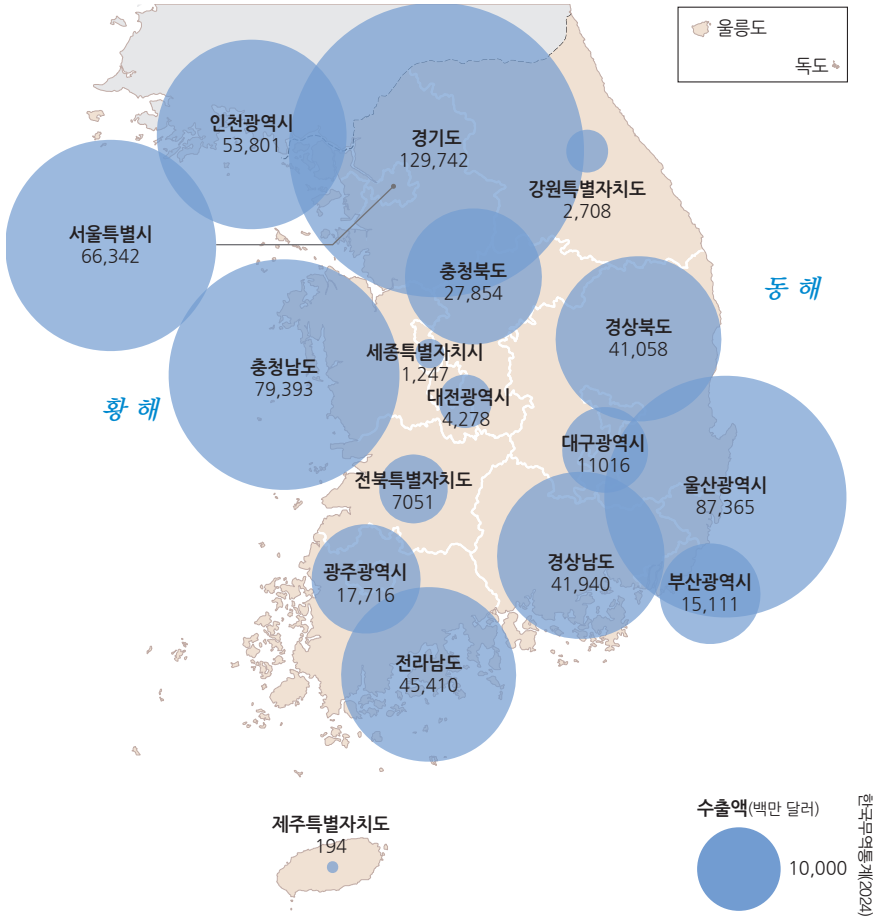
시도별 수입액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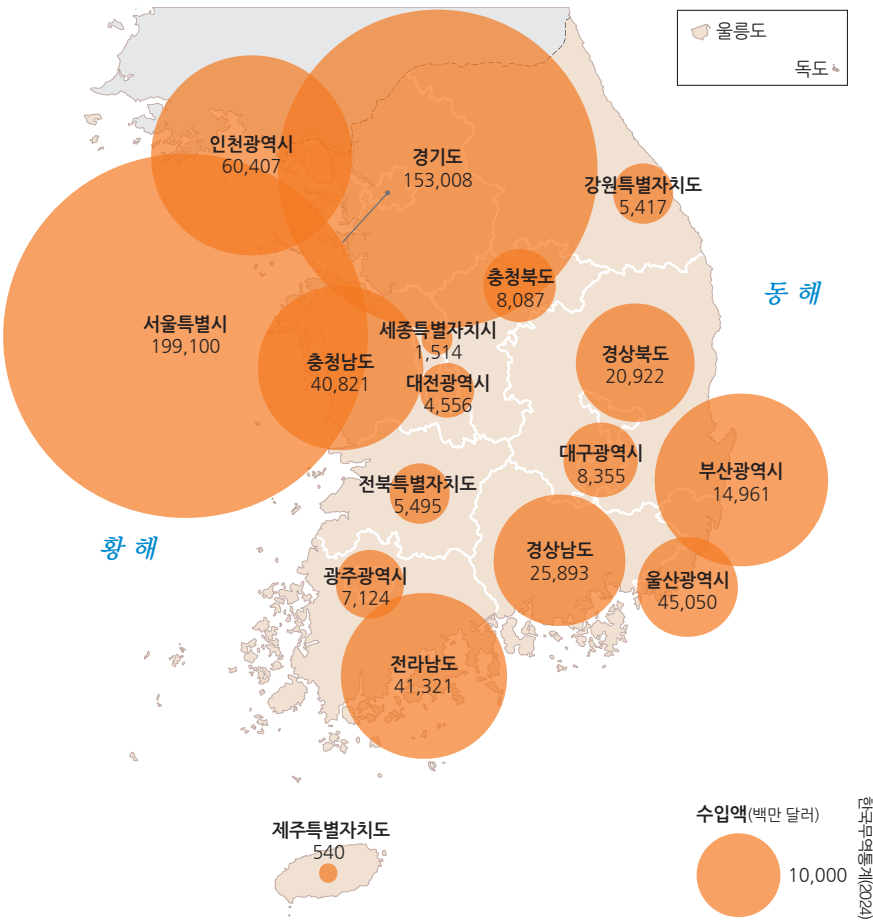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시도별 연간 수출액은 경기, 울산, 충남, 서울, 인천, 전남, 경남, 경북, 충북, 광주, 부산, 대구, 전북, 대전, 강원, 세종, 제주 순으로 많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약 20%의 금액을 차지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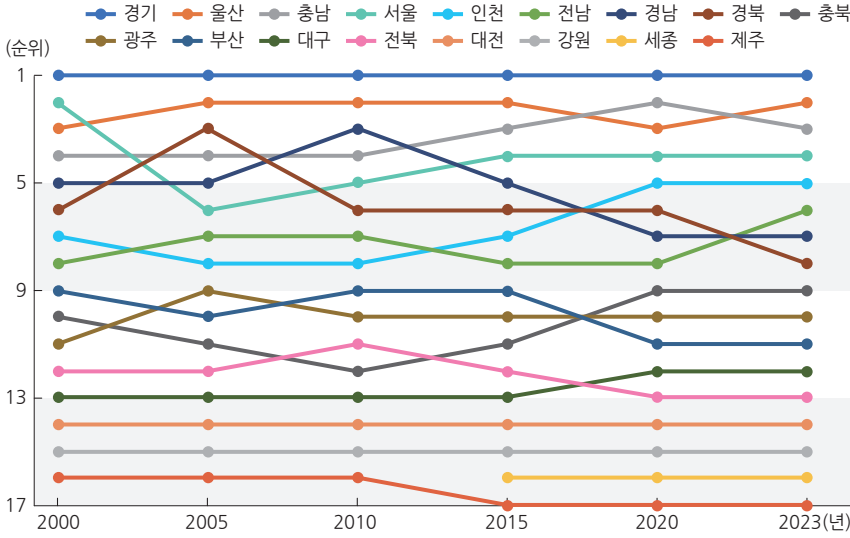


2023년



하고 있다. 경기, 울산, 충남, 서울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한다. 경기, 울산, 서울, 충남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수출액이 많은 4위 시도 내에 꾸준히 들고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별 수출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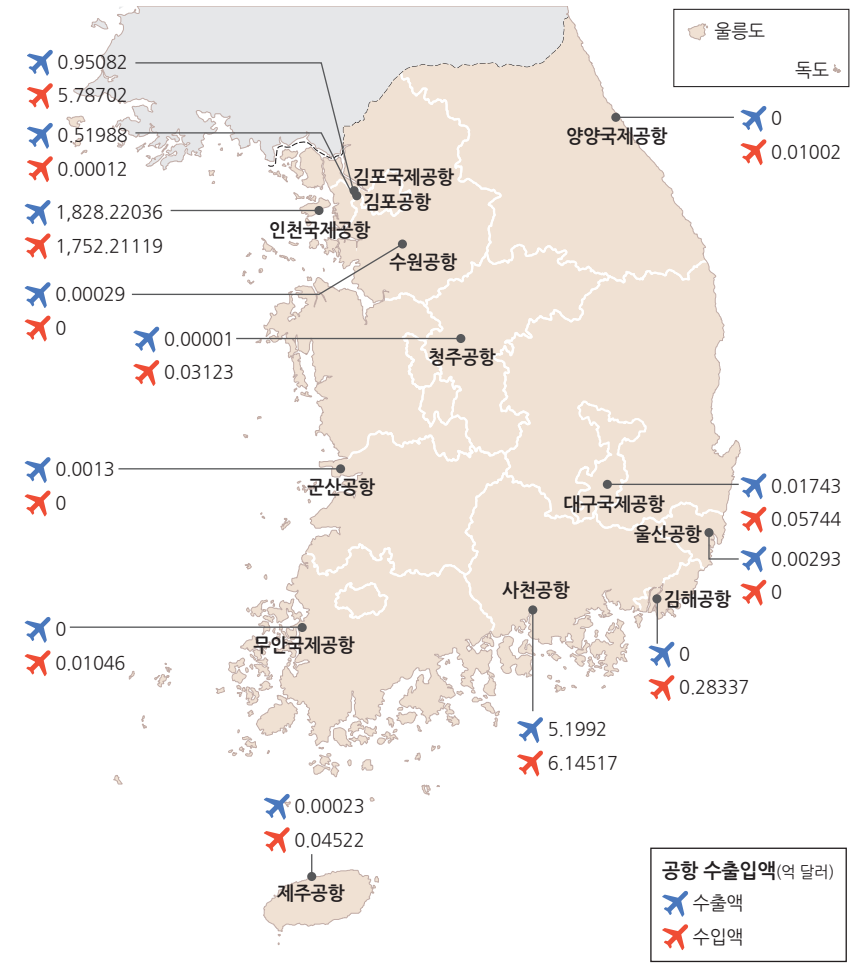


반면, 시도별 연간 수입액은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충북, 광주, 전북, 강원, 대전, 세종, 제주 순으로 많다. 서울과 경기의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53%를 차지한다. 서울, 경기, 울산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수입액이 많은 4위 시도 내에 꾸준히 포함되고 있다. 인천은 과거에는 지자체 수입액이 6~7위였지만 최근 3위로 크게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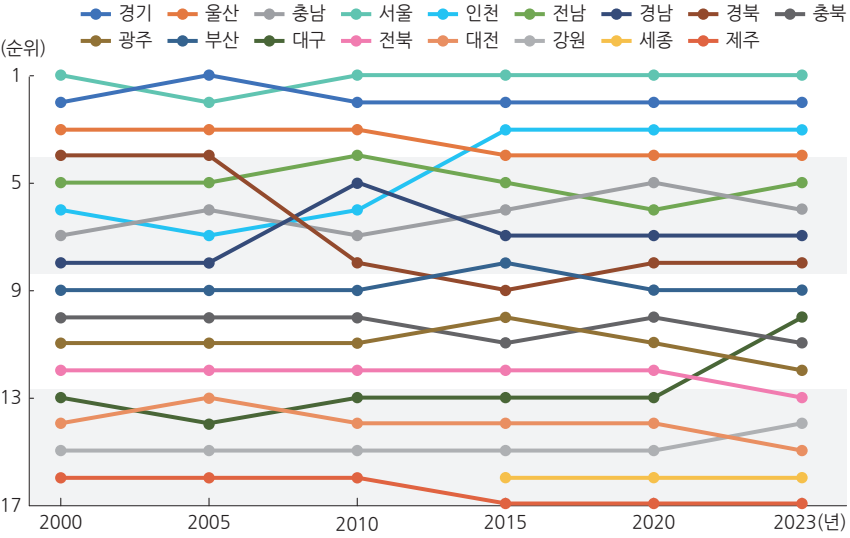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대부분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2023년 기준, 수출액의 71%와 수입액의 73%는 항구에서 발생했다. 주요 항구 중에서는 부산항이 1,531억 달러로 전체 항구 수출액의 약 3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울산항(528억 달러, 12%), 부산신항(471억 달러, 11%), 인천항(445억 달러, 10%), 평택항(312억 달러, 7%)에서 많

우리나라 공항과 항구의 수출 및 수입액 비율

공항 수출 및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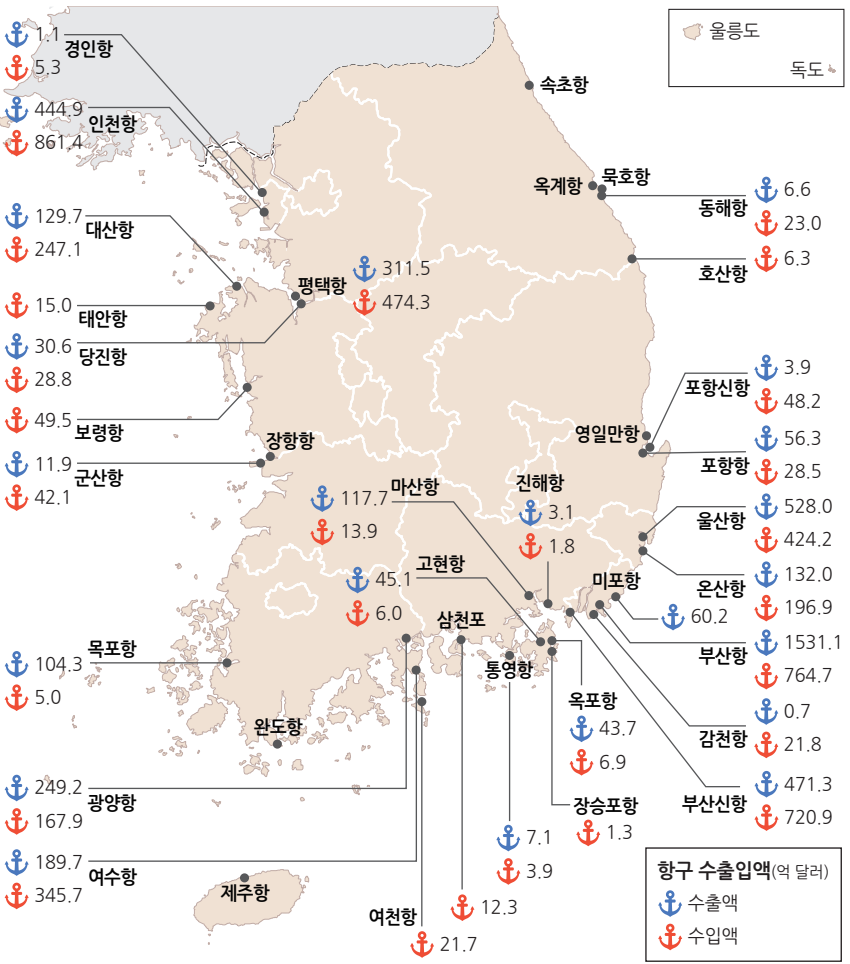
우리나라 지자체별 수입액 순위



은 수출액이 발생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인천항에서 862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산항(765억 달러, 16%), 부산신항(721억 달러, 15%), 평택항(474억 달러, 10%), 울산항(424억 달러, 9%) 등의 항구 순으로 수입액이 많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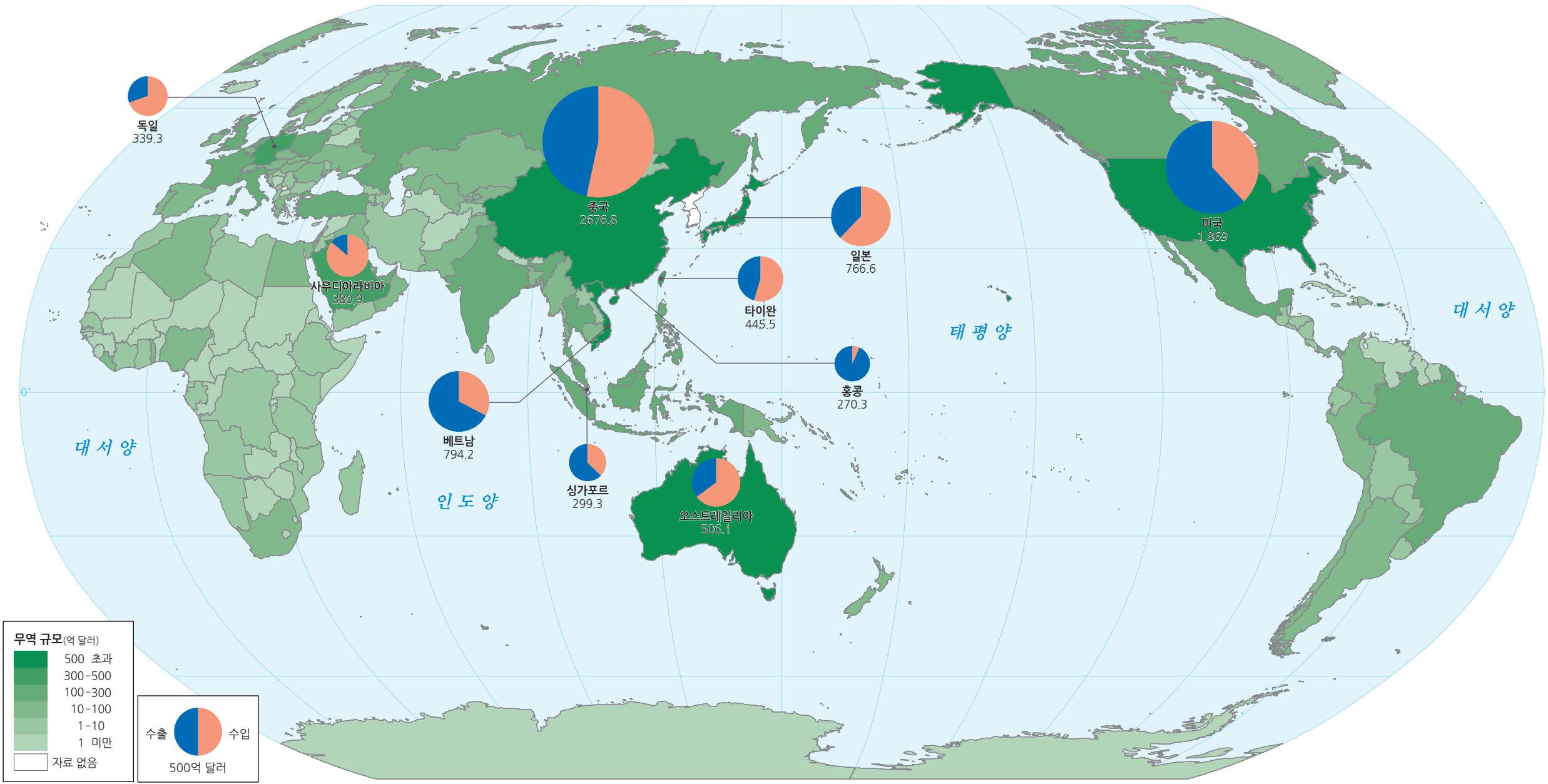
공항은 약 29%의 수출액과 27%의 수입액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총수출액 1,828억 달러로 전체 공항 수출의 99.6%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수입액도 1752.21억 달러로 99.3%를 차지한다. 김해공항은 총수출액 5.20억 달러와 총수입액 6.15억 달러로 각각 0.3%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수출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공항들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항구 수출 및 수입액



우리나라 무역 규모

우리나라 무역 규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4)

2023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는 약 47조 2,000억 달러다. 무역 규모가 큰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등의 순이며, 중국이 전체의 약 12%, 미국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무역 규모 8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전체 무역 규모의 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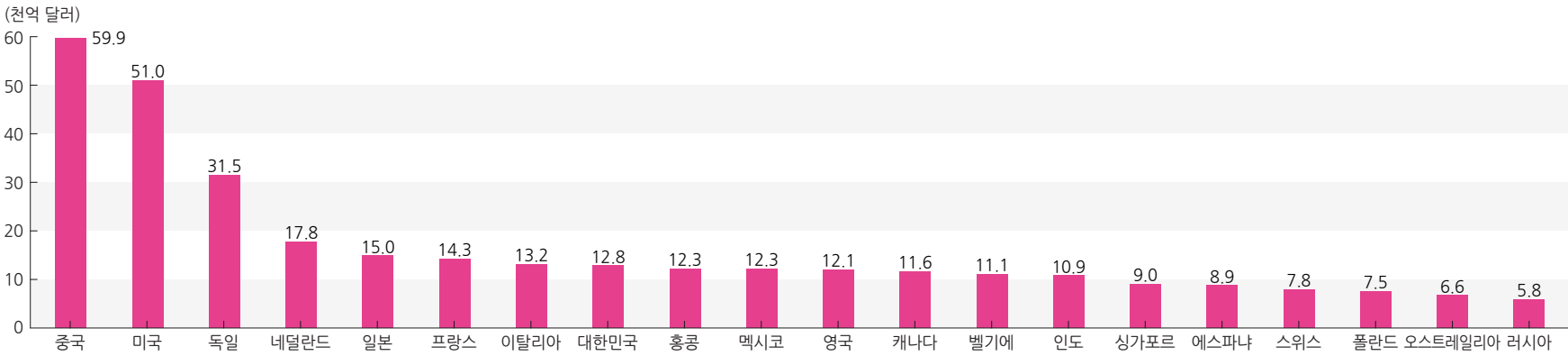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약 250개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등의 순이었다. 수출 금액이 가장 높은 중국과 미국은 각각 2023년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중국에 약 1,248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그중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약 117억 달러이다. 그 다음으로는 무선 통신 기기(61억 달러), 합성 수지(60억 달러) 등을 많이 수출하였다. 중국으로의 호조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등이다. 중국의 3대 수출국은 미국, 홍콩, 일본이며, 3대 수입국은 타이완, 우리나라, 미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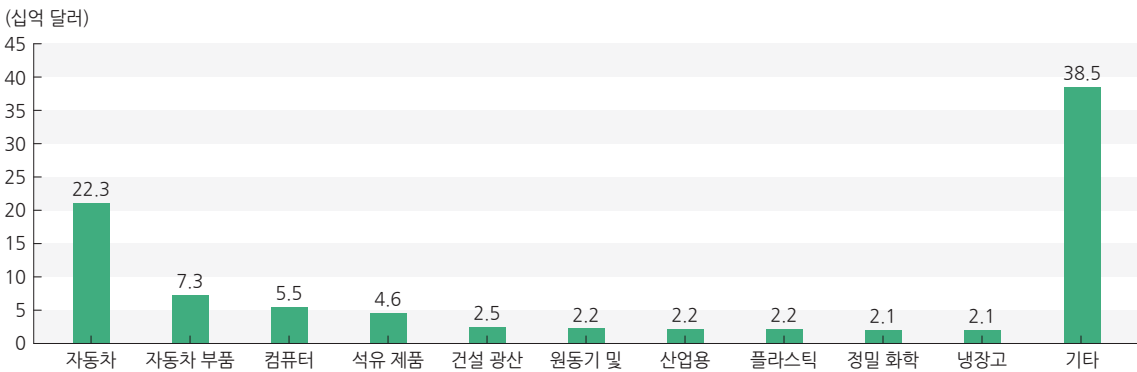
미국으로는 2023년 1,157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는 약 223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자동차 부품은 73억 달러의 규모로 수출했다. 수출 호재 품목은 자동차, 일반 기계 등이며, 수출 부진 품목은 섬유류, 반도체 등이 있다. 미국의 3대 수출국과 수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다.

일본에는 약 290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유 제품과 철강판이다. 석유 제품은 약 30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철강판은 25억 달러의 규모로 수출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유 제품, 석유 화학이며, 섬유류와 컴퓨터류 등은 수출 부진 품목이다. 일본의 3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이며, 3대 수입국은 미국, 중국, 대한민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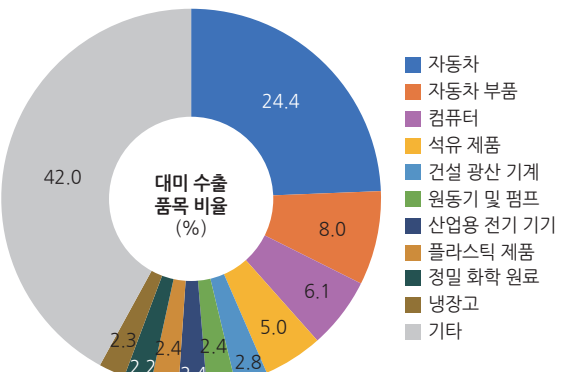
세계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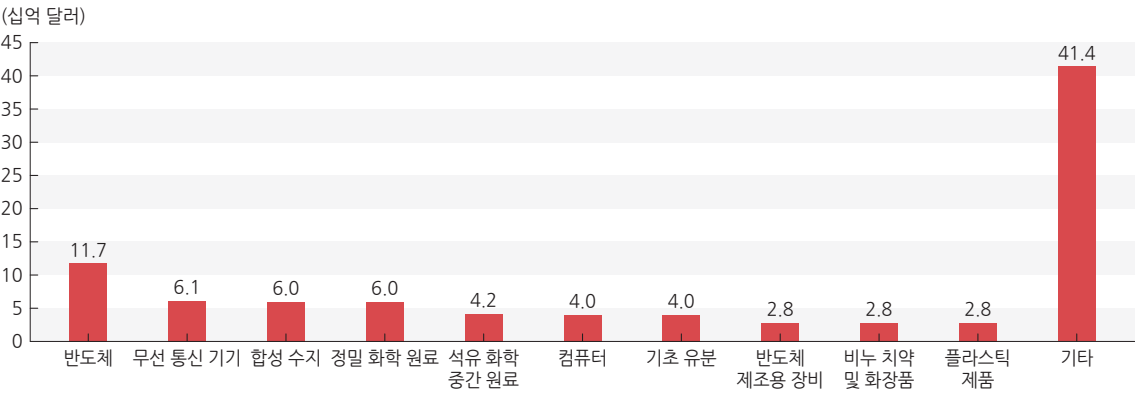
대미 수출액 및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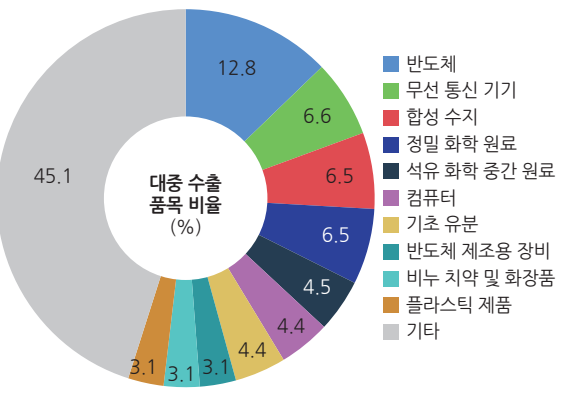
대미 수출 품목 비율



대중 수출액 및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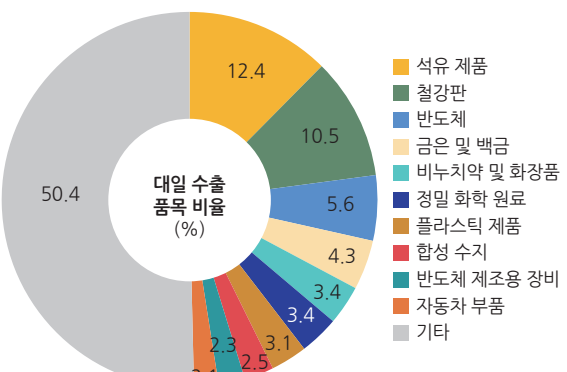
대중 수출 품목 비율



대일 수출액 및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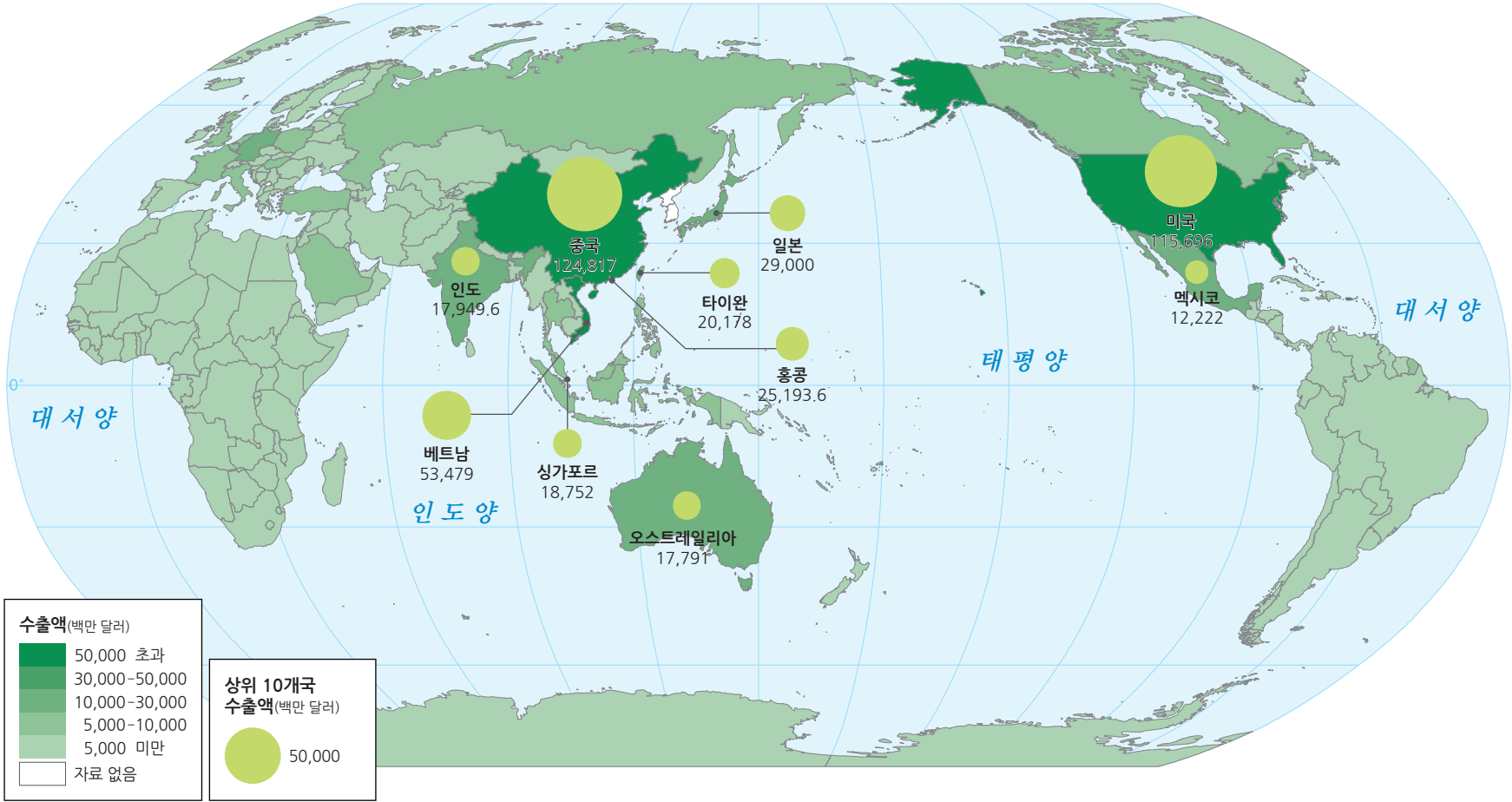


대일 수출 품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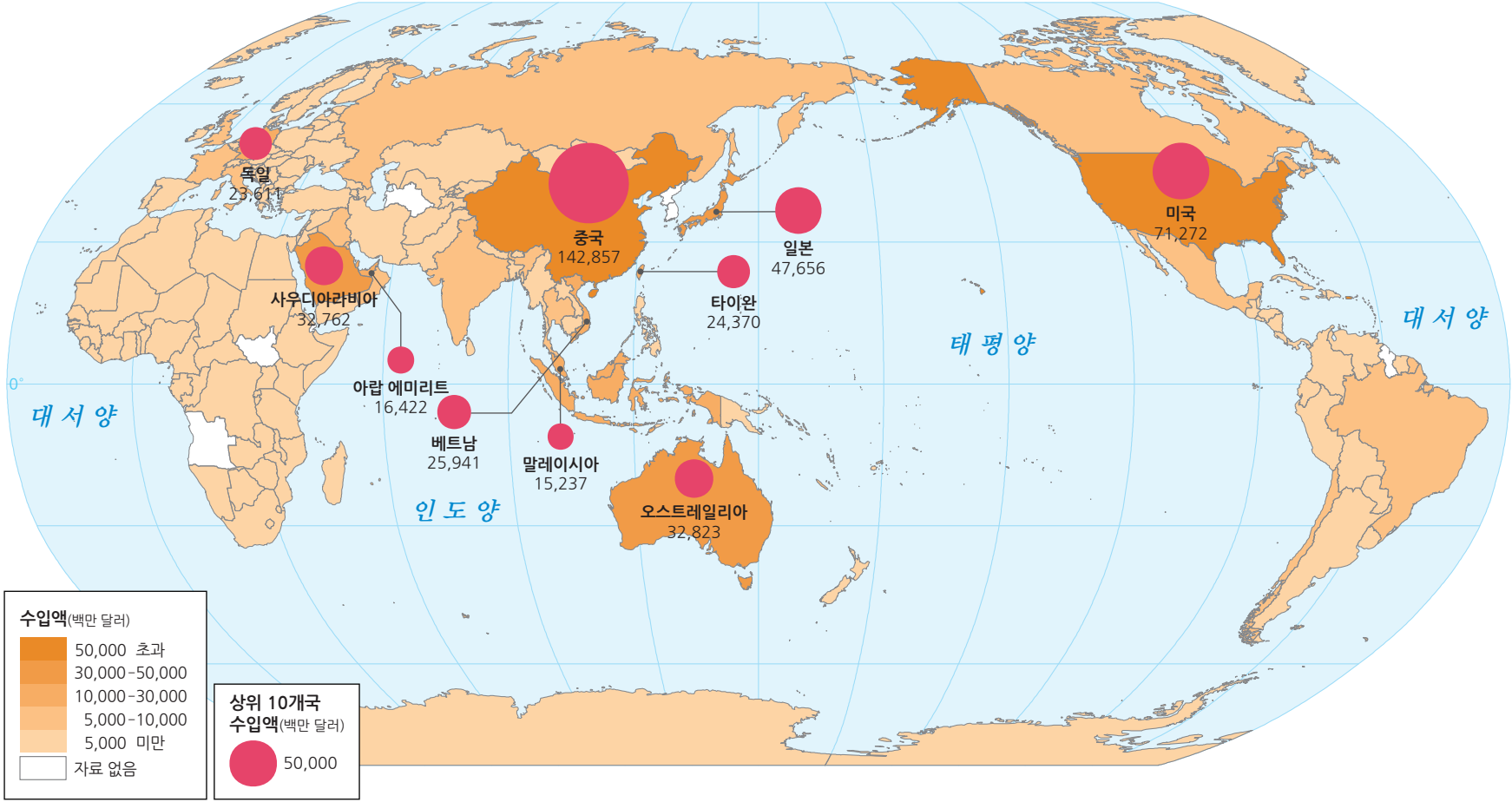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4)

우리나라 수출 상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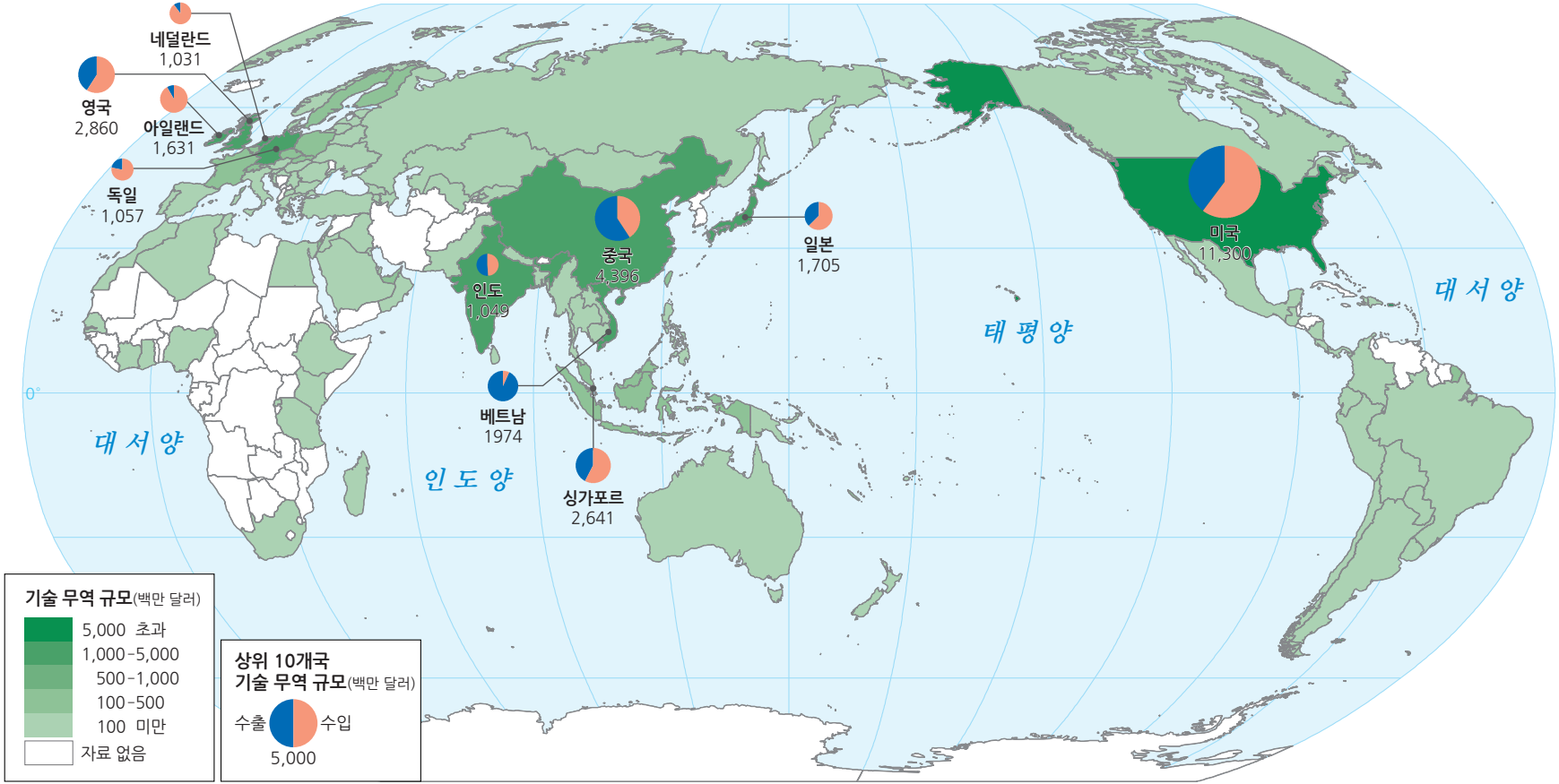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입 상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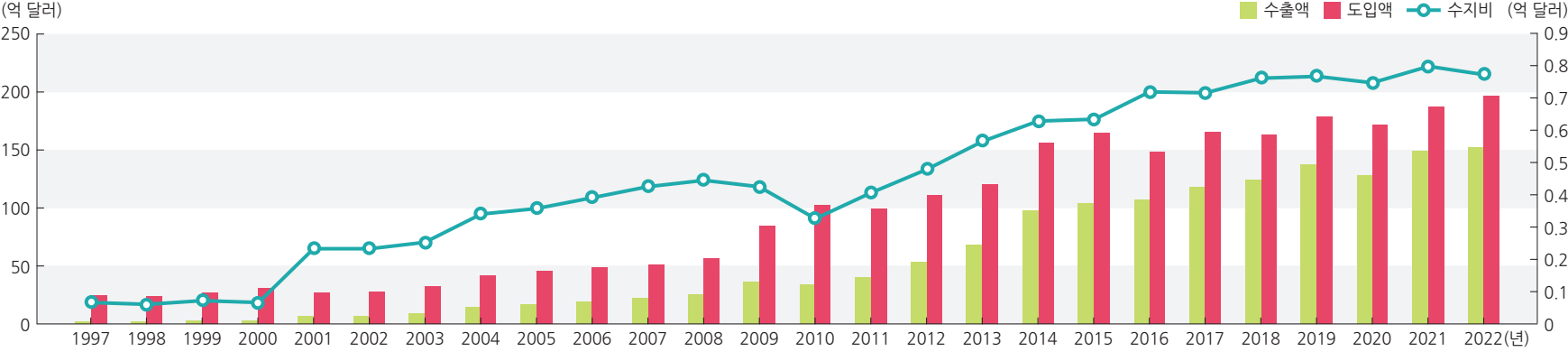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입액은 중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타이완, 독일, 아랍 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금액이 높은 중국은 한 해 전체 수입액의 약 20%를, 미국은 약 10%

를 차지하고 있다. 대륙권으로 살펴보면 아시아가 수출·수입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북아메리카, 유럽, 중부·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 기술 무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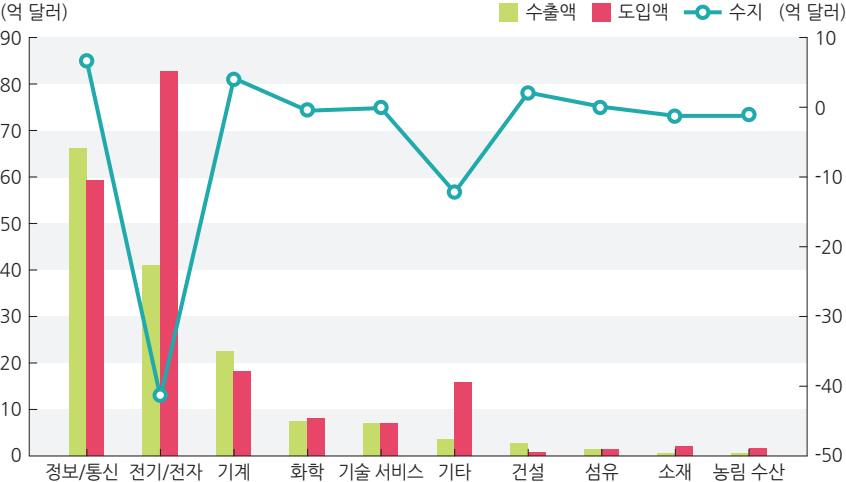
우리나라 기술 무역 규모



기술 무역 수출액, 수입액, 규모별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입액	국가명	규모
1	미국	44.8	미국	68.2	미국	113
2	중국	26	중국	17.9	중국	44
3	베트남	18.4	영국	16.8	영국	28.6
4	영국	11.8	싱가포르	15.2	싱가포르	26.4
5	싱가포르	11.2	아일랜드	15	베트남	19.8
6	일본	6.4	일본	10.7	일본	17.1
7	인도	5.4	네덜란드	9.3	아일랜드	16.3
8	홍콩	3.1	독일	8.3	독일	10.6
9	타이완	2.6	인도	5.1	인도	10.5
10	체코	2.5	홍콩	3.9	네덜란드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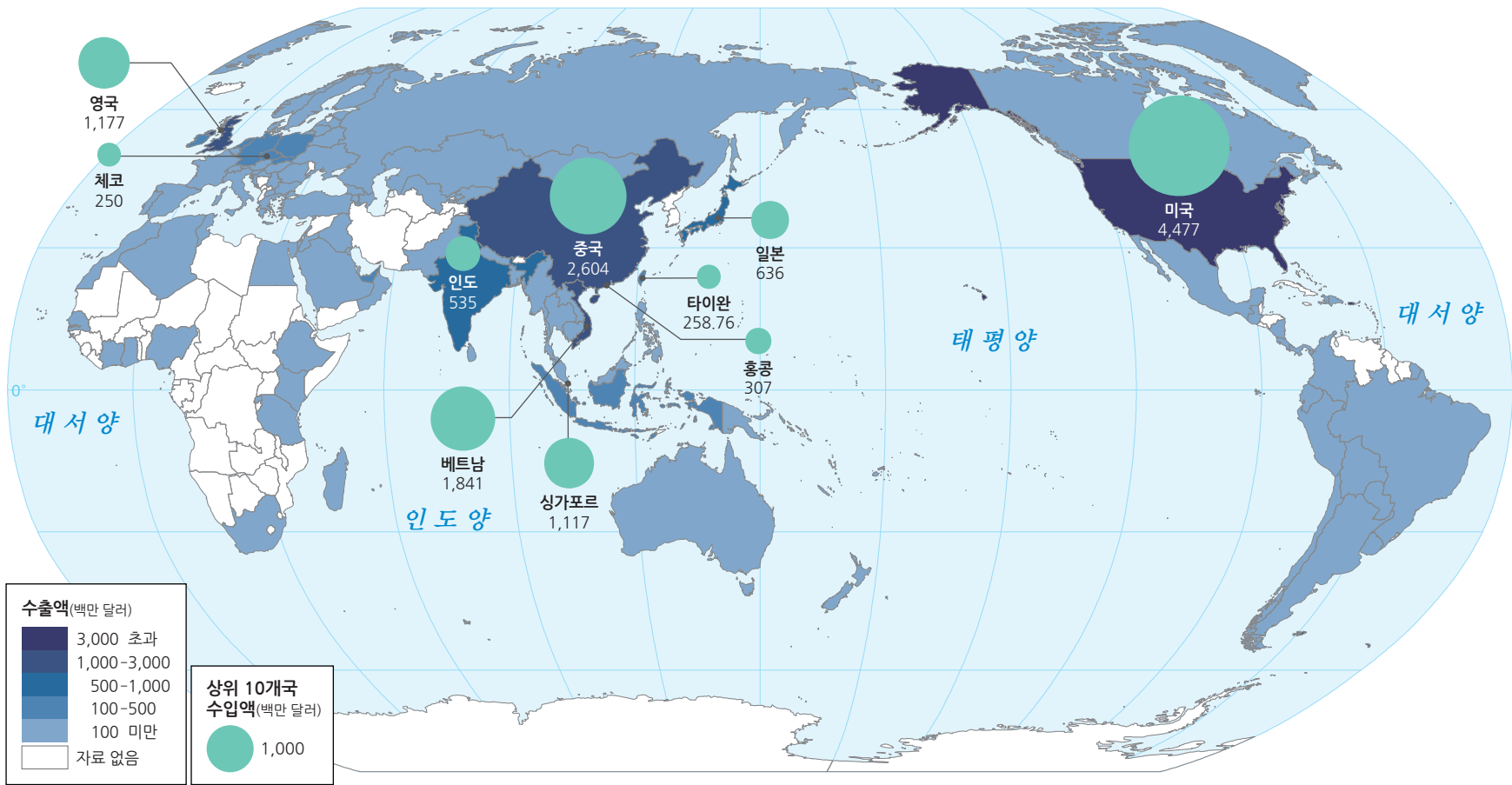
산업별 기술 무역 규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기술 무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술 무역은 국가 간 기술의 매매 및 라이선싱,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제적 기술 수출과 기술 도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술이나 특허의 국제 이전 및 판매, 노하우 전수, 기술 지도 연구,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기술 무역은 국가 간 기술 교류와 각국의 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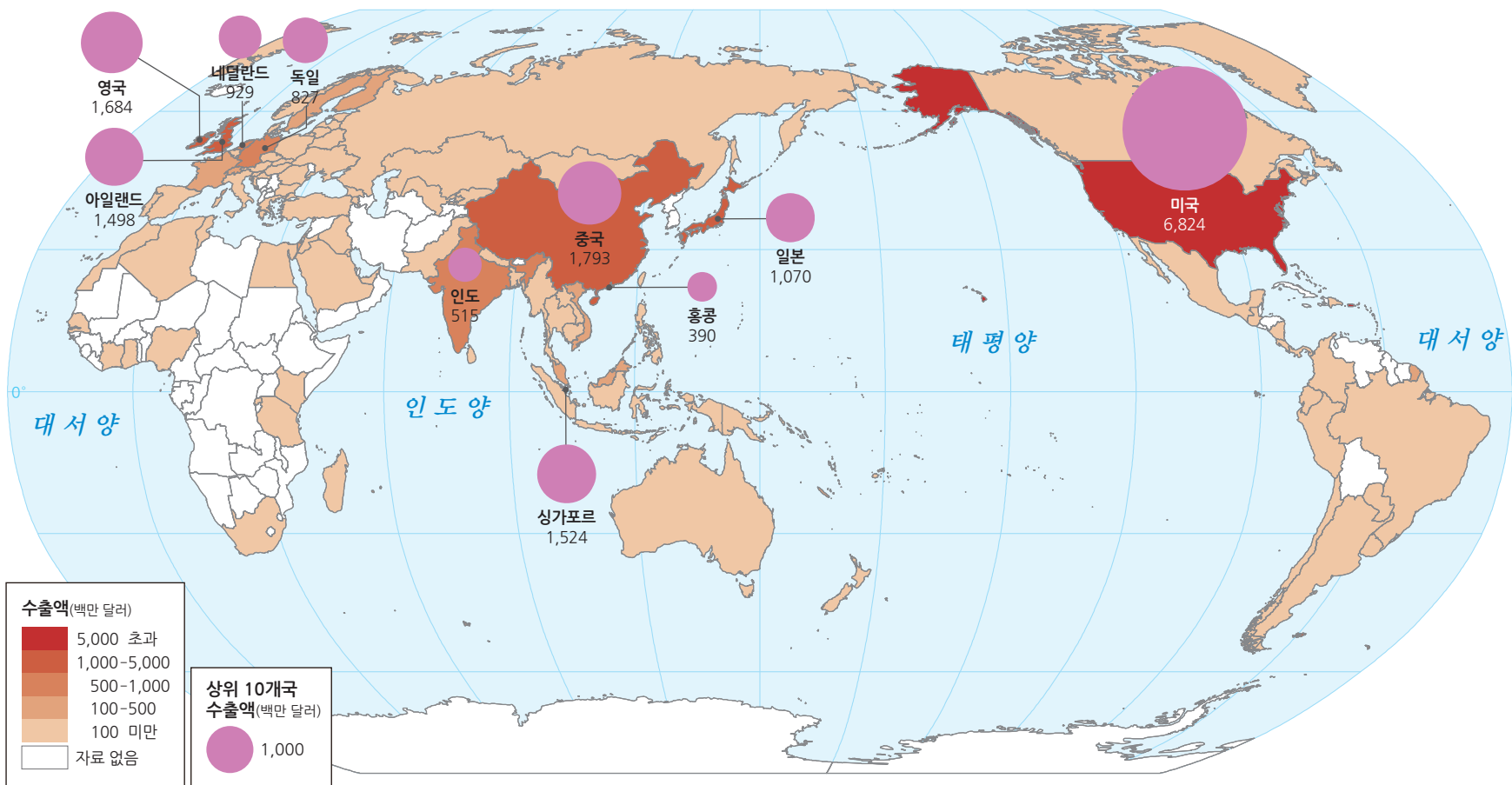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기술 무역 수출액과 도입액의 비율인 기술 무역 수지비는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기술 무역 규모는 2009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2년 기준 약 349억 달러이다. 이중 기술 수출액이 152억 달러, 도입액이 196억 달러이다.

국가별 기술 무역 수출액



국가기술정보통신부(2024)

국가별 기술 무역 도입액



국가기술정보통신부(2024)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약 110개국과 기술 무역을 했다. 기술 무역 상위 수출국은 미국(44억 8천만 달러), 중국(26억 달러), 베트남(18억 4천만 달러) 등이며, 상위 도입국은 미국(68억 2천만 달러), 중국(17억 9천 달러), 영국(16억 8천 달러) 등이다. 기술 무역의 규모는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순으로 컸다.

기술 수출액과 도입액이 높은 산업군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이다.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2.8% 증가했으나, 기술 도입액이 19.7% 감소하면서 5억 4천만 달러 적자에서 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

해외 직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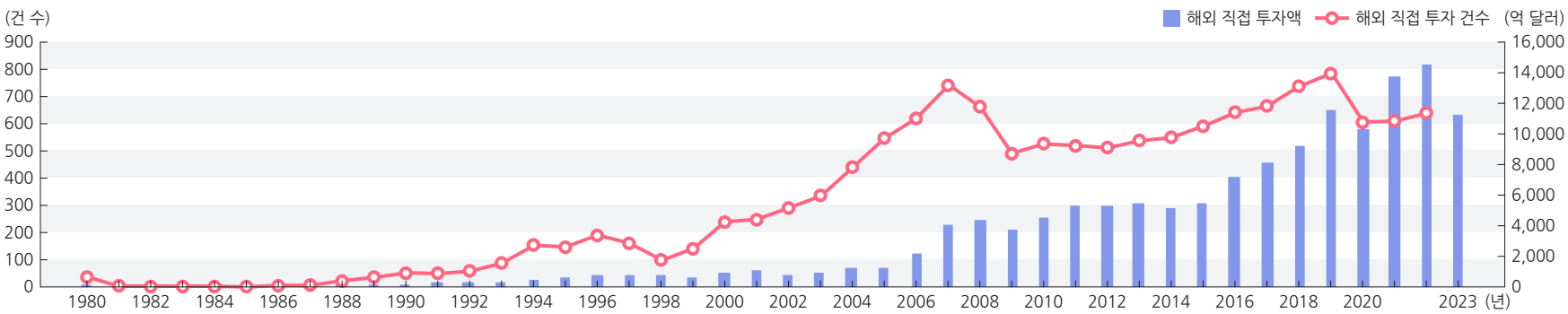
해외 직접 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본을 투자하여 현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현지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2023년 기준, 총 순투자액은 520억 5천만 달러였으며, 최대 규모는 2022년 648억 4천만 달러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2023년 해외 직접 투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위주의 대(對) 미국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 상위 10개국은 미국(251억 4천만 달러), 룩셈부르크(41억 8천만 달러), 케이맨 제도(영국)(40억 달러), 캐나다(34억 4천만 달러), 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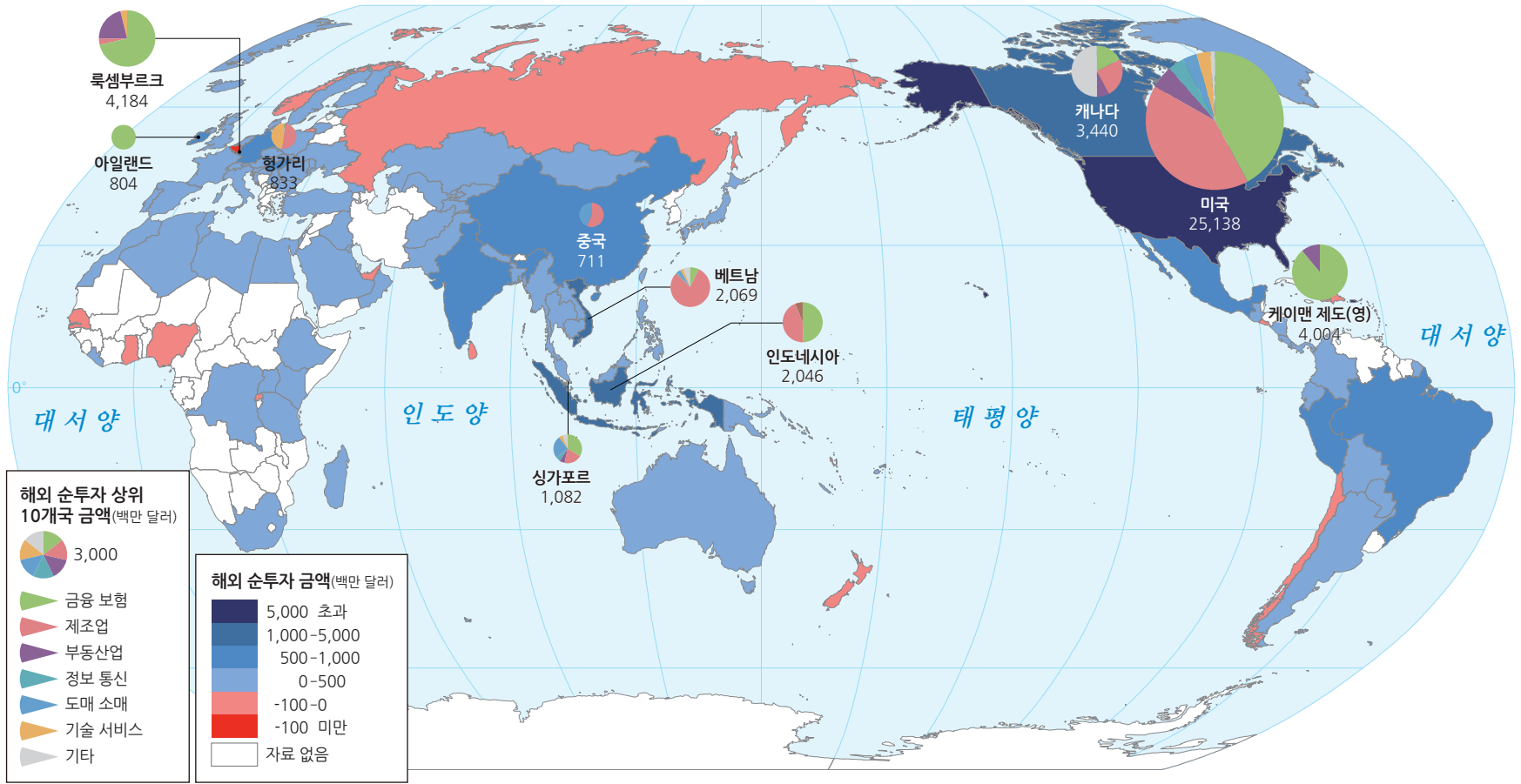
남(20억 7천만 달러), 인도네시아(20억 5천만 달러), 싱가포르(10억 8천만 달러), 헝가리(8억 3천만 달러), 아일랜드(8억 달러), 중국(7억 달러)이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다. 2023년 제조업의 해외 직접 순투자 금액은 178억 5천만 달러로, 2023년 전체 해외 직접 투자액의 약 34%를 차지한다. 2007년부터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액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투자액의 약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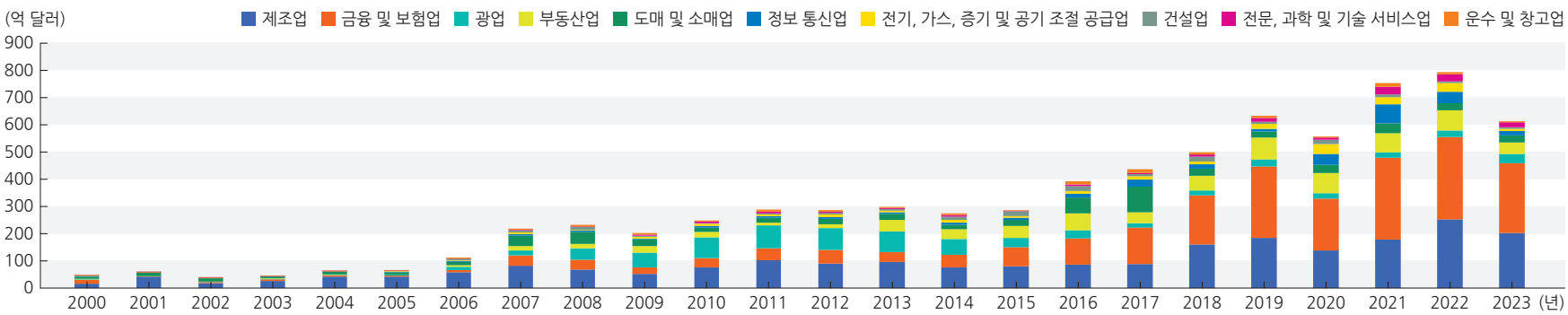


국가별 해외 직접 순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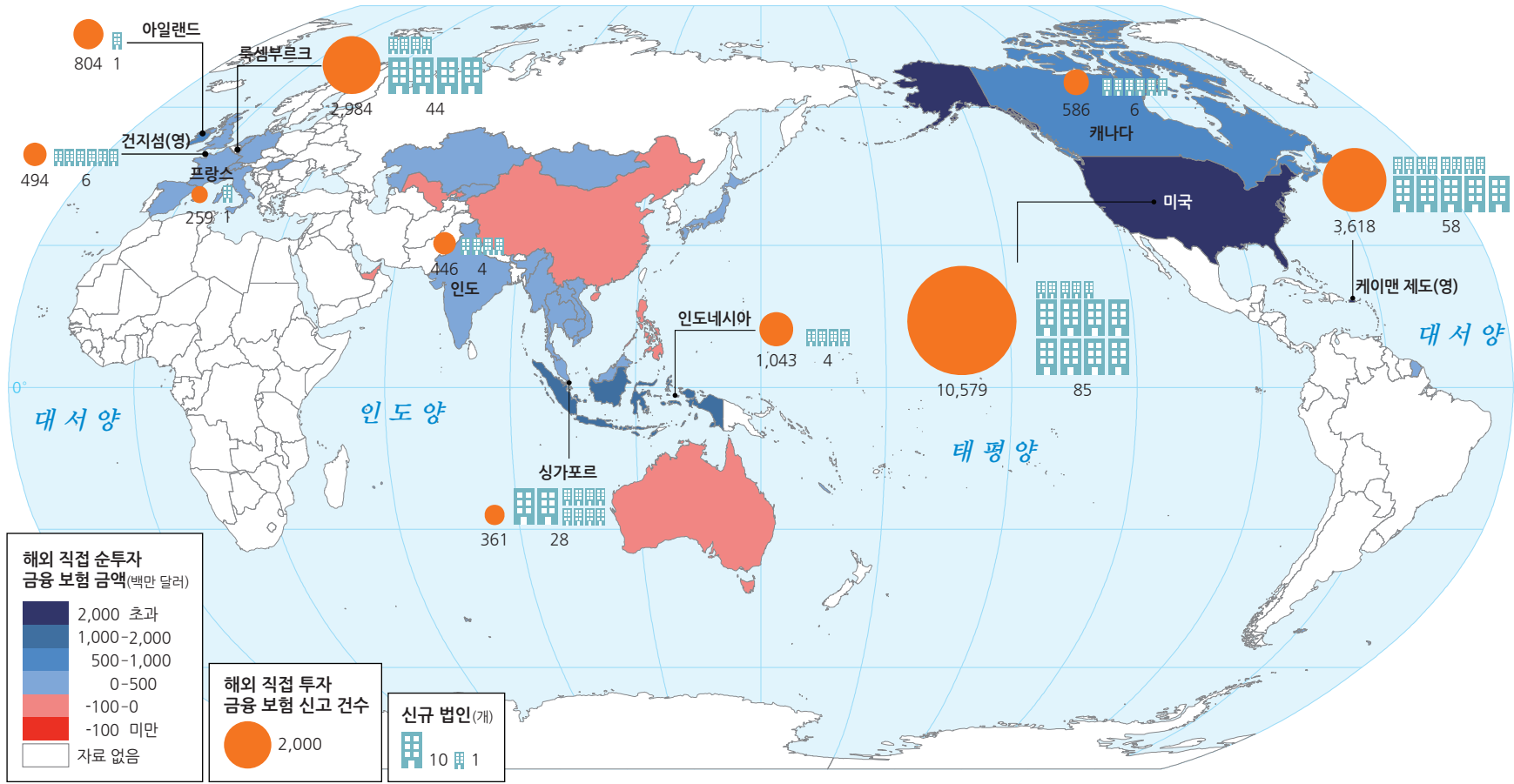


해외직접투자(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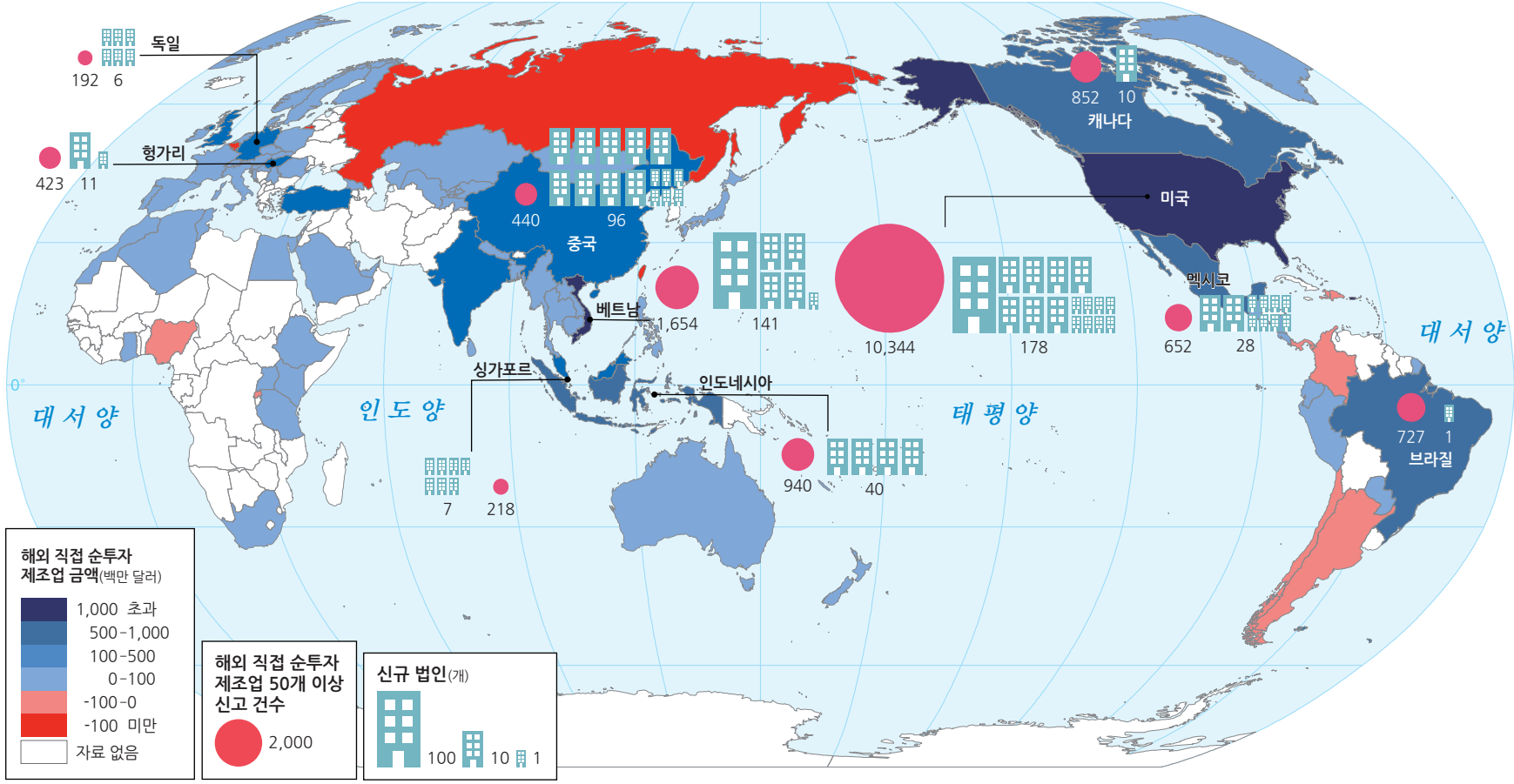
2000~2023년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 상위 10개 대분류 업종



해외 직접 순투자 금융 및 보험업 국가별 규모



해외 직접 순투자 제조업 국가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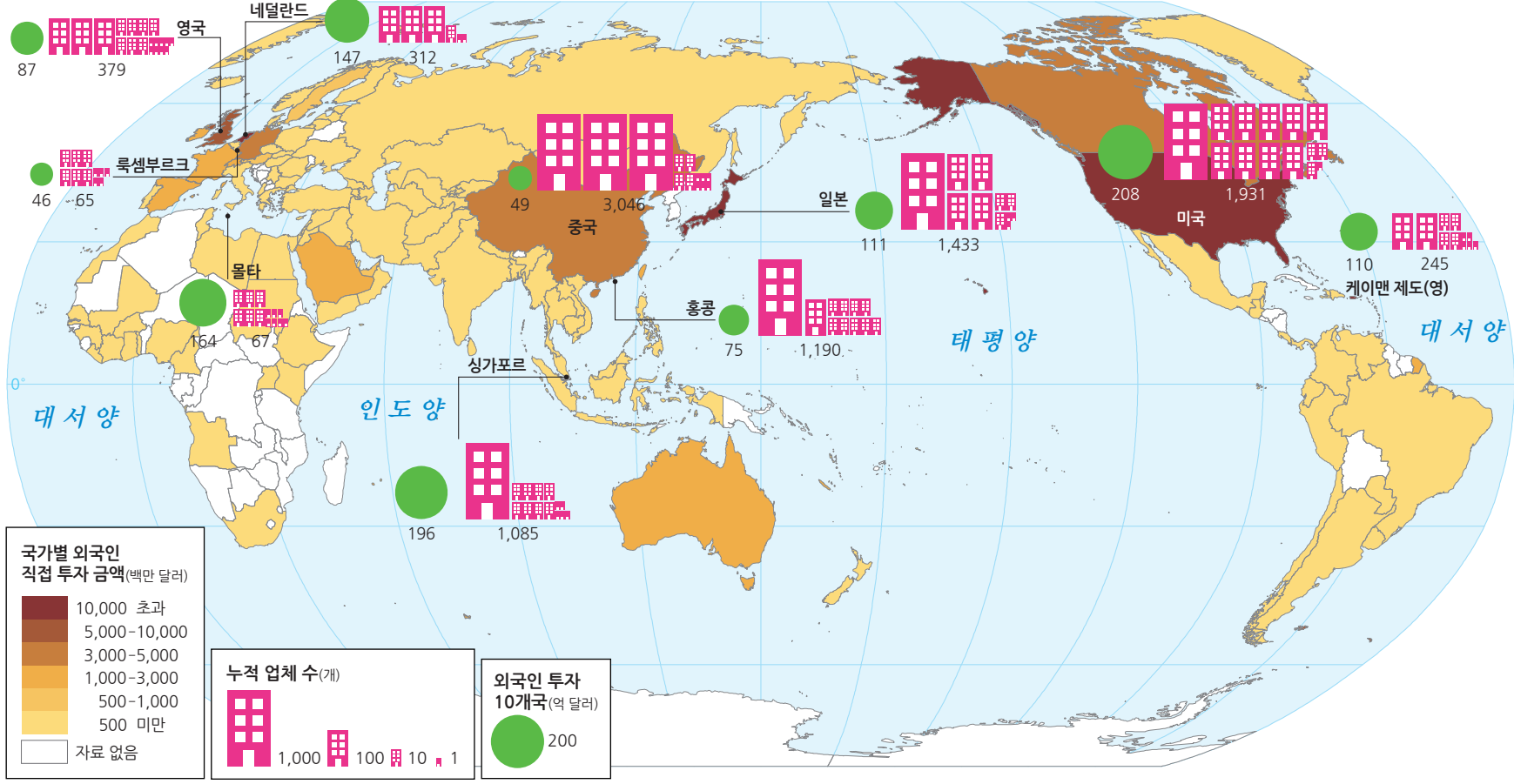


2023년 기준, 금융 및 보험업종으로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약 120억 달러이며, 신고 건수는 426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케이맨 제도(영)(53억 달러, 518건), 룩셈부르크(360억 달러, 310건), 인도네시아(10억 달러, 17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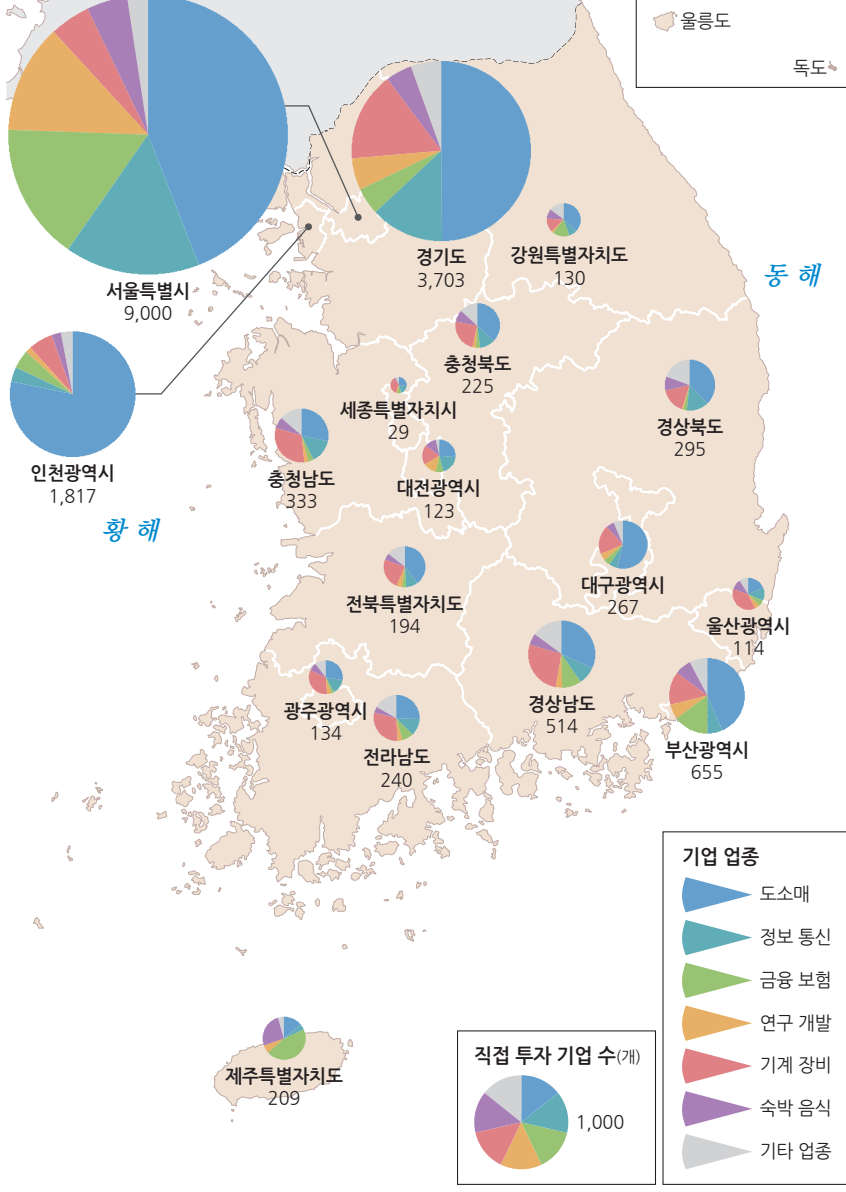
제조업종으로 투자 금액이 많은 나라는 미국(100억 달러, 744건), 베트남(20억 달러, 930건), 중국(14억 달러, 393건), 브라질(12억 달러, 13건), 인도네시아(10억 달러, 206건) 등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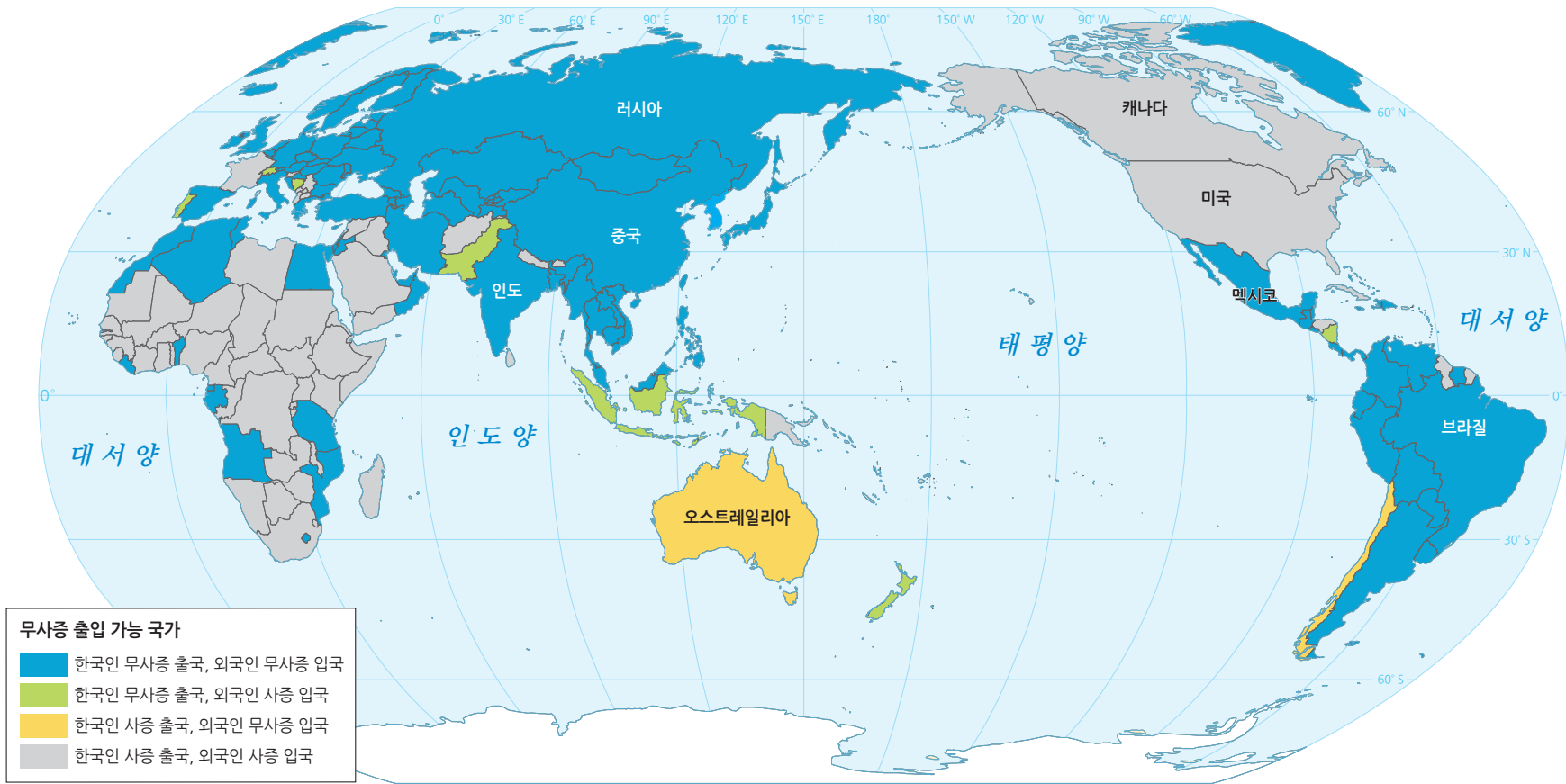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자하여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9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도입했고, 신고 수리제를 간소화하여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2010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행정 기관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

2023년 기준,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총 1519억 4천만 달러이며, 투자한 업체는 총 14,636개이다. 도착액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상위국은 미국(208억 달러), 싱가포르(196억 달러), 몰타(164억 달러), 네덜란드(14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 케이맨 제도(110억 달러), 영국(87억 달러), 홍콩(75억 달러), 중국(49억 달러), 룩셈부르크(47억 달러)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총 1만 8천여 곳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50%에 해당하는 기업 9,000곳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3,697개, 인천에 1,817개, 부산에 654개가 위치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품 종합 소매업이 2,6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 자동차 판매업(1,203개)과 경영 컨설팅업(544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456개), 상품 종합 중개업(349개), 화장품 및 화장품품 소매업(321개) 등의 업종 순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다.

인적 교류

무사증 출입 가능 국가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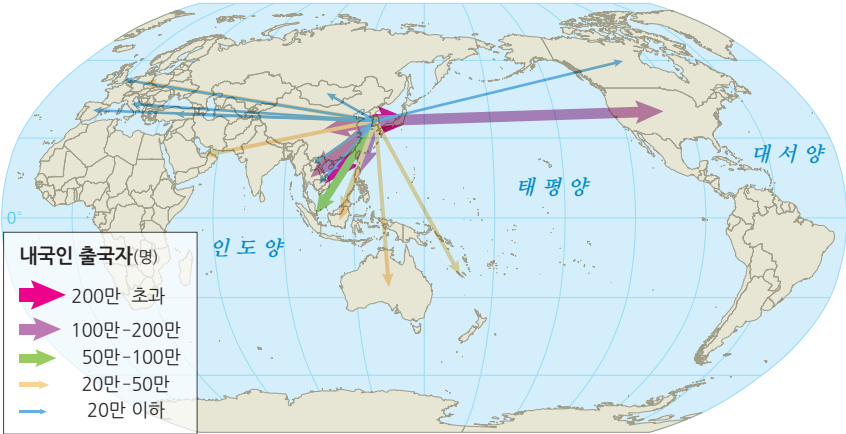
세계화에 따라 물자, 자본, 정보, 기술 등이 초국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사람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부류의 소수 사람들만이 해외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했던 외국인 역시 과거에는 외교관, 외국 기업 주재원, 주한 미군, 화교로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에 체류했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해졌다. 외국인 주민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 주민은 정주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가 수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말 현재 세계 115개 국가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20개국, 아메리카 29개국, 유럽 46개국, 아프리카·중동 20개국이며, 2017년 106개국과 비교해 증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 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다. 외교관·관용 여권을 요구하거나,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교류 활성화를 위해 151개 국가 또는 지역 출신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아시아·태평양 9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유럽 43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대서양 13개국 또는 지역 출신 외국인이고,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는 45개국 출신 외국인이며, 기타 사증 관련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40개국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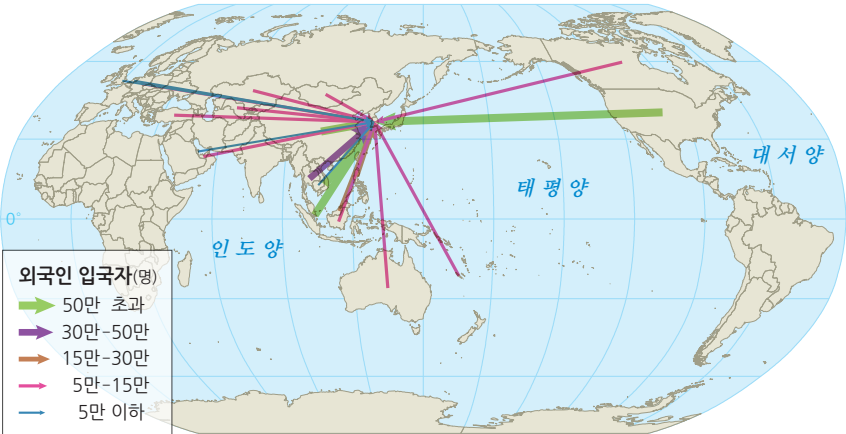
출국과 입국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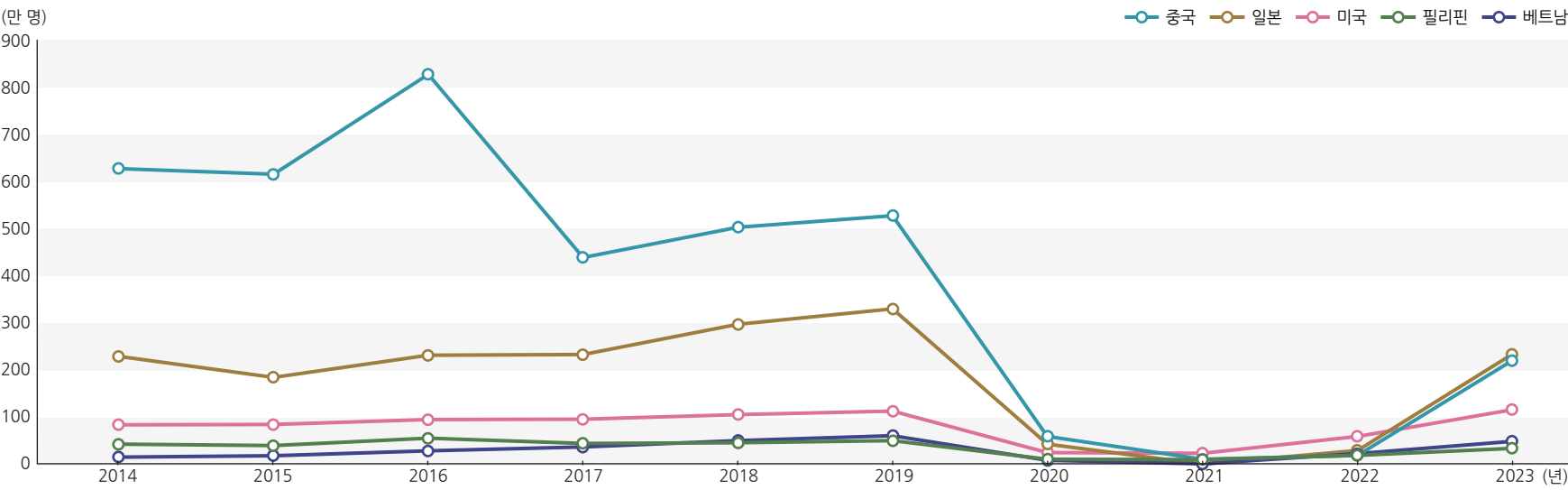
위 지도는 2023년도 대한민국에 출입한 내외국인 현황을 출발지와 도착지 형태로 표시한 지도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출발지는 일본, 중국, 타이완, 미국, 베트남 지역의 순이며, 내국인들은 일본,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중국 순으로 출국하여 방문하였다. 미국과의 인적 교류는 광복 이후 냉전 시기에 걸쳐 형성된 우호 관계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입국 또한 활발하게 나타났다.

출발지별 외국인 입국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필리핀 5개국 국적을 지닌 외국인 입국자 수 추이를 확인했을 때,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심화로 국가 간 이동이 규제됨에 따라 5개국 국적 외국인 입국자 수가 많았던 2016년 약 1,242만 명에서 2021년 약 53만 명으로 96%가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2022년부터는 외국인 입국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약 659만 명이 입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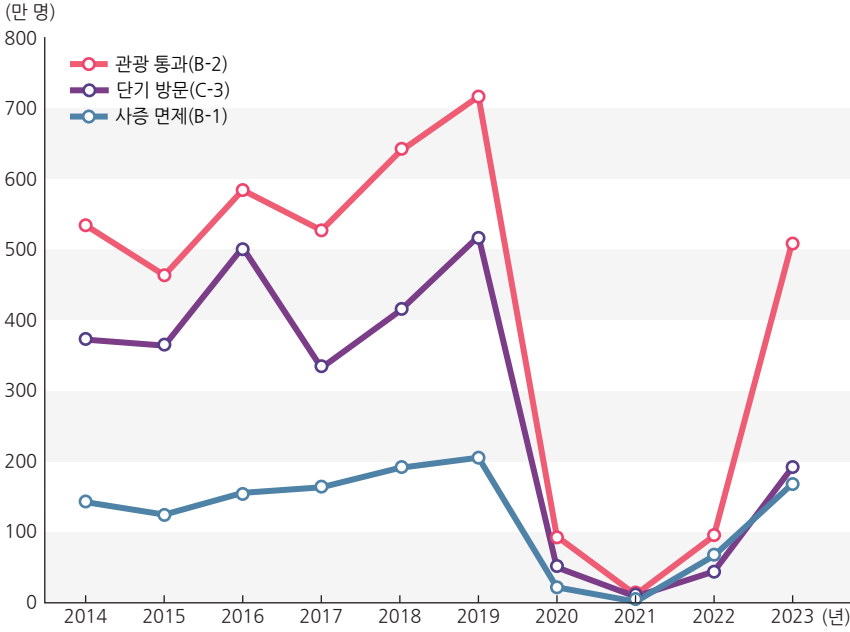
국적별 외국인 입국 추이



인천국제공항 내 입국과 출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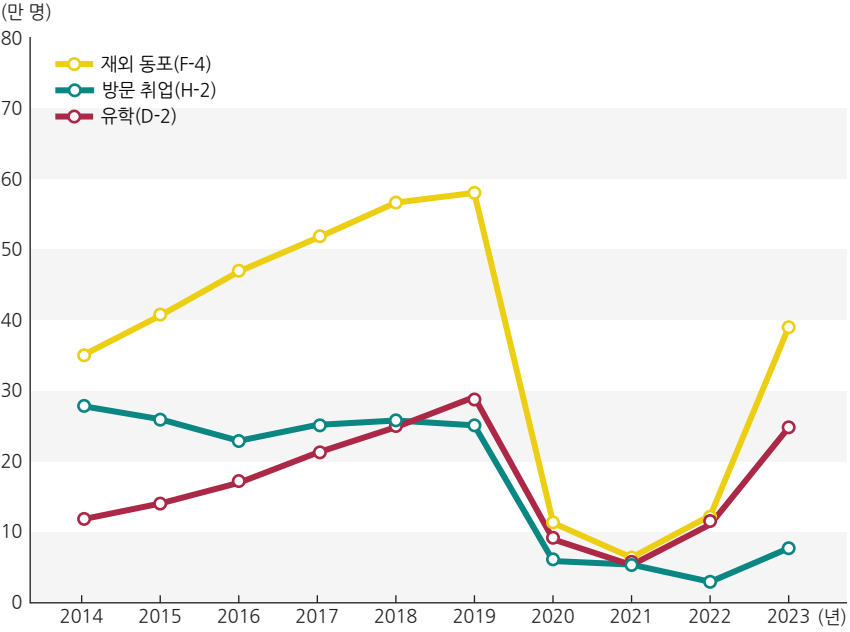


외국인 체류 자격별 입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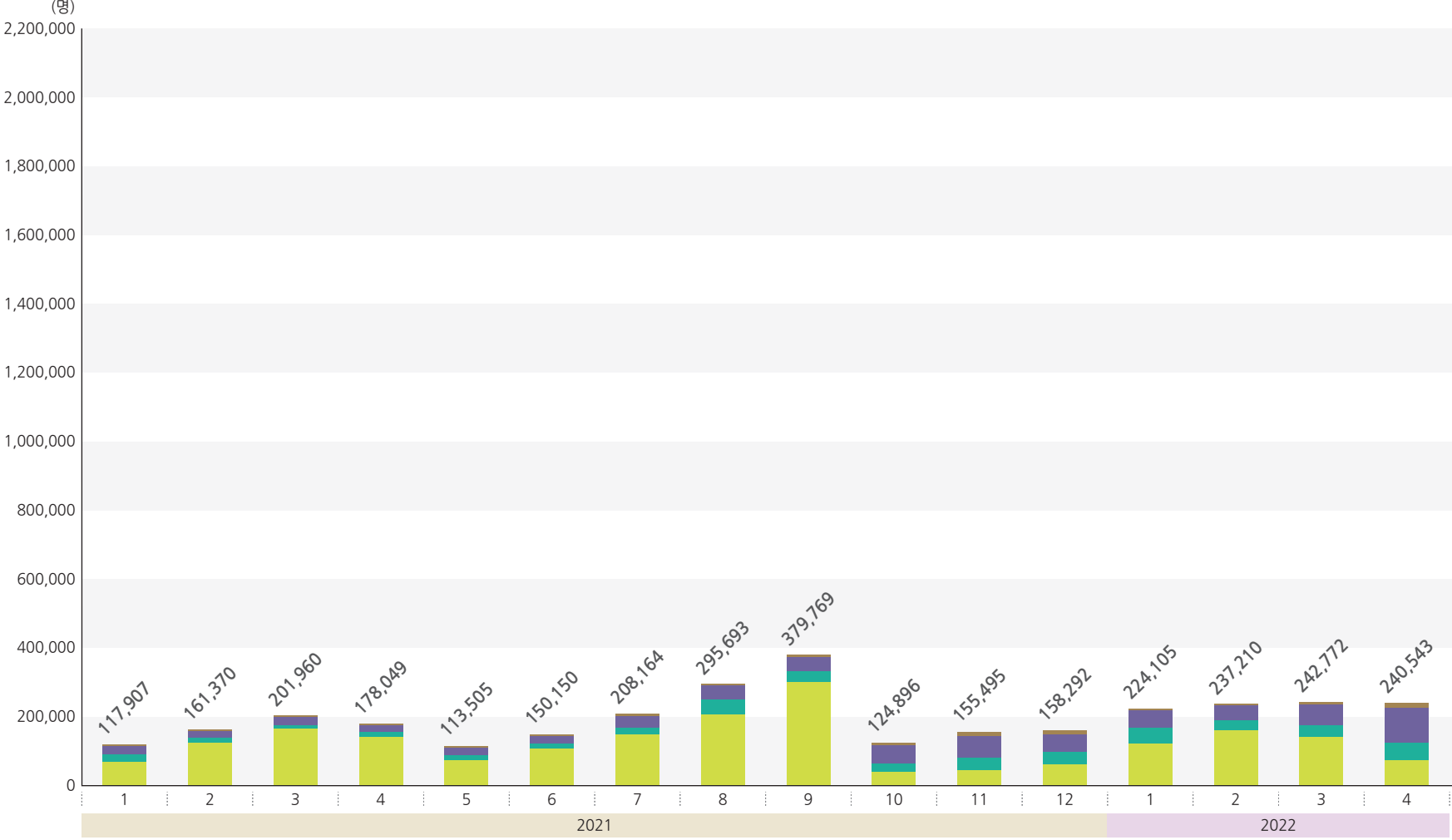
출입국

위의 그래프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체류 자격 중 상위 6개 자격의 10개년 추이를 보여 준다. 체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대체로 관광 통과(B-2), 단기 방문(C-3), 사증 면제(B-1), 재외 동포(F-4), 방문 취업(H-2), 유학(D-2) 순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하였다. 2023년 기준 체류 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수는 관광 통과 약 512만 명, 단기 방문 192만 명, 사증 면제 169만 명, 재외 동포 39만 명, 방문 취업 8만 명, 유학 25만 명이었다. 최근에는 취업보다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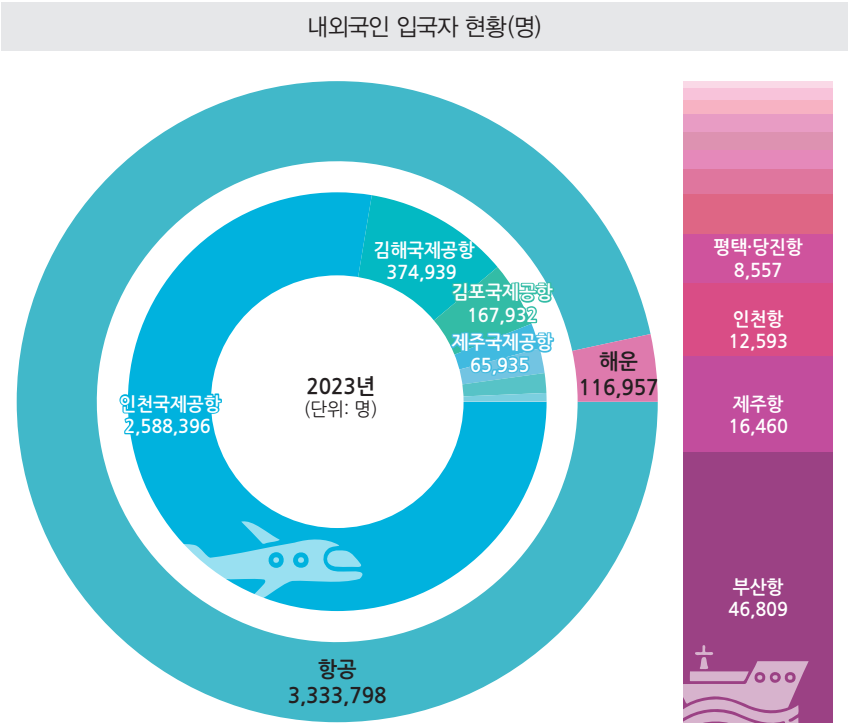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학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의 그래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내국인 연령대별 출국자 추이를 보여 준다. 내국인은 2021년 1월에는 5만 명, 2023년 7월에는 203만 명이 출국하여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된 내국인 출국 연령층은 중장년층으로 내국인 출국자 중 가장 활발하게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그 뒤를 이어 청년층, 노년층, 유소년층의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은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와 시간적, 금전적 여유에 의해 활발한 이동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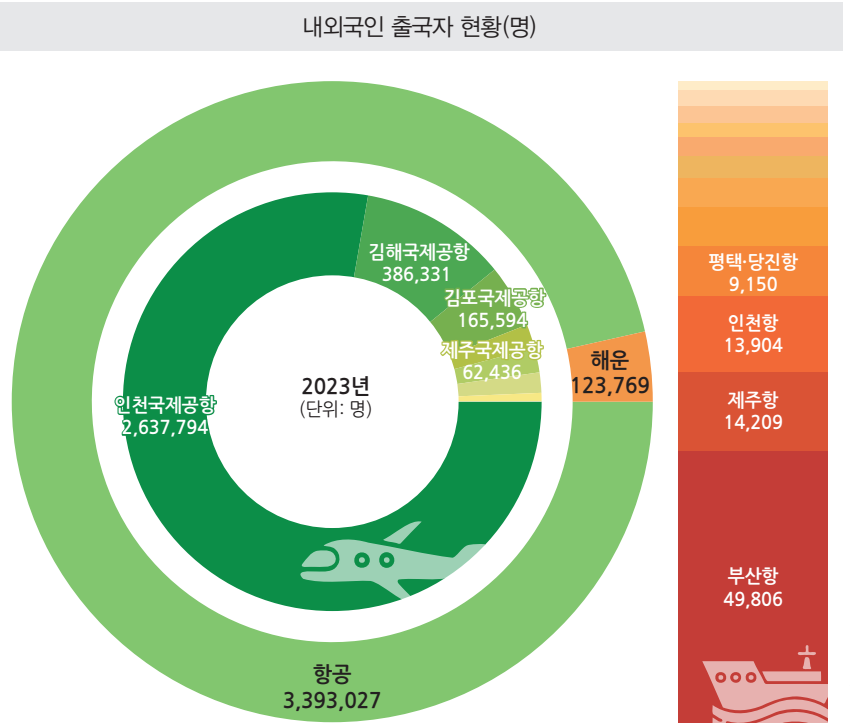
내국인 연령대별 출국자 추이



교통수단별 출입국자 현황



위의 그래프는 2023년 12월 내외국인의 출입국 교통수단을 보여 준다. 입국 시 약 333만 명의 내외국인은 항공을 통해, 11만 명은 항구를 통해 입국하였다. 출국 시 약 339만 명의 내외국인은 항공을 통해, 12만 명은 항구를 통해 출국하였다. 내외국인 모두 출입국 시 항공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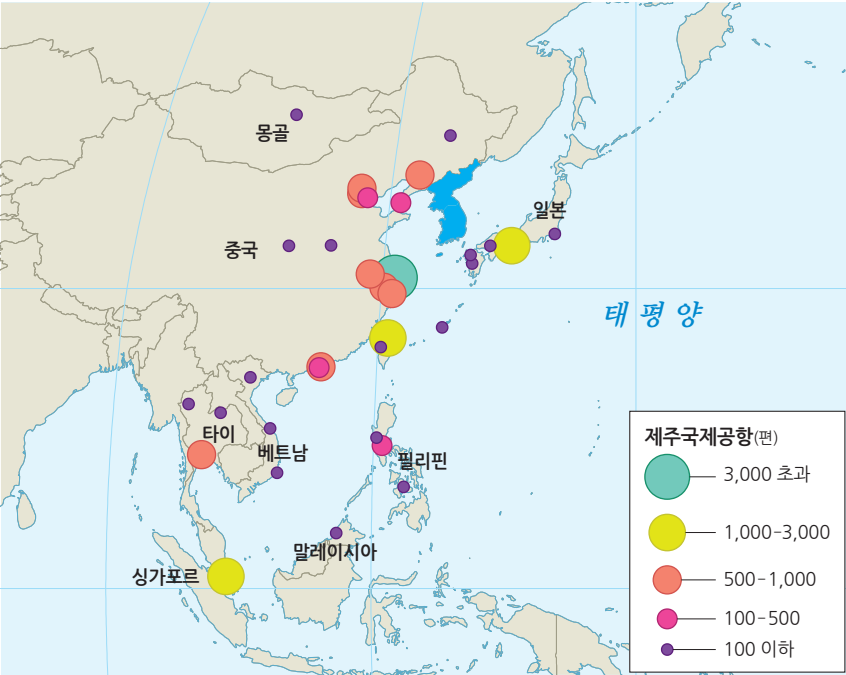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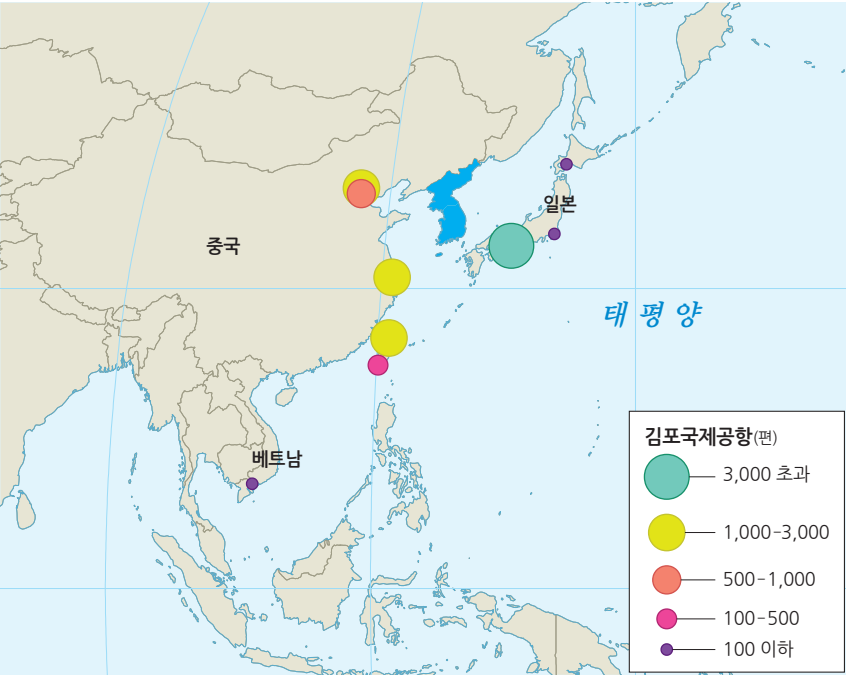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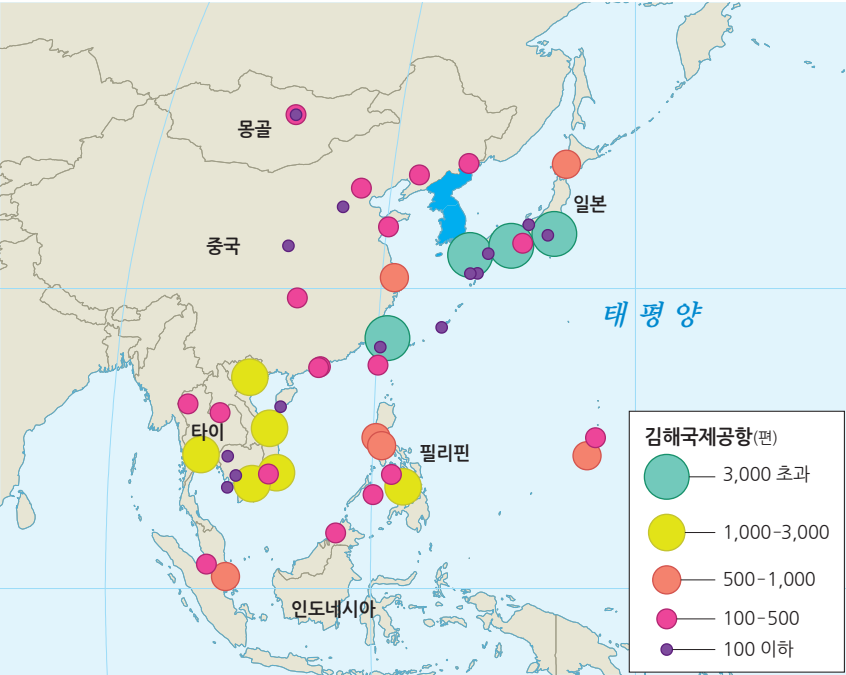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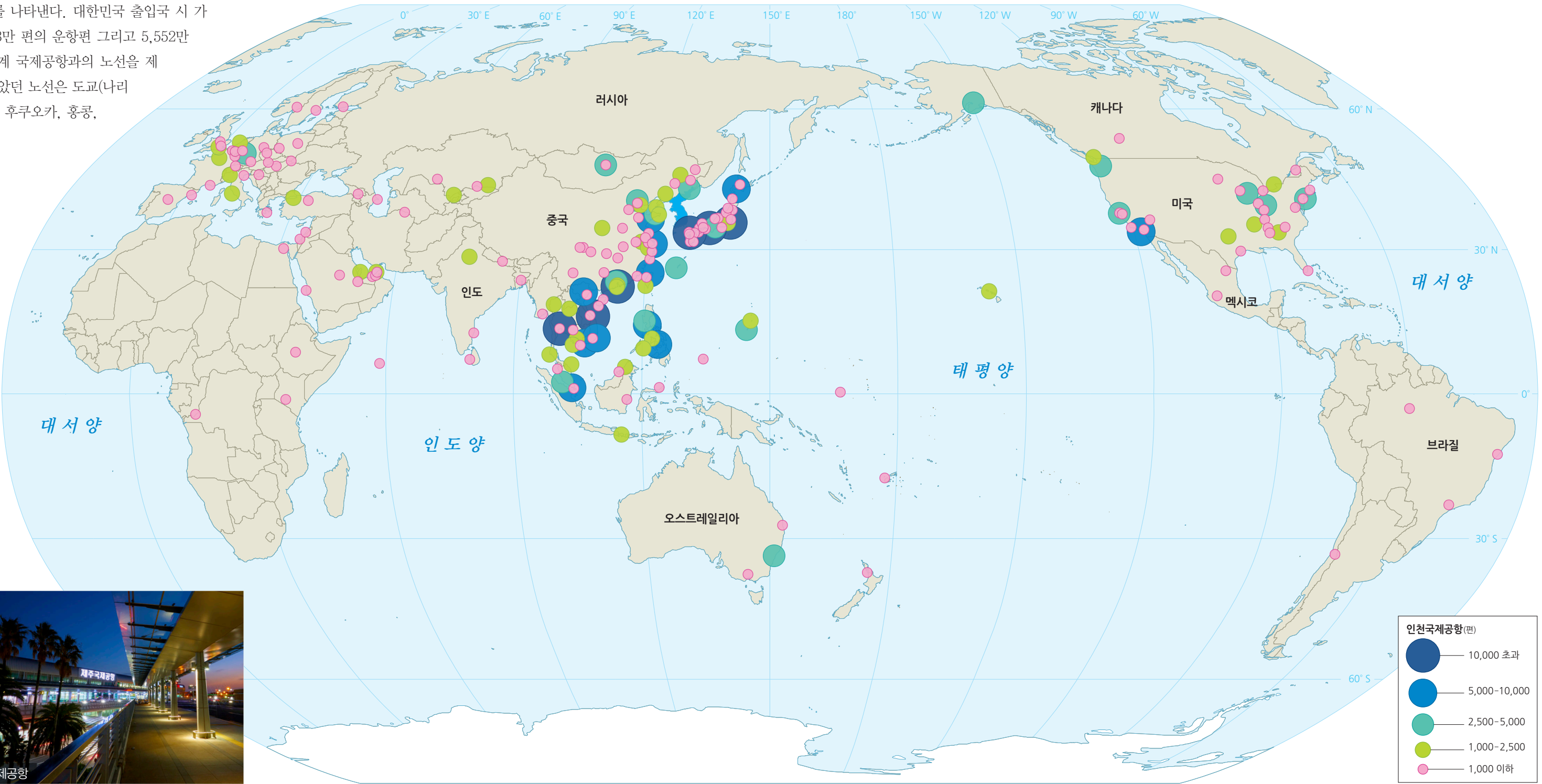


하였다. 내외국인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주된 출입국 경로로 활용하였다.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항만을 통해 출입하는 경우 대부분 부산항을 통하고 있으며, 제주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순으로 높았다.

지도는 주된 출입국 교통수단인 항공 중 상위 4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에 대한 2023년 출국 항공편 수 정보를 나타낸다. 대한민국 출입국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천국제공항은 약 215개의 국외 노선, 33만 편의 운항편 그리고 5,552만 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다수의 세계 국제공항과의 노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용객 또한 가장 많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도쿄(나리타)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오사카(간사이), 후쿠오카, 홍콩,



상위 4개 공항 노선별 운항편 수 현황



방콕, 다낭 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았던 김해국제공항은 약 50개의 국외 노선, 4만 편의 운항편 그리고 649만 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노선이 대부분이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후쿠오카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오사카(간사이), 타이베이, 도쿄(나리타), 다낭, 방콕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김포국제공항은 약 10개의 국외 노선, 2만 편의 운항편과 320만 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은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과의 노선만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도쿄(하네다)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다음으로 오사카(간사이), 상하이(홍차오), 타이베이, 베이징 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제주국제공항은 약 35개의 국외 노선, 8천 편의 운항편과 119만 명의 여객이 이동하는 공항이다. 제주국제공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노선이 대부분이다. 가장 운항편이 많았던 노선은 상하이(푸둥)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이었으며, 다음으로 타이베이, 오사카(간사이), 싱가포르, 항저우, Ningbo 공항으로의 노선이 많았다.

외국인 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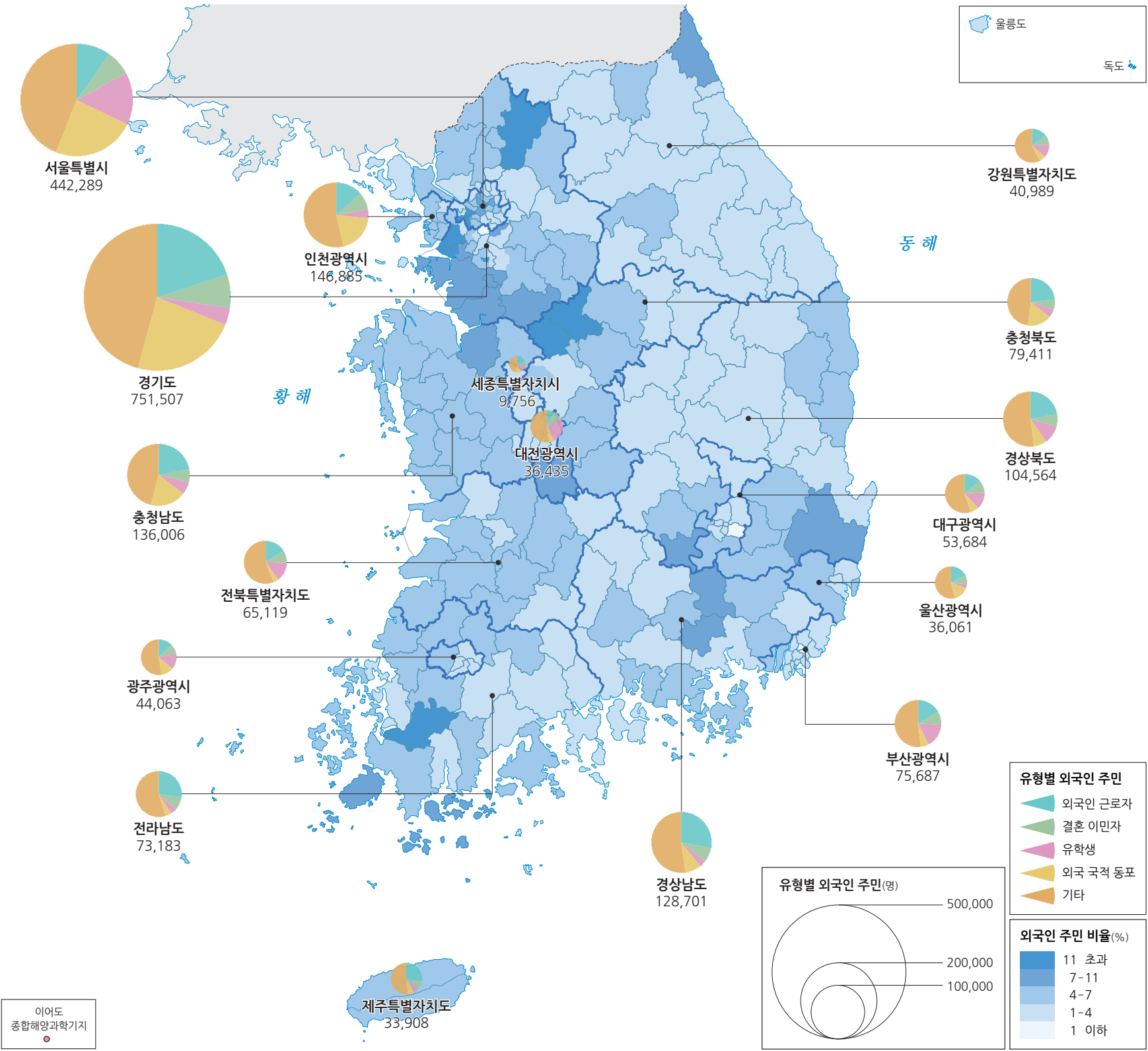
외국인 주민

2022년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외국인 주민이 1990년 약 6만 5천 명으로 0.15%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볼 때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 시군구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안산시, 음성군, 영암군, 진천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외국인 주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약 가장 많은 약 7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44만 명, 인천광역시 15만 명, 충청남도 14만

명, 경상남도 13만 명, 경상북도 10만 명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에 외국인 주민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전국 외국인 주민 중 절반이 넘는 59.4%가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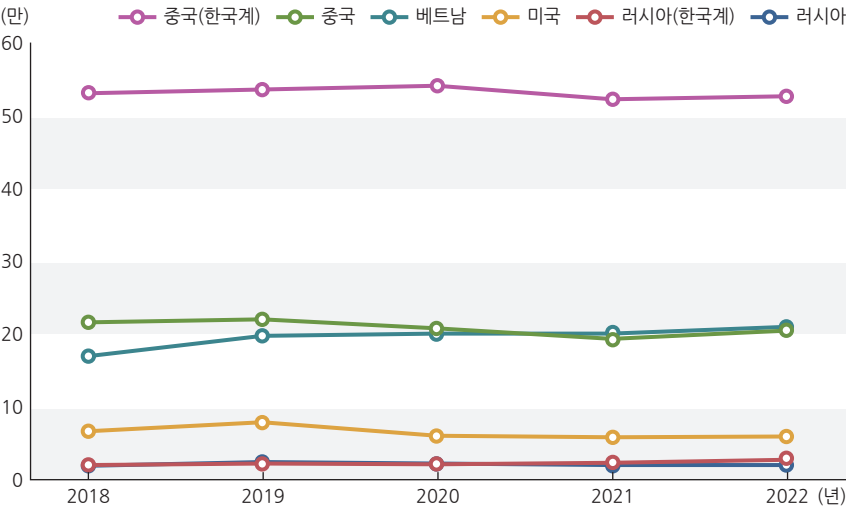
전국 외국인 주민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는 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전국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중국(한국계)은 2018년부터 약 53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 외국인인은 약 20만 명, 베트남은 2018년 약 17만 명에서 2022년 약 21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미국은 약 6만 명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한국계)는 2018년 약 1만 9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022년은 약 2만 6천 명으로 38% 증가했다. 러시아는 약 2만 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적별 외국인 주민 5개년 추이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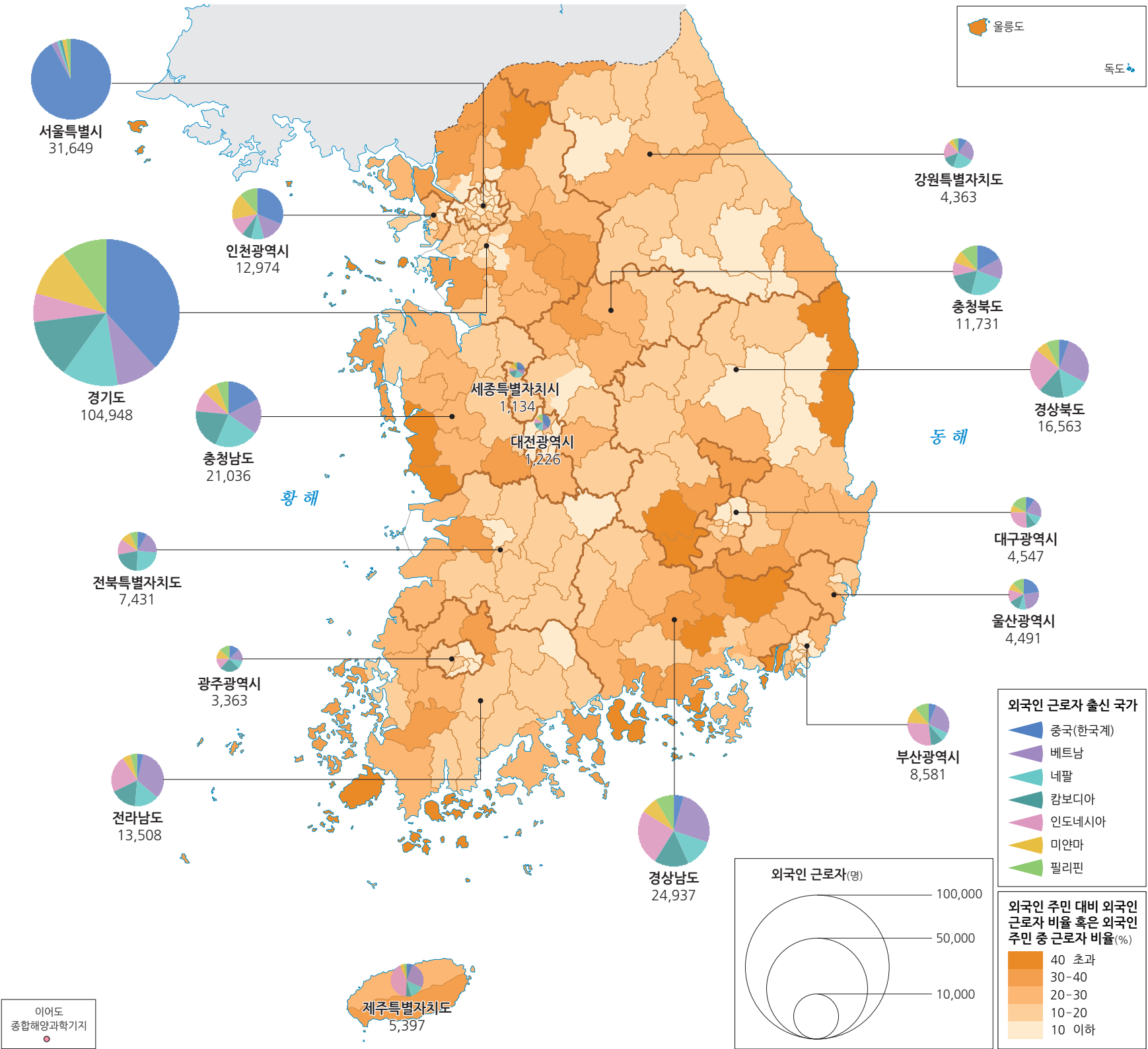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중 근로자로서 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2%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시군구별 외국인 주민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확인했을 때, 울진군, 완도군, 부산 강서구, 용진군, 진도군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울진군과 완도군의 경우 농·어업 종사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높은 지역들이며, 외국

인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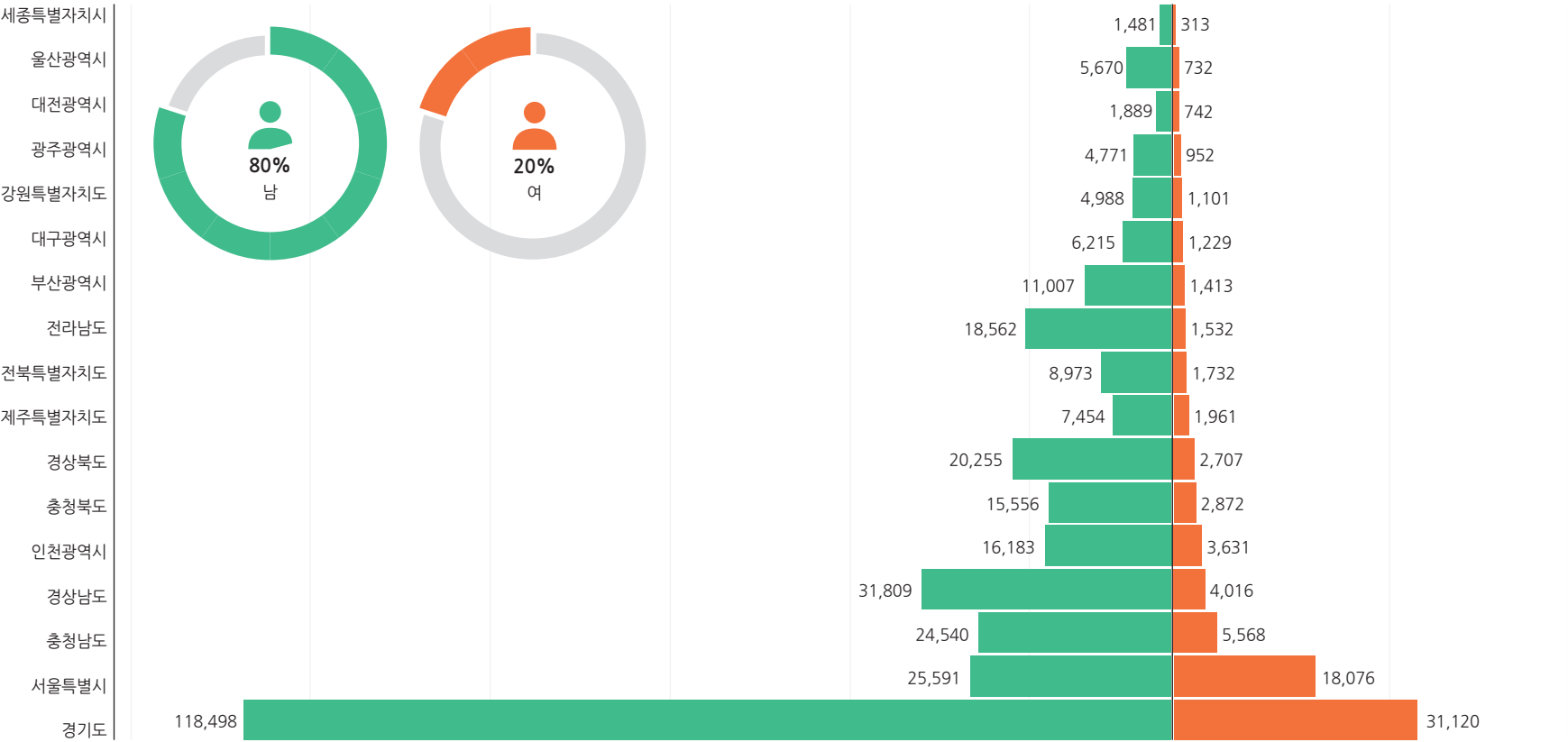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한국계),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국(한국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주로 거주하였다. 네팔과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충청남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많이 거주하였다.

전국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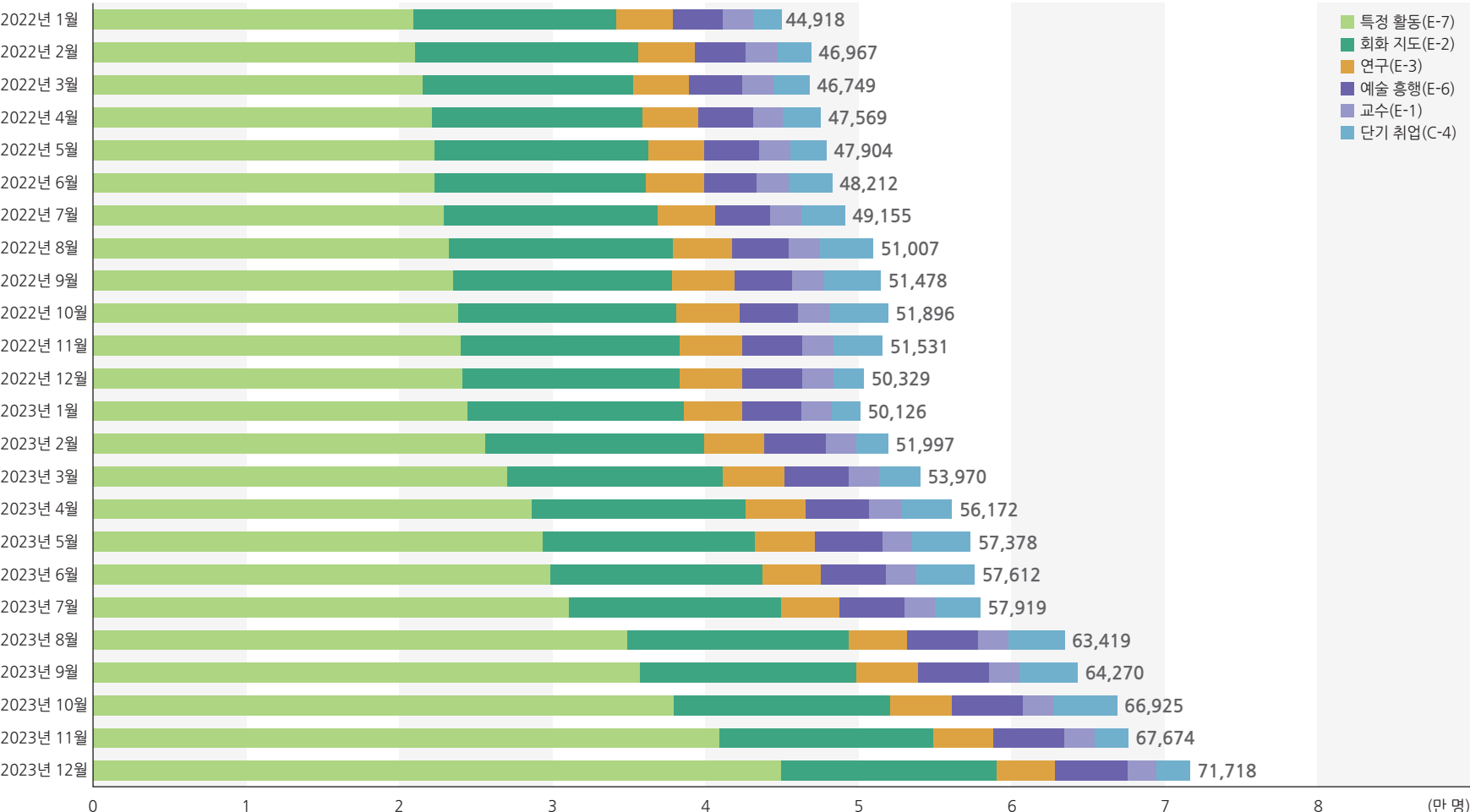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는 남성 인력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지역은 화성시, 김포시, 안산시 등으로 경기도 내 집중 거주지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활동(E-7), 회화 지도(E-2), 연구(E-3), 예술 흥행(E-6), 교수(E-1), 단기 취업(C-4) 등 전문 인력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추이를 확인하였을 때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 전문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성별 현황



취업 자격별 전문 인력 체류 외국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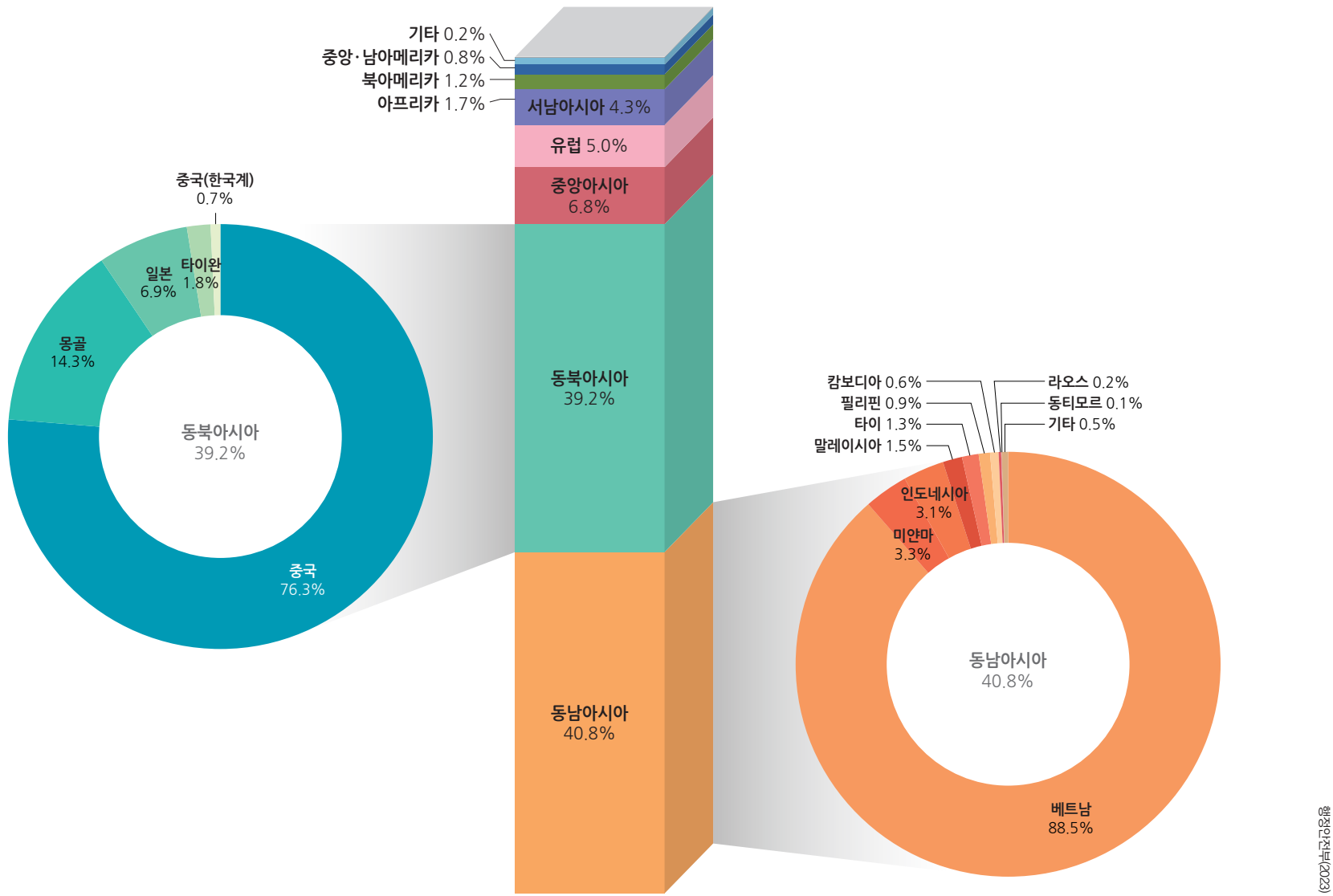
유학생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유학생 인구는 약 19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0%에 해당한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권역이 각각 42%, 40%로 높았고, 중앙아시아, 유럽,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국적을 지닌 유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많았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중국, 몽골, 일본, 타이완 순서로 많았다. 베트남 학생들은 약 7만 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37%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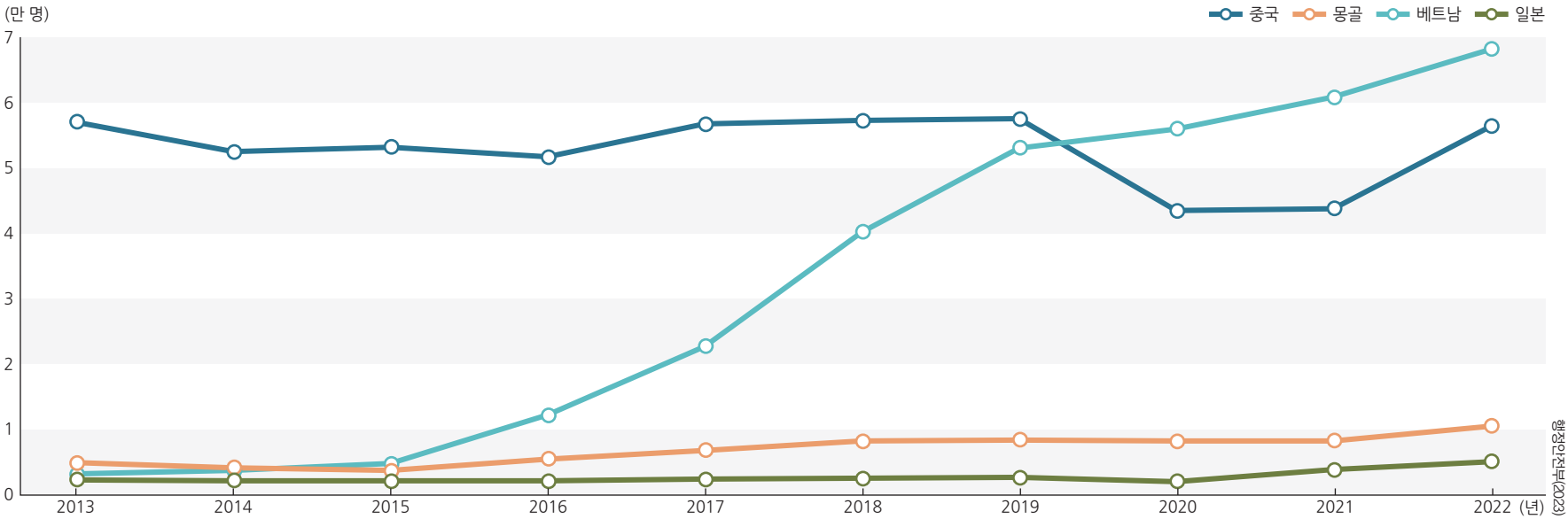
중국 유학생은 약 6만 명으로 30%를 차지했다.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4개국의 유학생 변화이다.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2013년 약 6만 명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소가 있었지만, 2022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2013년 약 3천 명이었으나, 2022년 약 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몽골, 일본 유학생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몽골은 2013년 약 5천 명에서 2022년 약 1만 명으로, 일본은 2013년 약 2천 명에서 2022년 약 5천 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유학생 국적별 현황



상위 4개국 유학생 10개년 추이



외국 국적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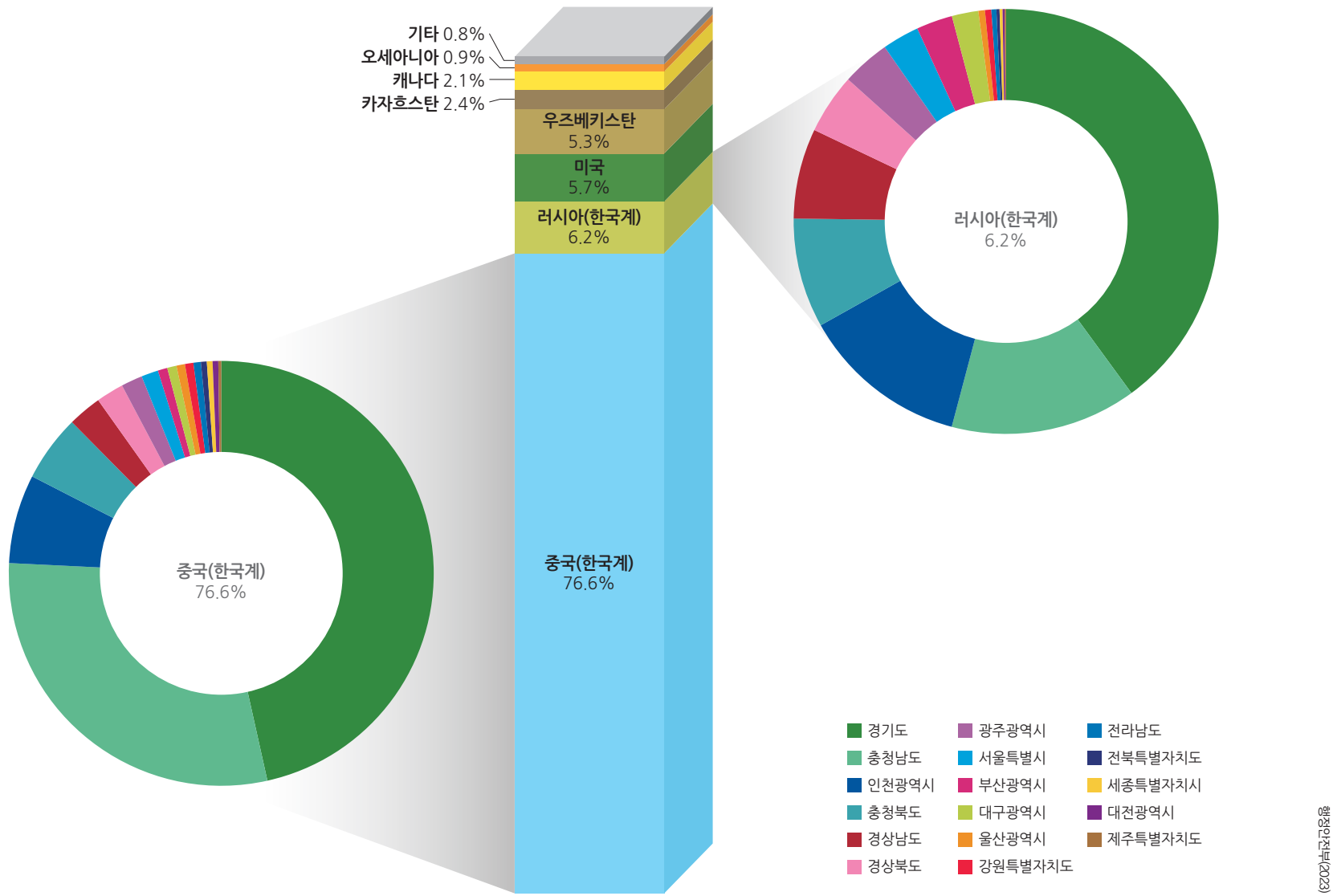
2022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외국 국적 동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3%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분포는 약 77%가 중국(한국계) 출신에 해당하며, 러시아(한국계) 출신 6%, 미국 출신 6%, 우즈베키스탄 출신 5% 등으로 구성된다.

외국 국적 동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한다. 그리고 러시아(한국계) 출신 외국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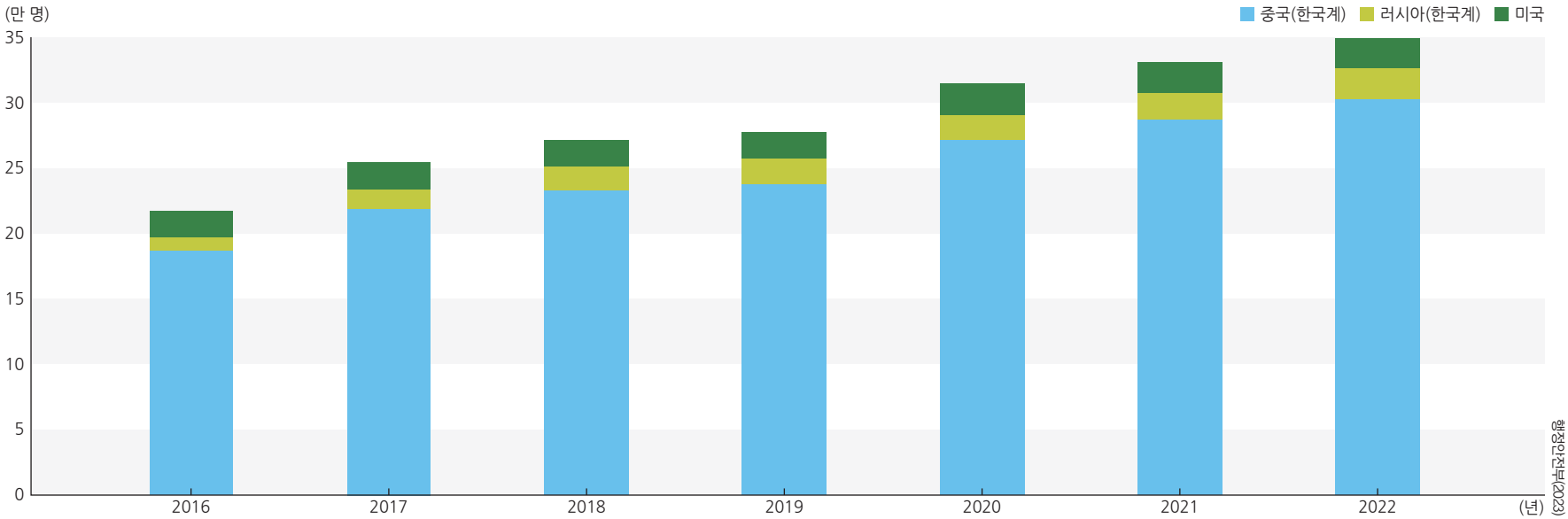
동포는 경기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등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프는 외국 국적 동포 출신 중 상위 3개에 대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 출신 외국 국적 동포는 2013년 약 19만 명에서 2022년 약 30만 명으로 약 11만 명이 증가했다.

전국 외국 국적 동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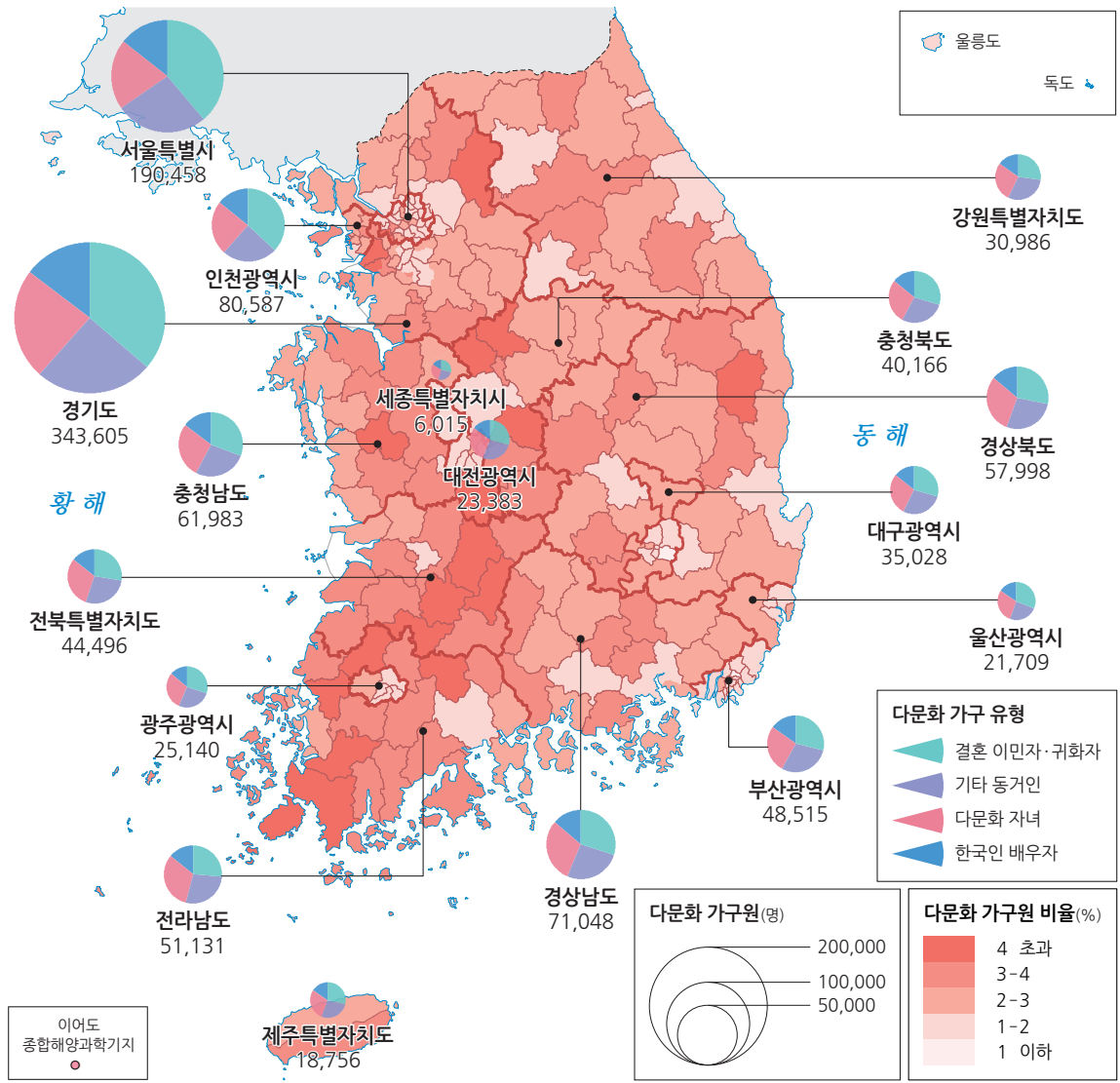


외국 국적 동포 출신 국가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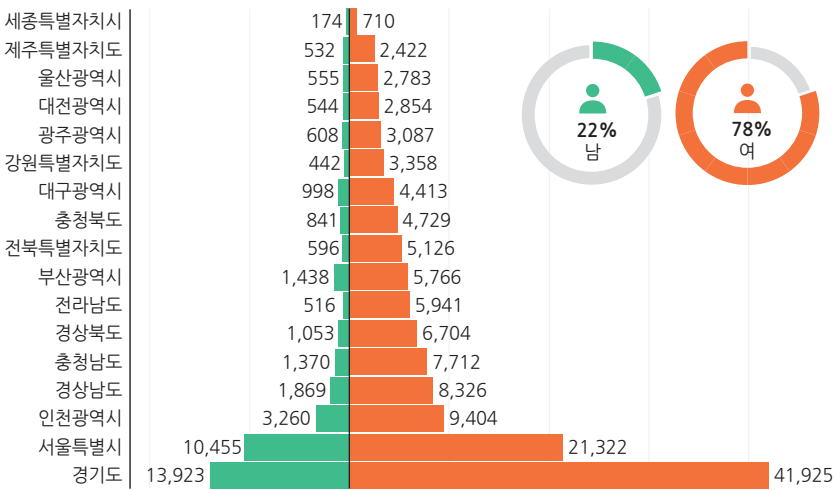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

전국 다문화 가구원 유형별 현황



시도별 결혼 이민자 성별 현황



결혼 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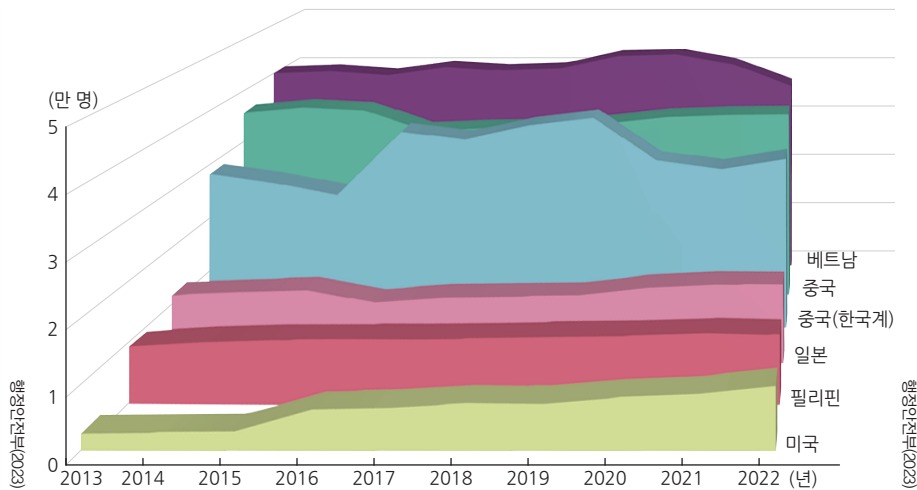
결혼 이민자는 가족 구성을 변화시켜 다문화 가정을 꾸릴 뿐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귀화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중요성이 크다. 그래프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시도별 결혼 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현황이다.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들은 약 17만 명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전체 결혼 이민자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으며, 36%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그래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결혼 이민자 출신 상위 6개국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약 115만 명에 달하며, 전체 총인구 대비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율이 전라남도에서 약 3%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순으로 나타났다. 더 세분화하여 시군구별 총인구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안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으로 다문화 가구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는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다문화 자녀, 기타 동거인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구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라남도의 경우 다문화 자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기타 동거인,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순이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다문화 자녀, 기타 동거인, 한국인 배우자 순이었다.

국적별 결혼 이민자 10개년 추이(상위 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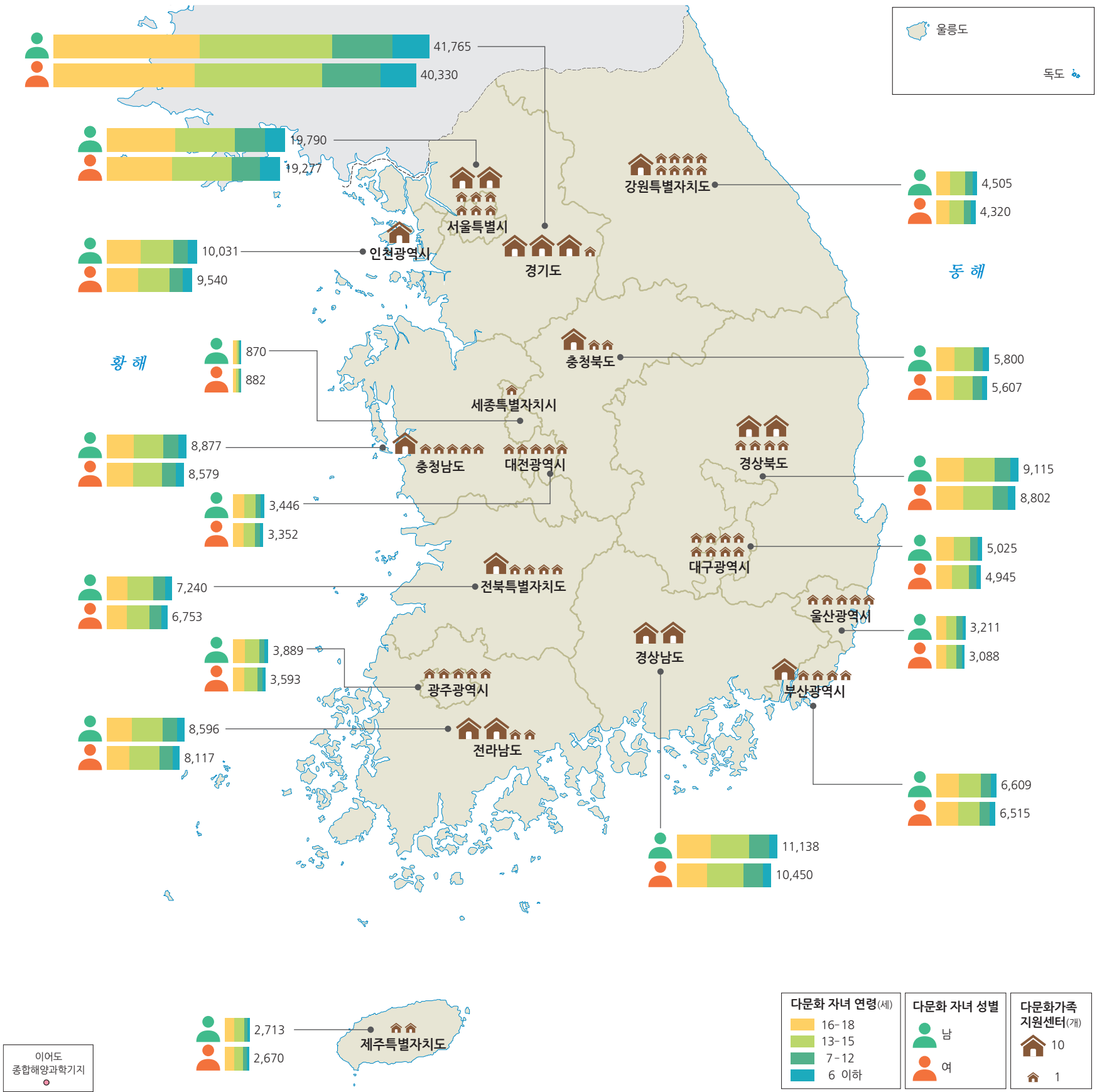


대한 추이이다. 2022년 결혼 이민자들의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 뒤로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필리핀, 미국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들은 약 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과 중국(한국계)은 약 3만 명, 일본과 필리핀, 미국은 약 1만 명이었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는 10개년 동안 가장 높은 수를 보였으며, 중국은 2015년과 2016년 사이 소폭 감소하는 시기를 제외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한국계)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일본과 필리핀은 일정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였으며, 미국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문화 자녀

2022년 전체 외국인 주민 자녀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이중 귀화자 및 외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입국한 사람은 약 2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하였다. 이들 외국인 주민 자녀의 성별 구성은 남성 51%, 여성 49%이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 약 27%, 서울특별시 13%, 경상남도 7%, 인천광역시 7%, 경상북도 6% 등으로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층별로는 초등학교 연령대(7~12세)가 37%,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연령대(13~15세)가 17%, 고등학교 연령대(16~18세)가 10%로 적지 않다. 2017년 취학 연령

전국 다문화 자녀 성별, 연령층별 현황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계 유산이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 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 유산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8건(북한 포함)의 세계 유산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16건, 자연유산이 2건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은 수도권(5건)과 경상북도(3건)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래 6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에는 왕릉, 궁궐, 유교 사당 등이 많다. 또한 수원에는 화성이, 경기도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 유적 지구가 있어 신라의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 마을인 경주 양동 마을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 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씨족 마을이면서 양반 마을인 안동 하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지역에 2건(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유적 지구), 경상남도 2건(해인사 장경판전, 가야 고분군), 전라남·북도 1건(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특별자치도에 1건(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성산 일출봉 옹화구 3개 지구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충청도·전라도에 2건(백제 역사 유적 지구, 한국의 갯벌), 경상도·전라도·충청도(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한국의 서원)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세계 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덤군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덤 군에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군, 고구려 시대의 적석총, 신라와 조선 시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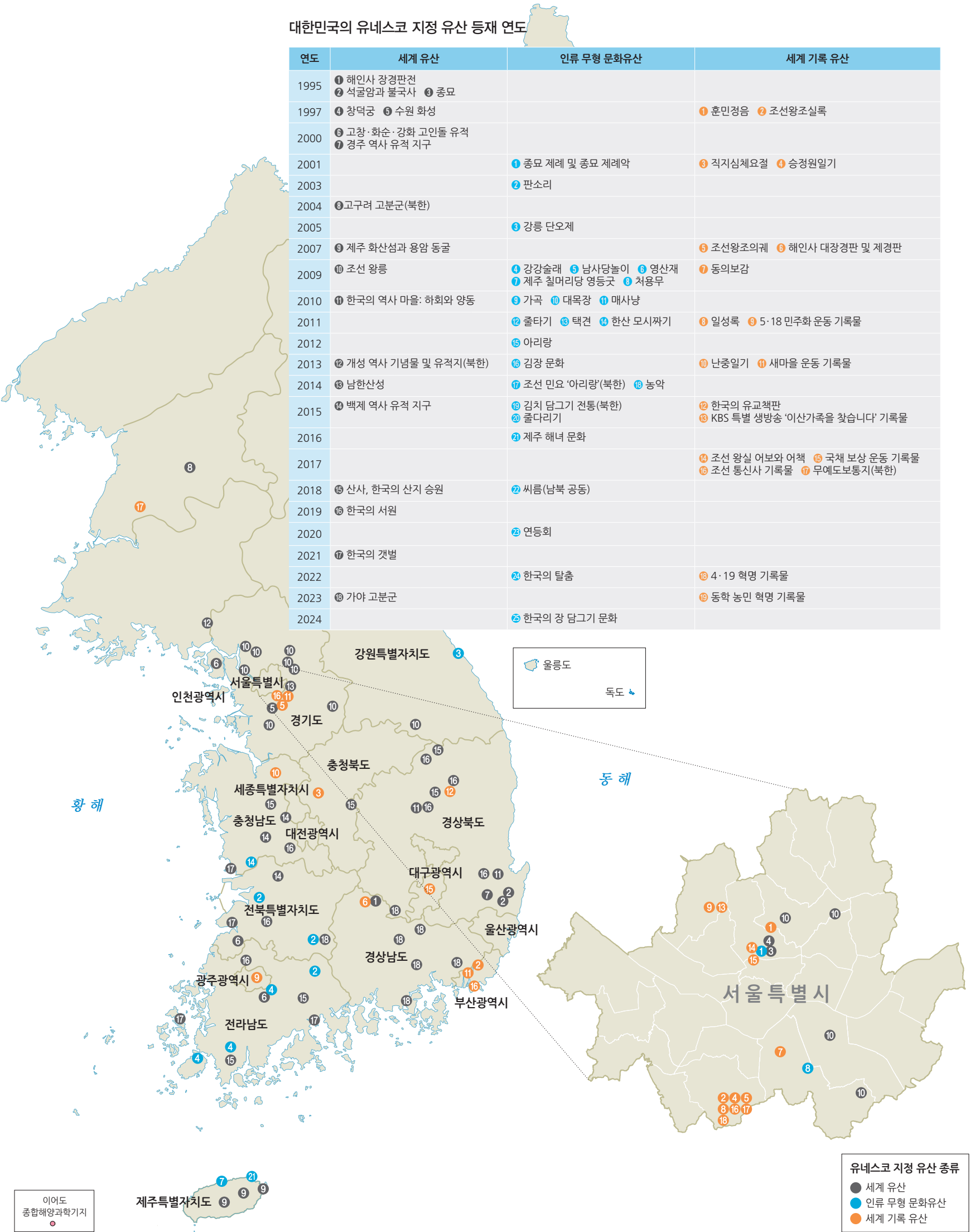
왕릉이 포함된다. 2023년에는 가야 고분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무덤에는 당대의 세계관과 장례 전통, 제례 전통이 깃들어 있다.

무덤과 더불어 건축물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목조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은 실내의 통풍, 방습, 온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대장경을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건축물과 기념물, 유적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곽은 경기도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은 북쪽의 개성, 서쪽의 강화와 함께 네 방위에서 왕도를 방위하던 성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축성술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을 간직한 역사 마을과 종묘 같은 건축물이 있다. 역사 마을인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유교적인 전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는 유산으로, 한국의 다양한 불교 신앙이 산사의 역사적 구조물과 전각, 유물, 문서 등에 잘 남아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 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고 구현한 곳으로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하는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가 남아있다. 종묘에는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왕가를 기리는 의례와 음악, 무용 등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그리고 한국의 갯벌로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순천갯벌의 네 곳이 지정되어 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



세계 유산



1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등재, 장경판전 외관)
경상남도 함천군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 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형의 통풍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2 석굴암과 불국사 (1995년 등재,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의 석굴암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고도(古都)인 경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적 열정,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기념비적인 사원이다.



3 종묘 (1995년 등재,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는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물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칠사당 등이 있다.



4 창덕궁 (1997년 등재, 인정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재건하였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펴 온 법궁이었다.



5 수원 화성 (1997년 등재,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축성된 평산성이다. 도성 남쪽을 방위하는 기능과 함께 성내의 행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 철학과 서양 건축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성곽이다.



6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정치 체제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7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0년 등재, 일월지동경)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은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 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능원 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지구,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인 안성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8 고구려 고분군 (2004년 등재, 동명왕릉)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군이다. 63기의 무덤이 대동강 하류 양안의 넓은 범위에 걸쳐 8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의 양식이나 내부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



9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히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뽕뒤굴), 바다에서 솟아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요새 모양의 성산 일출봉 응회구 그리고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수많은 오름 등이 있는 한라산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준다.



10 조선 왕릉 (2009년 등재, 동구릉 중 건원릉)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조선 왕릉은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시내(정릉·현인릉·선정릉·태강릉·의릉), 서울 동쪽(동구릉·흥유릉·광릉·사릉·영녕릉), 서울 서쪽(서오릉·서삼릉·운릉·파주 삼릉·파주 장릉·김포 장릉), 서울 남쪽(응건릉),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장릉)에 나뉘어 있다.



11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영동 (2010년 등재, 하회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14~15세기에 조성된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씨족 마을이다. 조선 초기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지와 배치가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 양반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낙동강이 'S' 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된 안동 하회 마을은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양반과 서민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경주 양동 마을은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길이 아름답다.



12 개성 역사 유적 지구 (2013년 등재, 왕건릉)
황해도 개성시
개성 역사 유적 지구는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개성 첨성대, 만월대, 고려 성균관, 송양 서원, 선죽교, 표충사 및 왕건릉, 공민왕릉, 명릉 등 7개의 능이 분포하고 있다.



13 남한산성 (2014년 등재, 성곽 남문)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은 조선 시대의 왕도를 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14 백제 역사 유적 지구 (2015년 등재, 공산성)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백제의 유적은 중국, 일본 등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 역사 유적은 중국의 도시 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한 증거를 보여 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한다.



15 신사, 한국의 신지 승원 (2016년 등재)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신사, 한국의 신지 승원'은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7개 불교 사찰(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로 구성되어 있다. 7~9세기에 창건된 이 사찰들은 신앙과 영적 수행, 승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16 한국의 서원 (2019년 등재)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한국의 서원은 조선 시대 성리학 교육 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소수서원, 병산서원 등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17 한국의 갯벌 (2021년 등재)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한국의 갯벌은 황해의 동쪽이자 대한민국의 서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의 4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산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다.



18 가야 고분군 (2023년 등재)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가야 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이다. 가야 고분군은 고분의 지리적 분포, 입지, 묘제의 변화, 부장품 등을 통해 가야 문화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가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세계 유산이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과 자연, 역사의 상호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 예술과 문화

적 표현을 아우른다.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 현재까지 23건이 등재되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



1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 (2001년 등재)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제향 의식과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말한다.



2 판소리 (2003년 등재)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 말, 몸짓을 섞어 가며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다.



3 강릉 단오제 (2005년 등재)

단오 전후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방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서낭신에게 굿을 올리며 각종 민속놀이도 한다.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년 등재)

제주 칠머리당에서 해녀들이 영등 할머니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8 처용무 (2009년 등재)

처용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궁중 무용에서 처용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9 가곡 (2010년 등재)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이다.



13 태권 (2011년 등재)

유연한 동작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14 한산 모시짜기 (2011년 등재)

충청남도 한산 지역에서 모시물을 재료로 삼아 직물을 짜는 일을 말한다.



15 아리랑 (2012년 등재) 17 아리랑 민요(북한) (2014년 등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남한에서는 정선과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위시한 전역에 구전 아리랑이 존재한다.



16 김장 문화 (2013년 등재) 19 김치 담그기 전통 (북한) (2019년 등재)

김장은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김치 담그기는 한민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음식 전통 중 하나이다. 겨울 한 철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김장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김치 담그기의 노하우와 재료 등에 관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가족과 마을, 공동체 사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돈독하게 한다.



18 농악 (2014년 등재)

농악은 집단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에 흥을 돋우기 위한, 악기가 곁들여진 춤과 노래이다.



20 줄다리기 (2015년 등재,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볼 수 있다.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경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행사이다.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식이나 의례가 5건, 놀이 6건, 노래 4건이 주를 이루



4 강강술래 (2009년 등재)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방방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10 대목장 (2010년 등재)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한다. 또한 궁궐, 사찰,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21 제주 해녀 문화 (2016년 등재)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이다. 또한 '제주 해녀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자위 향상에 기여해 왔고, 생태 친화적인 어로 활동과 공동체에 의한 어업 관리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24 한국의 탈춤 (2022년 등재)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다. 탈을 쓴 연행자가 춤과 노래 그리고 행동과 말을 극적으로 조합해 사회 문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6~10명의 악사가 이들을 따른다. 탈춤은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며 보편적 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제의 모순을 비판한다.



5 남사당놀이 (2009년 등재)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가 농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는 놀이를 말한다.



6 영산재 (2009년 등재)

영산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불교에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11 매사냥 (2010년 등재)

매사냥은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꿩이나 작은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12 줄타기 (2011년 등재)

줄광대나 줄꾼이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놀이이다.



22 씨름 (남북 공동) (2018년 등재)

두 선수가 허리와 한쪽 허벅지에 살바를 두른 채 상대의 살바를 잡고 여러 기술을 이용해 반대편 선수를 쓰러뜨리는 대중적인 놀이이다. 살바를 사용하는 점, 승자에게 풍년을 상징하는 황소를 수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도 큰 의미가 있다.



23 연등회 (2020년 등재)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초파일)이 가까워지면 대한민국 전역에 소망을 담아 만든 등을 밝히고 장대한 행렬을 이루어 거리를 행진하는 의식이자 축제이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의식이었으나 현재는 인종, 세대, 종교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불철 축제이다.



25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2024년 등재)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하고, 장을 만드는 공동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하는 문화이다.

세계 기록 유산

세계 기록 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세계 기록 유산에는 책,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유산이 포함된다.

① 훈민정음 (1997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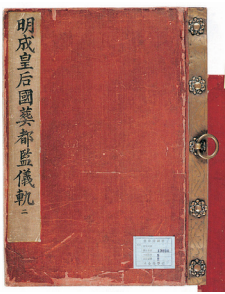
국보 제70호, 서울특별시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 낸 판각 원본이다.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이고,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② 조선왕조실록 (1997년 등재)



국보 제15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동서양의 정세와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③ 조선왕조의궤 (200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주요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 내고 있는 보고서이다. 조선 시대 600년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④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諸)경판 (2007년 등재)



국보 제32호, 합천군 해인사 소장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어 '고려 대장경'이라고도 하며, 대장경 판수가 8만 여 개에 이르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1년 등재)



국가기록원, 육군 본부, 5·18 기념 재단, 광주광역시청 소장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 시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 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⑥ 난중일기 (2013년 등재)



국보 제76호,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는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에 군중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시작부터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⑦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9년 등재)



한국방송공사(KBS), 국가기록원, 한국궐립조사연구소 소장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한 내용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이 방송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⑧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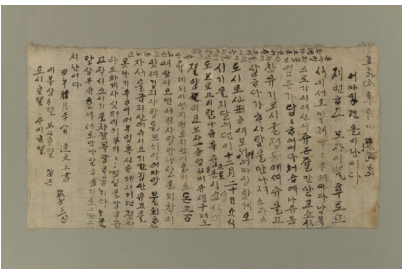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와 어책은 금·은·옥에 아름다운 명칭을 새긴 어보,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 주는 글을 쓴 교령, 아름다운 명칭을 수여하는 글을 새긴 옥책과 죽책, 금동판에 책봉하는 내용을 새긴 금책 등이다. 이들은 현재의 왕에게는 정통성을, 사후에는 권위를 보장하는 성물로 숭배되었다.

⑨ 무예도보통지(북한) (2017년 등재)



평양직할시 인민대학습당,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80년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의 명을 받아 편찬된 이 책은 태권도의 근원에 해당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를 도해와 함께 설명한 종합 무예서이다. 또한 동아시아 무예의 바탕인 중국의 무예나 일본의 무예도 함께 수록하여 무예의 요람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우월성을 자랑하는 동아시아 무예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⑩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2023년 등재)



국립고궁박물관 등 소장
동학 농민 혁명 기록물은 1894~1895년 조선에서 발발한 동학 농민 혁명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동학 농민 혁명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당하여 기록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기록물 가운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난중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동의보감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조선왕조의궤,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새마을

⑪ 직지심체요절 (2001년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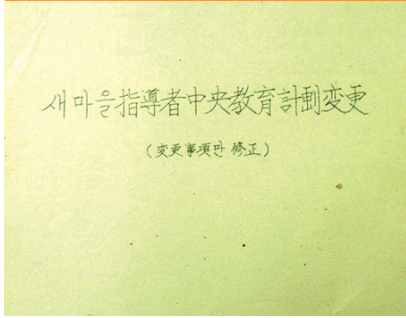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심견성성불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⑫ 동의보감 (2009년 등재)



보물 제1085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 허준(1539~1615)이 집필하여 1610년(광해군 3년)에 완성하고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책이다.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서'이다.

⑬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3년 등재)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과 결재 문서, 사진, 영상 등 약 22,000여 건의 자료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발전의 한 모델이자 민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이다.

⑭ 국제 보상 운동 기록물 (2017년 등재)



한국금융사박물관 등 소장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은 피식민지 국가에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우고 그것을 빌미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동원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외채로 인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제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외채로 시달리는 다른 피식민지국에 큰 자극이 되었다.

⑮ 4·19 혁명 기록물(2023년 등재)



국가기록원 등 소장
4·19 혁명 기록물은 1960년 4월 19일 한국에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시민 혁명 자료를 말한다. 1960년 2·28 대구 학생 시위부터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까지의 전후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이다.

운동 기록물은 여러 장소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고종 때 국외로 유출되어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2017년에 등재된 '무예도보통지'가 있다. 이는 평양직할시와 서울특별시에 보관되어 있다.

⑯ 승정원일기 (2001년 등재)



국보 제30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승정원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6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⑰ 일성록 (2011년 등재)



국보 제15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년)에서 1910년(융희 4년)까지 151년 동안 국정 운영 내용을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⑱ 한국의 유교책판 (2019년 등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은 조선 시대에 718종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종과 서원에서 기탁한 총 64,226장으로 되어 있다. 유교책판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모두 지식인 계층의 여론에 의해 제작된 점, 공동체 출판 방식으로 제작된 점, 550년 동안 지속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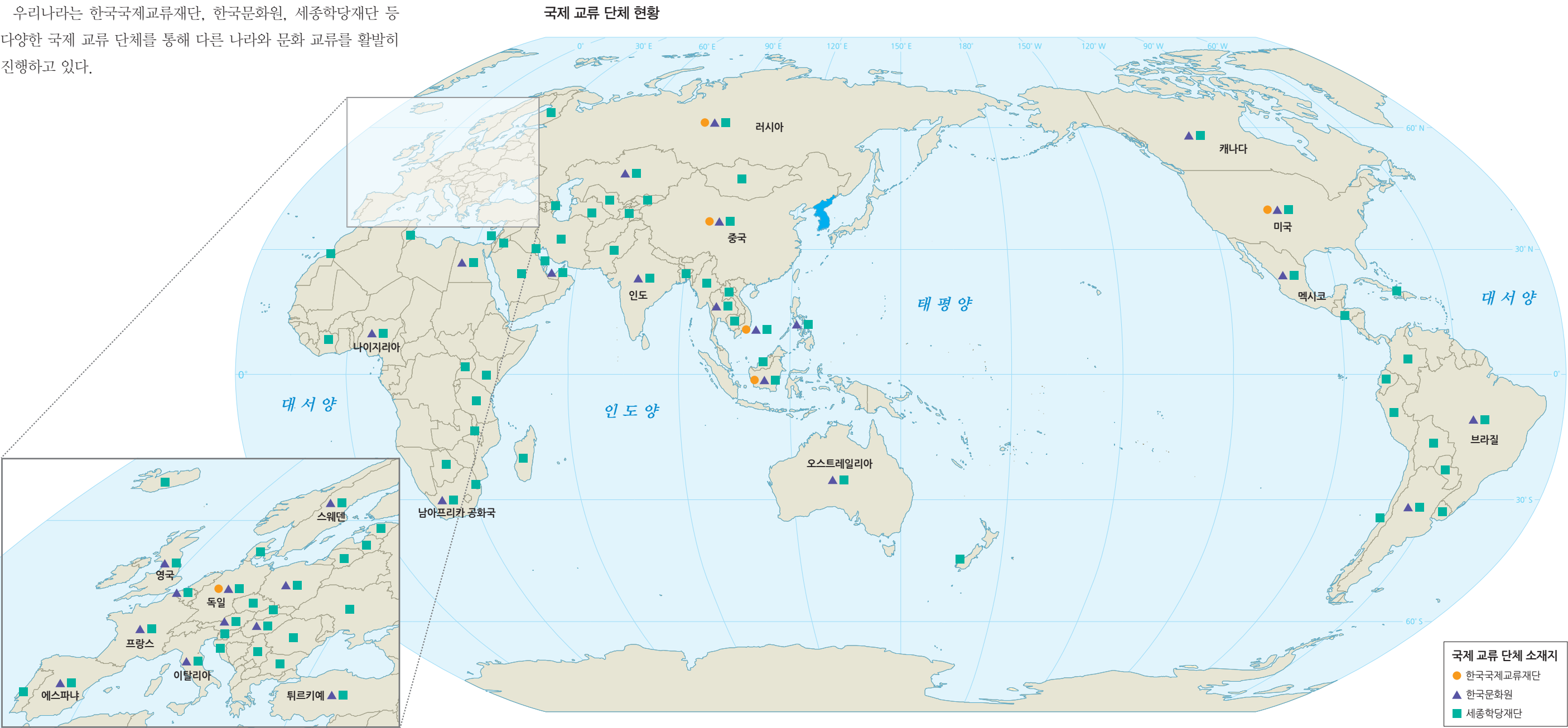
⑲ 조선 통신사 기록물 (201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 소장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12회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외교 사절단의 외교, 여정, 문화 교류에 관한 자료들이다. 평화 공존과 타 문화를 존중하는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국제 교류

우리나라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 등 다양한 국제 교류 단체를 통해 다른 나라와 문화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991년에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은 한국의 문화, 학술, 인적 교류를 통해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이다. 세계 7개국(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에 총 8개의 해외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문화 행사 및 공연 기획, 공공 외교 활동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2023년 기준, 해당 재단은 해외 대학 한국학과에 누적 161석의 교수직을 설치했으며, 누적 12,254명의 학자들의 한국 연구를 지원했다.

또, 누적 185건의 해외 박물관 한국 관련 전시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s)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립되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인들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현재 30개국 35개의 한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 공연, 영화 상영, 한글 교육, 한국 요리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지인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학당재단(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은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다. 세종학당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5개국에 248개소가 있으며, 2022년 수강생은 117,636명이었다. 세종학당을 통해 국외로 파견되는 한국어 교원도 2012년(11개국 14개소)에서 2022년(61개국 133개소)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루마니아에서 한국 퓨전 국악 순회 공연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멜버른 한국 전통 타악 공연

세종학당재단



프랑스 한국 문화(한지 공예) 체험 일일 교실

한국문화원



타이 치앙마이대학교의 굴렁쇠 체험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화원 K-POP 아카데미의 소고춤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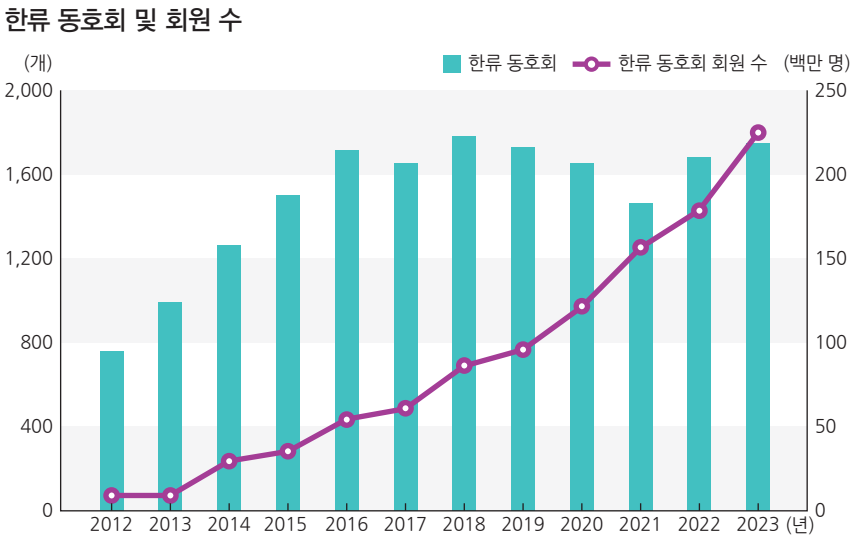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의 태권도 강좌



타이완 타이난 세종학당 서예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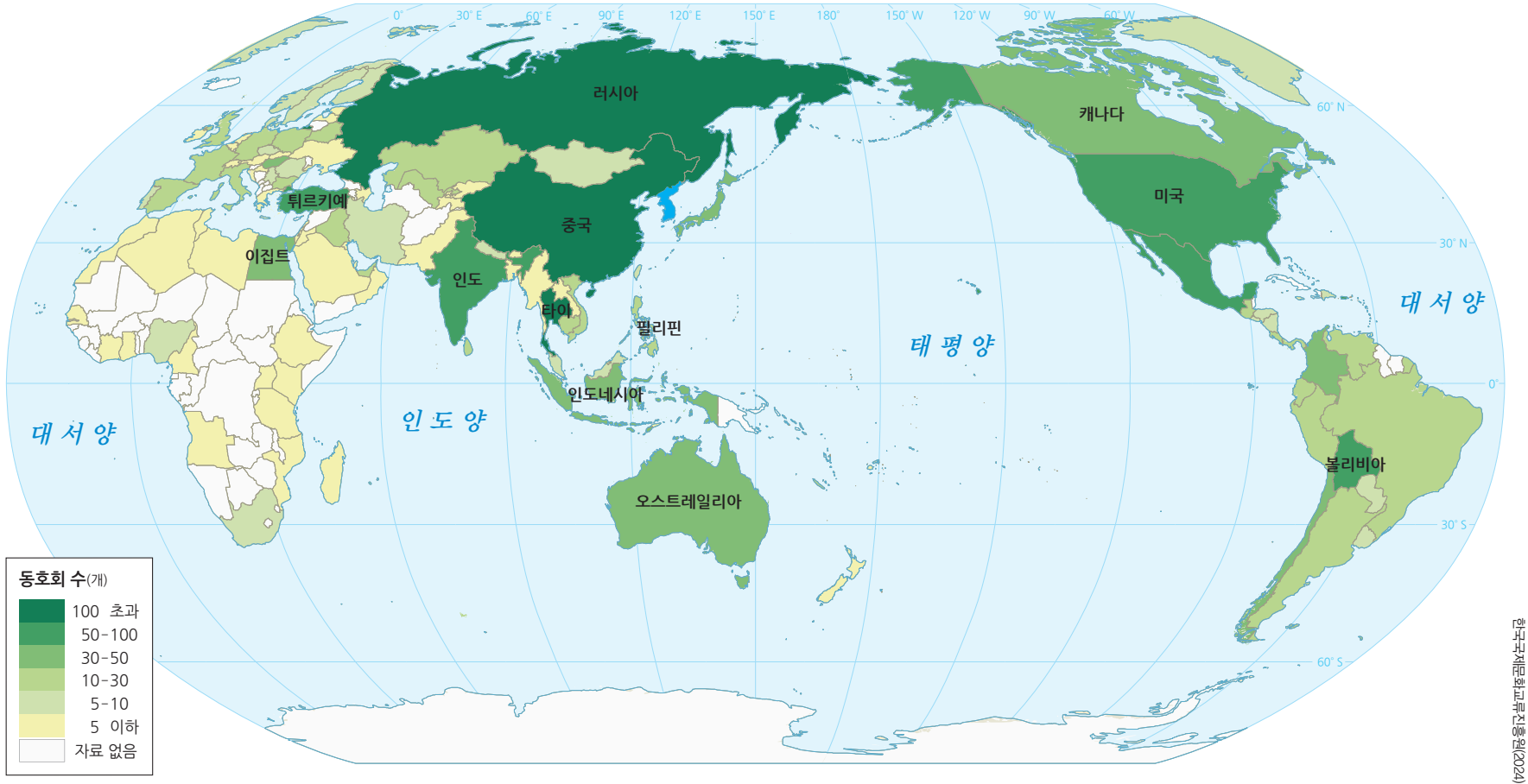
한류

한류(韓流)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한 확산 현상으로, 전 세계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이 용어는 처음에는 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영화, 패션, 미용, 음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2023년 기준, 114개 국가에 총 1,748개의 한류 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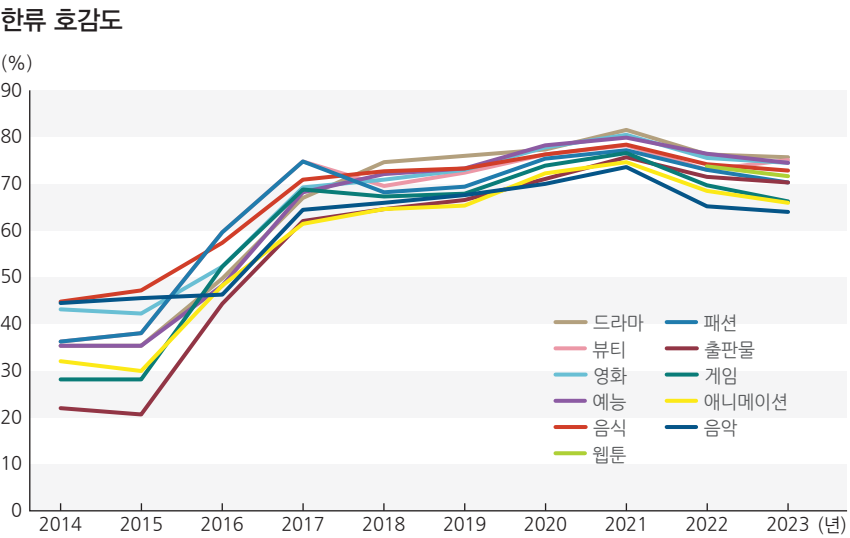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4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 뷰티, 영화, 예능, 음식 등의 순서로 한류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 최초 연상 이미지는 최근 7년 연속 K-POP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한식, 드라마, IT 제품, 뷰티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중, K-POP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음악 경험자의 1인당 월평균 한국 음악 이용 시간은 11.4시간이었으며, 이용 시간이 많은 인도와 타이에서는 월 20시간 가까이 한국 음악을 들었다. K-POP 가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유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UN 총회에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표하여 연설하며 세계 청년들

한류 동호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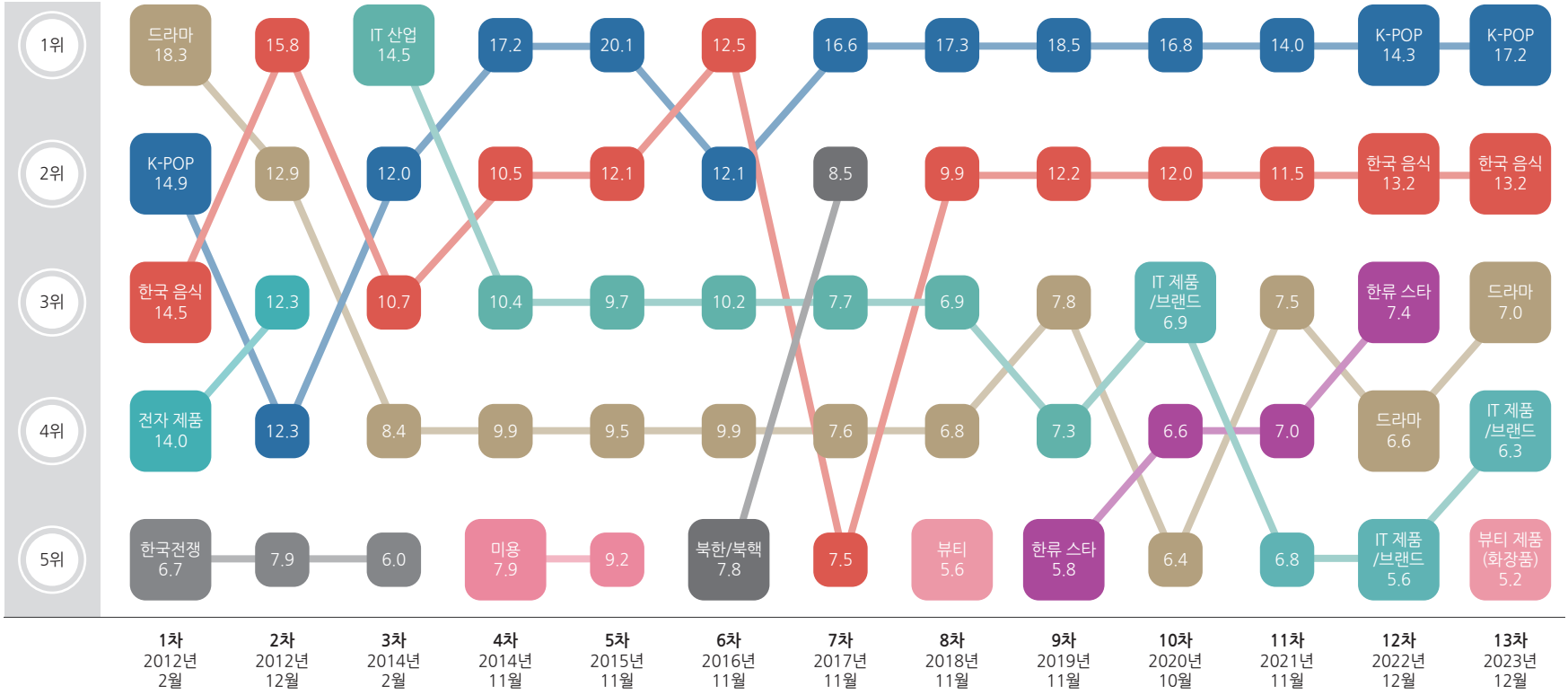
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2억 3천만 명이다. 한류 동호회는 타이(123개), 러시아(120개), 중국(102개), 미국(91개)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중국(1억 명), 멕시코(2천 8백만 명), 타이(2천만 명), 미국(1천 7백만 명), 베트남(1천 2백만 명) 등의 순으로 많다.



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류는 e-스포츠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e-스포츠 강국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스타크레프트, 오버워치 등 다양한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여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상했다. 국내에는 398명의 프로 선수가 활동 중이며, 해외로 진출한 프로 선수도 403명이 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22년 기준 약 1,500억 원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그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2023년 한국에서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월드컵)에는 한국 선수의 경기를 보

한국 연상 이미지



기 위해 방문한 해외 팬도 다수 있었으며, 이 경기는 약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스포츠 산업 및 소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 관련 수익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작품성을 세계로 알렸다. 작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화·영상 시장은 세계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매출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60억 달러이며, 이

중 우리나라는 12억 4천만 달러 규모로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1인당 관람 횟수는 2.44회(전 세계 8위)이며, 2019년에는 1인당 관람 횟수 4.4회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영상 시장의 매출은 약 1,300억 원이다. 2019년 OTT 넷플릭스의 ‘킹덤’과 ‘페르소나’를 시작으로, 총 9개의 OTT에서 오리지널 한국 영화 및 시리즈물을 제작하였다. 영화는 총 34편, 시리즈물은 총 156편이 제작 및 공개되었다. 특히 2024년 기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22억 시간의 가장 긴 시청 시간과, 2억 6천 5백 20회로 가장 많은 재생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류 동호회 회원 분포

